

Market Watch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oration
Quarterly Journal

3Q

2022
vol.28



모태 출자펀드 결성/투자/회수 동향

KVIC 벤처펀드 벤치마크

모태조합 출자펀드가 투자한
유니콘 및 후보 기업 분석

해외 VC 시장 동향

모태 출자펀드 투자산업 트렌드

Market Watch

관련 유의사항

KVIC MarketWatch는 벤처투자모태조합 등의
운영 성과를 공개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추천 또는
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본 보고서의 어떤 내용도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본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한
투자 결과에 대하여 당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한편, 당사는 본 보고서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본 보고서에 기재된 정보와
의견은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 및 그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당사에 있습니다. 언론사가 보도의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보고서의 내용 및 이를 통하여 지득 또는
파생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 인용, 복제, 변형, 배포,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한국벤처투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3Q 2022
Vol. 28

「KVIC MarketWatch」는 민간 주도의 벤처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운용하며 쌓아온 시장 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기 위해 발간하는 계간 저널입니다.

- 1 모태 출자펀드
결성/투자/회수 동향 05
- 2 KVIC 벤처펀드 벤치마크 18
- 3 모태조합 출자펀드가 투자한
유니콘 및 후보 기업 분석 36
- 4 해외 VC 시장 동향 49
- 5 모태 출자펀드
투자 산업 트렌드 88

발행처 한국벤처투자
발행인 유응환
문의사항 marketwatch@kv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한국벤처투자빌딩
편집·기획 한국벤처투자 www.kvic.or.kr
디자인 경성문화사





모태 출자펀드 결성/투자/회수 동향

해당 보고서는
분기를 기준으로 발간되며,
이번 호에서는 2022년 3분기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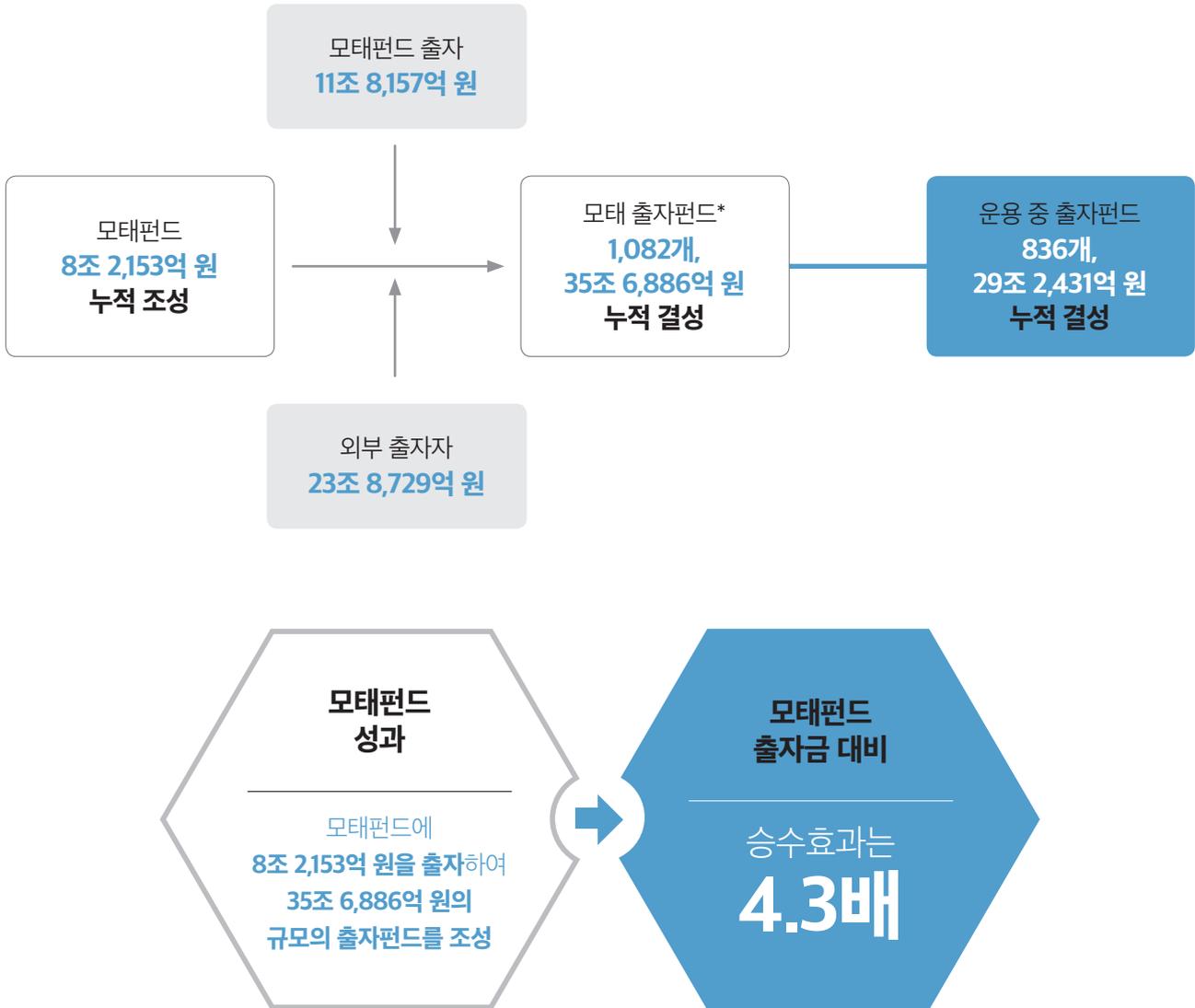
01

모태펀드 개요

-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PEF), 기업구조조정조합(CRC), 개인투자조합 포함
- ** 전체 투자실적은 업체 수 중복을 제거한 수치

2022년 9월 말 기준 한국모태펀드(이하 '모태펀드')의 누적 조성재원은 총 8조 2,153억 원으로 '22년 1분기 이후 변동이 없다. 반면 외부출자금은 소폭 증가한 23조 8,729억 원을 유치하여 누적으로 1,082개*, 35조 6,886억 원 규모의 출자펀드를 결성하였다. 이중 운용 중인 출자펀드는 836개, 29조 2,431억 원 규모이다. 모태펀드 설립 이후 현재까지 8,974개사**에 투자가 집행되었다.

그림 1 - 모태펀드 운용 현황



02

모태 출자펀드 결성

2022년 3분기 모태 출자펀드 신규 결성 조합

2022년 7~9월 신규 결성 펀드는 총 44개, 1조 2,704억 원 규모이다. 이 중 가장 큰 규모로 결성된 펀드는 ‘스마트케이앤비부스터펀드(GP: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로 1,450억 원 규모이다. 상기 펀드를 포함한 상위 3개 펀드의 결성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인 반면 대학창업 펀드의 경우 결성총액이 55억 원 이하로 펀드 별 결성총액의 편차가 크다.

표 1 — 2022년 3분기 신규 결성 모태 출자펀드

(단위: 억 원)

계정	성격	조합명	조합 유형	대표 운용사	결성 총액	모태 약정	결성일
중진	지역뉴딜 광주/전남/전북/제주	오라클지역뉴딜벤처펀드	벤처투자조합	오라클벤처투자	100	60	7.05
중진	지역뉴딜 대구/경북/강원	수인베스트먼트 동북지역뉴딜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수인베스트먼트캐피탈	100	60	7.06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 케이앤비 부스터 펀드	벤처투자조합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1,450	250	7.08
중진	지역뉴딜 광주/전남/전북/제주	다날지역뉴딜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동문파트너즈	167	100	7.08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롯데쇼핑이노베이션펀드	벤처투자조합	롯데벤처스	304	90	7.14
중진	지역뉴딜 대구/경북/강원	포스텍홀딩스 지역뉴딜 벤처펀드	벤처투자조합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	295	120	7.21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 브이플랫폼 코리아센터 멘토링 펀드	벤처투자조합	브이플랫폼인베스트먼트	218	60	7.21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한화KDB경기탄소중립ESG펀드	벤처투자조합	한화투자증권	1,030	200	7.26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메디톡스투자조합2호	벤처투자조합	메디톡스벤처투자	200	60	8.31
중진	지역뉴딜 광주/전남/전북/제주	서울투자스마트지역뉴딜펀드	벤처투자조합	서울투자파트너스	300	120	9.08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비대면 JB-메가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제이비인베스트먼트	200	60	9.19
중진	R&D 매칭펀드	하이테크 기술개발 사업화 펀드 2호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506	500	9.20
중진	스마트대한민국	스마트 HIP 제4호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현대투자파트너스	370	105	9.23
청년	청년창업	비에이피제5호 핑크핑크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비에이파트너스	300	150	7.25
청년	청년창업	뮤렉스퍼플3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뮤렉스파트너스	508	100	8.31
청년	청년창업	위청년메이트펀드1호	벤처투자조합	위벤처스	753	150	9.06
청년	청년창업	대성 투게더 청년창업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대성창업투자	250	100	9.19
혁신모험	창업초기	인포뱅크 창업초기 혁신펀드 1호	벤처투자조합	인포뱅크	175	70	8.08
혁신모험	창업초기	아산 유스타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40	22	9.02
혁신모험	창업초기 루키	퀵4호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퀵벤처스	200	120	9.19
혁신모험	창업초기	인천 혁신 창업 투자조합 제2호	개인투자조합	탐엔젤파트너스	41	22	9.28
소재부품장비	소재부품장비	코메스2022-1소재부품장비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코메스인베스트먼트	300	150	7.08
소재부품장비	소재부품장비	플래티넘-소재부품장비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플래티넘기술투자	310	125	9.06
소재부품장비	소재부품장비	수 하이비전 엠씨엠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수인베스트먼트캐피탈	167	100	9.16

계정	성격	조합명	조합 유형	대표 운공사	결성 총액	모태 약정	결성일
소재부품장비	소재부품장비	나우 소부장펀드 1호	벤처투자조합	나우아이비캐피탈	280	140	9.20
문화	모험투자	피앤아이크루저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피앤아이인베스트먼트	100	70	7.01
문화	드라마	케이앤 문화콘텐츠1호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케이앤투자파트너스	400	240	8.23
문화	모험투자	지온 NEW-K콘텐츠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지온인베스트먼트	250	175	9.02
문화	모험투자	사우스뱅크 디스커버리 콘텐츠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신기술조합	에스비파트너스	100	63	9.16
문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육성	웰투시-KVI 아문단펀드 1호	벤처투자조합	웰투시벤처투자	200	100	9.20
문화	모험투자	케이넷-크릿 콘텐츠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케이넷투자파트너스	1,015	700	9.27
영화	중저예산한국영화	펜처 중저예산영화전문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펜처인베스트	201	98	9.08
영화	중저예산한국영화	유니온시네마2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유니온투자파트너스	175	98	9.20
영화	한국영화메인투자	케이씨케이무비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케이씨벤처스	370	240	9.23
관광	관광기업육성	하이DGB 스마트관광 벤처펀드	벤처투자조합	하이투자파트너스	332	225	8.17
스포츠	스포츠출발	씨엔티테크 제18호 스포츠 스타트업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씨엔티테크	45	27	8.31
스포츠	스포츠출발	와이앤아처 히어로즈 개인투자조합 1호	개인투자조합	와이앤아처	45	27	8.31
스포츠	스포츠산업	보광 DTC 스포츠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보광인베스트먼트	286	200	9.23
교육	대학창업1	경북대학교-로우파트너스 대학창업투자조합 1호	개인투자조합	경북대학교기술지주	20	13	8.10
교육	대학창업2	부산대학교창업 제3호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부산대학교기술지주	35	20	8.19
교육	대학창업1	대학창업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벤처박스	30	17	8.22
교육	대학창업2	카이스트 청년창업 부스트 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	55	35	8.26
교육	대학창업2	한양대학교 창업엔진 개인투자조합 3호	개인투자조합	한양대학교기술지주회사	52	15	9.20
환경	미래환경산업	스마일게이트녹색성장3호펀드	벤처투자조합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430	268	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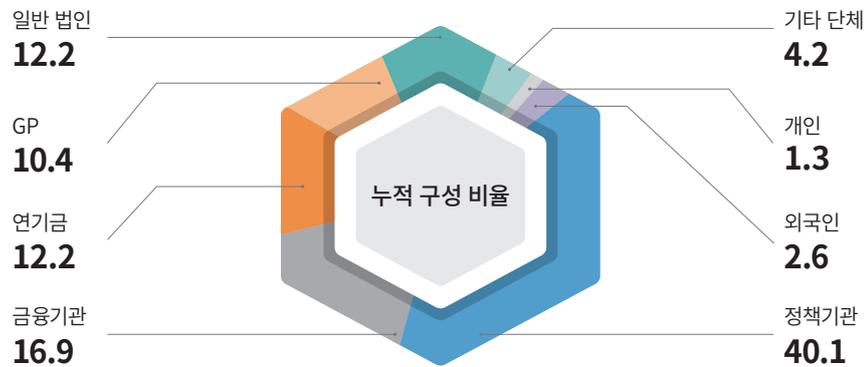
출처 한국벤처투자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누적)

2022년 9월 말 현재 모태 출자펀드의 출자자 구성(누적)은 [그림 2], [표 2]와 같다. 모태펀드를 포함한 정책기관이 14조 3,209억 원(40.1%)을 출자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금융기관 6조 443억 원(16.9%), 연기금 4조 3,563억 원(12.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2년 3분기에 일반법인 출자가 약 3,563억 원 늘어나면서 당해연도 신규 결성된 출자펀드는 정책기관(9,146억 원), 일반법인(4,727억 원), 금융기관(3,574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 —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 현황(누적)

(단위: %)



출처 한국벤처투자

표 2 — 모태 출자펀드 출자자 구성 현황(누적)

(단위: 억 원)

구분	정책기관	금융기관	연기금	GP	일반 법인	기타 단체	개인	외국인	합계
'22.09	9,146	3,574	2,325	1,529	4,727	464	835	211	22,809
누적	143,209	60,443	43,563	37,108	43,382	15,139	4,730	9,310	356,886

* 결성연도 기준

조합원 구분	상세 분류(KVCA 기준 참고)
정책기관	정부, 지자체, 모태펀드, 기타 모펀드, 기금
금융기관	은행, 보험, 증권, 기타 금융기관
연기금	연금, 공제회
GP	창투사, 신기술, LLC 등 업무집행조합원
일반법인	영리목적의 법인
기타단체	협회, 학교법인, 종교단체, 재단, KIF투자조합, 성장사다리펀드
개인	일반개인
외국인	외국 소재 개인 및 법인

출처 한국벤처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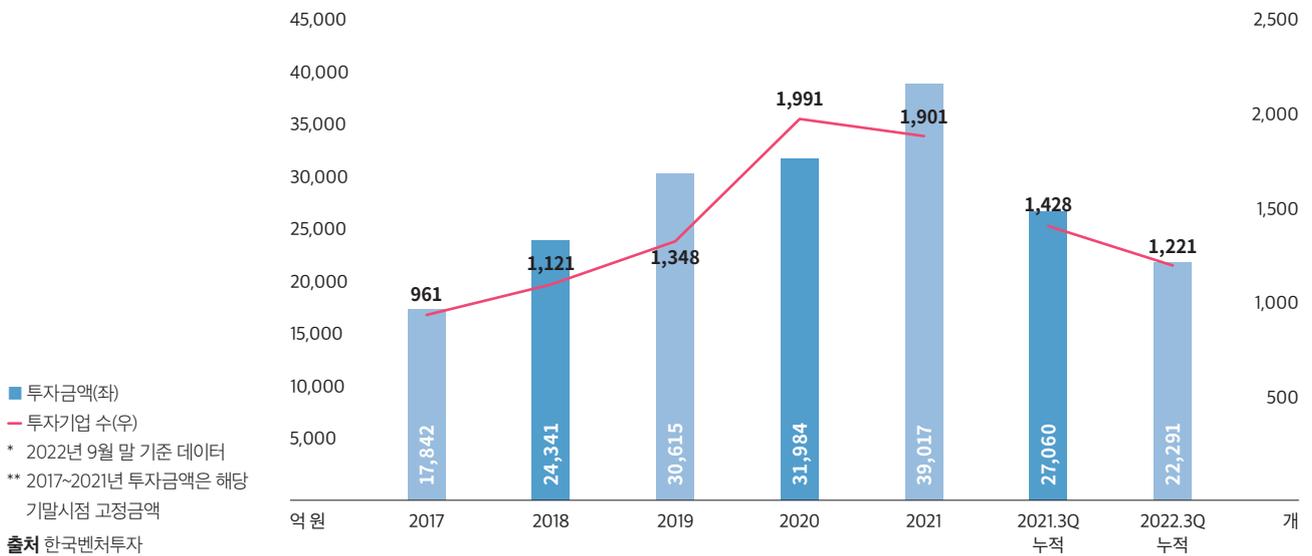
03

모태 출자펀드 투자

모태 출자펀드 신규 투자 동향

2022년 3분기 누적기준으로 410개 모태 출자펀드가 1,221개 기업에 총 2조 2,291억 원이 투자되었다.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투자금액과 기업 수 기준 모두 각각 17.6%, 14.5% 감소하였다.

그림 3 - 최근 5년 투자 추이



투자금액 상위 기업

2022년 3분기 기준 모태 출자펀드에서 투자한 전체 투자 건을 살펴보면 평균 17.9억 원이 투자된 반면, 투자금액 상위 10개 기업의 평균 투자금액은 205.3억 원을 기록하였다. 직전 반기 대비 투자금액 상위 10개 기업 중 8개는 변동이 없다.

표 3 — 2022년 기준 모태 출자펀드 투자금액 상위 10개사

(단위: 개, 억 원)

순위	투자기업명	업종 분류(대)	업종 분류(중)	투자 출자펀드 수	투자금액
1	브이에이코퍼레이션	영상/공연/음반	영상	1	310
2	○○○○○	유통/서비스	전문서비스	1	272
3	컨텍	ICT서비스	소프트웨어	5	250
4	○○○○○	기타	기타	1	238
5	원진바이오테크놀로지	바이오/의료	의료용물질/의약품	6	220
6	디에스리퀴드	화학/소재	금속	1	199
7	리벨리온	ICT제조	반도체/전자부품	3	155
8	○○○○○	화학/소재	고무/플라스틱	4	150
9	에이블리코퍼레이션	유통/서비스	도소매업	2	133
10	하이브미디어코프	영상/공연/음반	영상	11	126

* 기업에서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업명을 비실명 처리함
출처 한국벤처투자

업력별 신규 투자

* 총 투자기업 수 1,221개(조합 간 업체 수 중복을 제거한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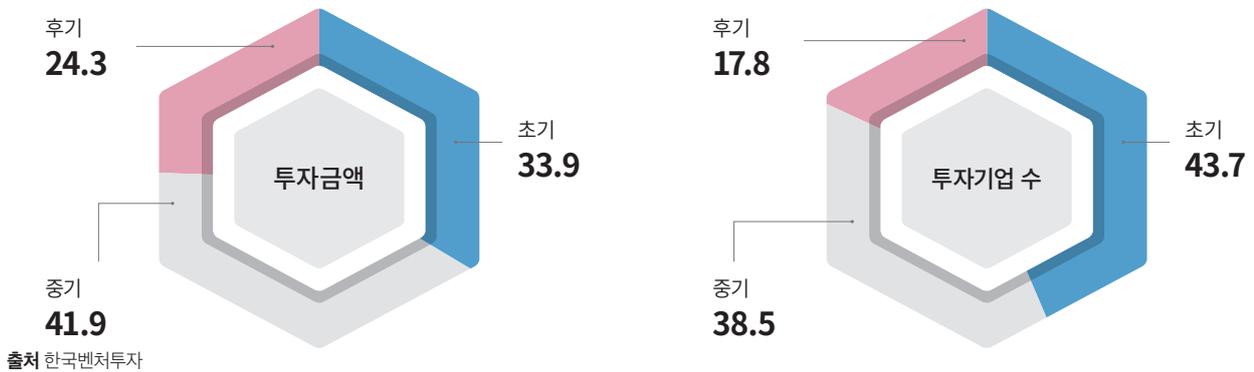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모태 출자펀드 신규투자를 업력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기업에는 7,556억 원(33.9%), 3년 초과 7년 이하인 중기기업에 9,326억 원(41.9%), 창업 후 7년 초과된 후기기업에 5,409억 원(24.3%)이 투자되었다. 투자기업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초기기업 539개사(43.7%), 중기기업 475개사(38.5%), 후기기업 219개사(17.8%) 순이다.

전년 동기 대비 투자기업 수는 모든 업력에서 감소세를 나타냈다. 업력별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초기기업에 대한 선호도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초기기업은 13.8% 증가한 반면 중기 및 후기기업은 각각 22.7%, 33.7% 감소하였다. 다만,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증가폭보다 중기기업 및 후기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 폭이 훨씬 상회하면서 전체 투자금액 또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단위기업당 투자금액은 업력별 차별화를 나타냈다. 초기기업은 계속해서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한 14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직전분기 대비해서는 소폭 감소하였다. 중기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19.6억 원을 기록했으나, 후기기업은 2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다.

그림 4 — 2022년 모태 출자펀드 업력별 신규 투자

(단위: %)



지역별 신규 투자 및 업종별 신규 투자

2022년 3분기 누적 기준, 모태 출자펀드 신규투자를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기업 투자가 1조 5,795억 원(70.9%)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는 5,043억 원(22.6%), 해외 소재 기업 투자는 1,453억 원(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규모와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감소 폭은 차이가 있었다.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은 9.0% 소폭 감소한 반면 수도권과 해외는 각각 17.8%, 31.1% 감소했다. 투자기업 수 또한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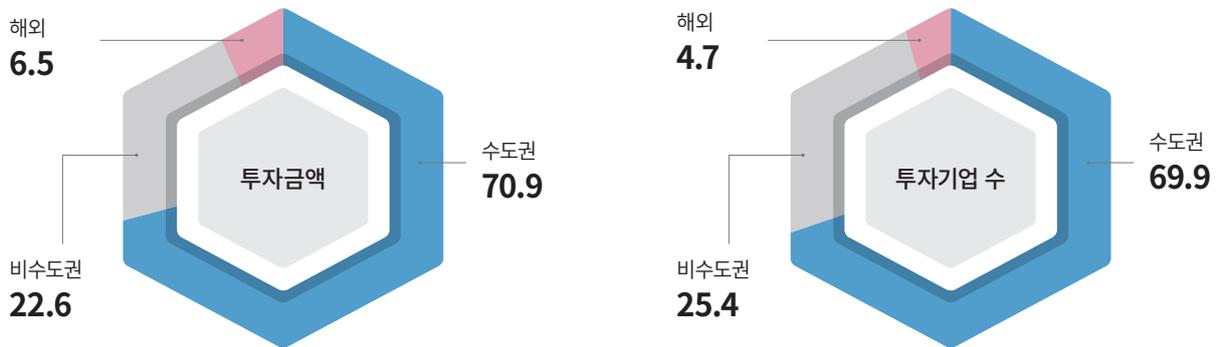
수도권 내 투자금액 및 투자기업 수는 전년 동기 대비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특히 인천의 경우 2, 3분기 동안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투자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1%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으며, 투자기업 수 또한 19개로 타 지역 대비 다소 저조한 흐름을 나타냈다.

5대 광역시의 투자금액은 전체 지역 내에서 약 11%를 기록했으며, 지역별 방향성은 다르게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투자가 증가한 곳은 부산과 대구였는데, 특히 대구의 경우 76.3% 증가한 372억 원을 기록하며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5대 광역시 내에서는 여전히 대전의 투자금액이 1,224억 원으로 타 지역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기타 지방은 143개 기업에 2,593억 원이 투자되며, 전체 지역 내에서 약 11.6%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이다.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경북에 527억 원이 투자되며 기타 지방 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고, 제주는 전년 동기 대비 179.5% 증가한 422억 원을 기록하며 증가율 기준으로는 가장 높다. 단위기업당 투자금액은 전북지역이 29.5억 원으로 직전분기에 이어서 전체 지역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림 5 — 2022년 모태 출자펀드 지역별 신규 투자

(단위: %)



* 총 투자기업 수 1,221개(조합 간 업체 수 중복을 제거한 수치)

** 지역 구분 기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비수도권-(5대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지방)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세종

출처 한국벤처투자

2022년 3분기 누적 기준 출자펀드 신규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계속해서 ICT서비스로 총 6,365억 원이 투자되며 전체 투자 규모의 28.6%를 차지하였다. 그다음으로는 바이오/의료 4,027억 원(18.1%), 유통/서비스 3,467억 원(15.6%) 순이다. 투자금액 상위 3개 업종은 연초 이후 변동이 없으나 바이오/의료 및 유통/서비스의 투자금액 증가속도가 현저히 낮아지면서 전체 투자금액의 비중은 62.3%를 차지했다. 한편 단위기업당 투자금액은 화학/소재가 25.6억 원으로 타 업종 대비 가장 큰 금액을 기록했다.

그림 6 — 2022년 모태 출자펀드 업종별 신규 투자

(단위: %)



번호	구분	비중(업체)
1	ICT서비스	28.6%
2	바이오/의료	18.1%
3	유통/서비스	15.6%
4	영상/공연/음반	9.9%
5	기타	7.4%
6	전기/기계/장비	7.2%
7	화학/소재	6.2%
8	ICT제조	4.1%
9	게임	3.0%

번호	구분	비중(업체)
1	ICT서비스	31.2%
2	유통/서비스	18.5%
3	바이오/의료	14.8%
4	영상/공연/음반	11.5%
5	기타	7.3%
6	전기/기계/장비	6.4%
7	화학/소재	4.1%
8	ICT제조	3.5%
9	게임	2.7%

출처 한국벤처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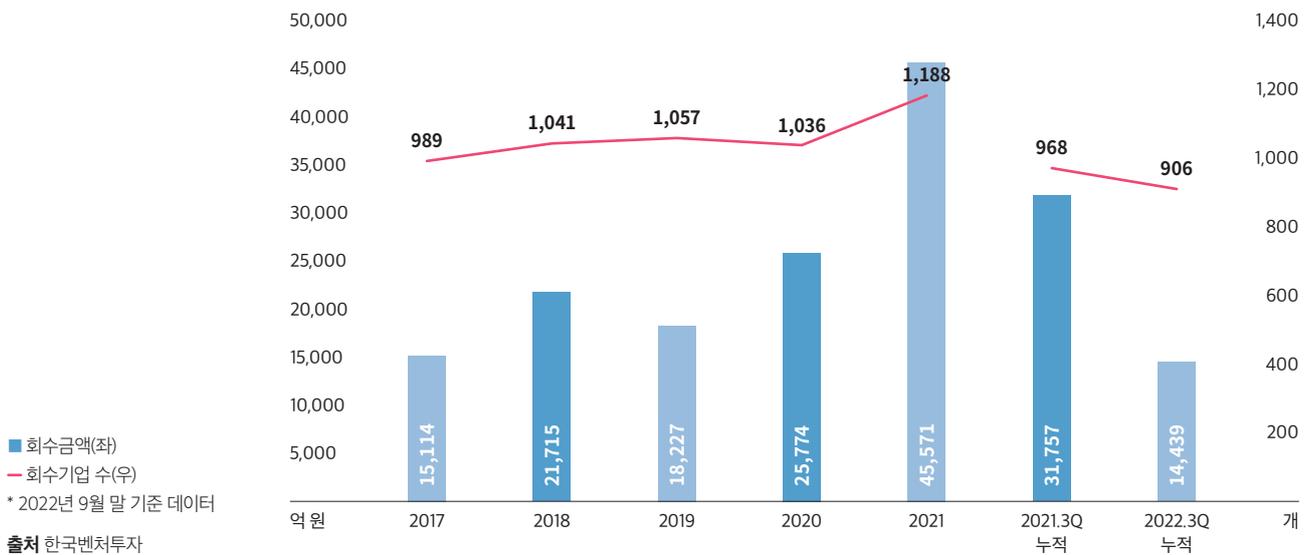
04

모태 출자펀드 회수

모태 출자펀드 회수 동향

2022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289개 모태 출자펀드가 투자한 906개 기업을 통해 총 1조 4,439억 원(회수원금 7,215억 원, 회수수익 7,224억 원)을 회수하며, 투자원금 대비 2배의 회수 수익배수를 기록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 회수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54.5% 감소했으며, 기업 수 기준으로도 6.4% 감소했다.

그림 7 - 최근 5년 누적 회수 추이



회수금액 및 업종별 회수 동향

2022년 3분기 누적 기준 업종별로는 ICT서비스(4,233억 원, 29.3%)와 유통/서비스(2,252억 원, 15.6%) 순으로 회수가 이루어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ICT서비스 내에서는 소프트웨어가 3,101억 원(21.5%)의 회수가 이루어지며 여전히 업종 내 회수 규모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2022년 모태 출자펀드 회수 건 중 최대 회수총액을 기록한 기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2022년 1,234억 원의 회수가 이루어졌다. 또한, ICT서비스 기업들은 다수 상위권에 포진해있으며, 회수총액 및 수익배수 기준으로 각각 4개의 기업이 10위권 내에 포진해있다.

모태 출자펀드 투자기업 IPO 현황

모태 출자펀드가 투자한 기업 중 2022년 3분기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9개 기업이다. 2022년 9월 말 기준 신규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중 모태 출자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수는 43개사이다. 8개의 상장예정인 기업 중 산돌과 오에스피의 경우 심사를 철회했다가 재도전에 성공한 경우이다.

표 4 — 2022년 3분기 모태 출자펀드 투자기업 신규 상장 현황

(단위: 억 원)

투자기업명	시장 구분	기업 설립 연월	상장 연월	공모금액(모집총액)	상장일 시가총액	주요 제품/서비스
성일하이텍	코스닥	2017.03	2022.07	1,335	10,243	코발트, 니켈, 리튬 등
루닛	코스닥	2013.08	2022.07	365	4,208	Lunit INSIGHT
넥스트칩	코스닥	2019.01	2022.07	338	2,486	차량 및 자율주행차용 비메모리 반도체 (ISP, AHD, ADAS/AD)
에이프릴바이오	코스닥	2013.01	2022.07	207	2,297	항체의약품 및 재조합 단백질 의약품
영창케미칼	코스닥	2001.07	2022.07	446	1,663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화학소재
아이씨에이치	코스닥	2012.08	2022.07	401	1,529	스마트기기용 필름형 안테나
쏘카	유가증권	2011.10	2022.08	1,019	8,607	카셰어링, 모빌리티 플랫폼 등
대성하이텍	코스닥	2001.09	2022.08	299	1,939	정밀부품, 스위스톤 자동선반, 컴팩트 머시닝센터
오픈엠티테크놀로지	코스닥	2017.12	2022.09	339	2,097	시스템 반도체 IP

* SPAC합병 제외,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포함

출처 KRX 상장공시시스템

표 5 - 2022년 3분기 모태 출자펀드 투자기업 상장 추진 현황

(단위: 억 원)

투자기업명	시장 구분	기업 설립 연월	진행 상태	주요 제품/서비스
디티앤씨알오	코스닥	2017-04-03	상장예정	의약품 분석 및 임상시험
산돌	코스닥	2018-10-29	상장예정	산돌구름
사페론	코스닥	2008-10-01	상장예정	염증질환 치료제 임상 2상
오에스피	코스닥	2004-06-16	상장예정	유기농 반려동물 사료
이노롤스	코스닥	2007-01-11	상장예정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저스팀	코스닥	2016-04-25	상장예정	반도체, 디스플레이, Solar Cell 장비, 부품
제이아이테크	코스닥	2014-03-28	상장예정	반도체용 프리커서 제조
플라즈맵	코스닥	2015-03-31	상장예정	의료용 플라즈마 멸균기
뉴로메카	코스닥	2013-02-14	심사 승인	협동 로봇
밀리의서재	코스닥	2016-07-12	심사 승인	전자책구독서비스플랫폼
바이오노트	유가증권	2003-03-28	심사 승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바이오인프라	코스닥	2001-01-30	심사 승인	체외진단 암 선별검사 및 표적 항암 치료제 연구개발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코스닥	2014-07-03	심사 승인	혁신기술 보유 창업기업 대상 액셀러레이터 투자
에스에이엠지엔터테인먼트	코스닥	2000-07-26	심사 승인	애니메이션 기획, 제작, 배급, 유통 등
엔젯	코스닥	2009-09-09	심사 승인	반도체/디스플레이용 나노 잉크젯 프린터/코터
인벤티지랩	코스닥	2015-05-14	심사 승인	안면성형용 필러 및 DDS개발
자람테크놀로지	코스닥	2000-02-01	심사 승인	기기와이어장치, XPSPON
제이오	코스닥	1994-11-28	심사 승인	이화학측정기(연속식 종합반응기 등), 탄소나노튜브
컬리	유가증권	2014-12-31	심사 승인	식료품
티쓰리	코스닥	2000-04-17	심사 승인	리듬액션 게임개발
티이엠씨	코스닥	2015-01-30	심사 승인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
팜트론	코스닥	2002-01-15	심사 승인	3D 비전 검사장비
나라셀라	코스닥	1990-01-10	심사 중	와인 수입 및 도/소매
모노리스	코스닥	2017-05-25	심사 중	ICT기반 놀이 및 게임 개발, 유통
스튜디오미르	코스닥	2010-10-28	심사 중	애니메이션 제작 (볼트론: 전설의 수호자, 코라의 전설, 나의 붉은 고래, KOJI 등)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	코스닥	2012-03-20	심사 중	시약, 의약품 등
씨유박스	코스닥	2010-05-31	심사 중	AI 생체인식장비 및 S/W
에스바이오메딕스	코스닥	2005-10-30	심사 중	CureSkin, TK-Cell, K-Stem, Y-Stem
에스엠랩	코스닥	2018-07-06	심사 중	이차전지 양극소재(전고체 전지)
에이비메디컬	코스닥	2012-03-07	심사 중	진공채혈관 제조, 도소매
오아시스	코스닥	2011-10-14	심사 중	마트체인, 신선식품 배송
오픈놀	코스닥	2012-04-18	심사 중	과제 기반 채용기업 구직자 매칭 서비스
이노시물레이션	코스닥	2000-05-24	심사 중	가상현실 기반 시뮬레이터, 가상훈련시스템, 운동플랫폼 및 관련 서비스
인피닉	코스닥	2005-03-07	심사 중	인공지능 데이터서비스,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검증
잉카엔트웍스	코스닥	2000-10-05	심사 중	디지털 콘텐츠 보안 서비스
지아이이노베이션	코스닥	2017-07-19	심사 중	신약개발(항암제, 알리지 신약)
큐라티스	코스닥	2016-07-15	심사 중	결핵 백신, 면역 관련 백신 및 치료제
테토스	코스닥	2010-01-07	심사 중	스퍼터링 나노볼 및 EMI 필름
트루엔	코스닥	2005-01-28	심사 중	고성능 영상감시시스템 (IPCAM, NVR)
틸론	코스닥	2001-08-08	심사 중	클라우드 솔루션 공급 및 하드웨어 개발 판매
파로스아이바이오	코스닥	2016-04-19	심사 중	급성백혈병 치료제 등 바이오 신약 개발
프로테움텍	코스닥	2000-03-22	심사 중	단백질 분석, 진단키트 개발

* SPAC합병 제외,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포함

** 2022년 9월 말 기준





KVIC 벤처펀드 벤치마크

해당 보고서는
매 반기별로 발간되며,
이번 호에서는 2021년 12월 말 기준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01

벤치마크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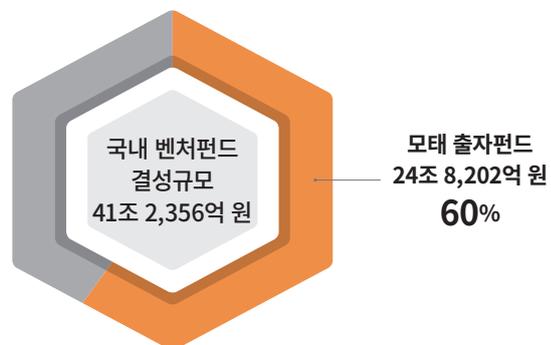
펀드 운용성과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펀드의 성과를 비교대상 자산의 성과와 비교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벤치마크’란 펀드의 성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성과정보**로 전체 시장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펀드 그룹의 성과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한 기준지표와 같은 개념이다.

또한 만약 특정 기간의 펀드 수익률이 10%일 때,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는 20% 상승했다면 펀드에 투자한 것이 상장 주식시장에 투자한 경우보다 수익률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반대로 펀드 수익률이 -5%지만 상장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10%라면 펀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펀드의 성과가 좋고 나쁨을 비교하기 위한 도구로 비교대상 자산의 벤치마크를 활용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대표 ‘벤처펀드 벤치마크’

한국벤처투자의 ‘KVIC 벤처펀드 벤치마크’는 우리나라 벤처펀드의 약 60%(2021년 12월 말 기준)에 대한 누적 성과정보가 집계되어 있는 모태펀드 DB를 기반으로, 벤처펀드 성과를 나타내는 대한민국의 대표 벤처펀드 벤치마크이다.

그림 1 — 2021년 12월 말 기준 국내 벤처펀드 결성 규모 대비 모태 출자펀드 규모



* 운용 중인 벤처투자조합 기준
출처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KVIC 벤처펀드 벤치마크 구성

- ① KVIC 벤처펀드 기간수익률
- ② PME 벤치마크(KOSPI / KOSDAQ 상장시장과의 수익률 비교지표)
- ③ 펀드 결성연도별 벤치마크
- ④ 펀드 결성규모별 벤치마크

벤치마크의 활용

벤처펀드 수익성의 기준지표가 되는 'KVIC 벤처펀드 벤치마크'는 다음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① 개별 벤처펀드와 운용사의 성과를 비교/평가
- ② 투자 목표 수익률, 자산구성 등 자산배분계획에 참고
- ③ 정책자료 및 연구 목적

KVIC 벤처펀드 벤치마크 작성 프로세스

벤치마크 성과 데이터는 각 모태 출자펀드 운용사가 제출하는 반기 재무제표, 연간 감사보고서, 월간 보고 자료, 반기 펀드 투자자산 가치평가, 펀드 출자/배분 정보* 등을 기반으로 반기마다 산출한다.

(* 성과보수 제외, 세전 기준)

각 운용사 제출 자료는 제출 시점에 수시로 집계하여 DB에 입력하고, 주기적으로 데이터 오류를 재검증한다.

반기 가치평가 자료 반영으로 인해 벤치마크는 기준시점에서 한 반기 시차(Time lag)를 두고 발표한다. 벤치마크 발표 이후 펀드의 과거 데이터에 대한 추가/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 시점의 벤치마크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다음 반기에 반영한다. 또한, 벤치마크 내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거나, 제공정보 범위와 형태 등 구성 항목 역시 변동될 수 있다.

■ 벤치마크 측정의 제한사항

펀드 투자자산 가치를 반기 주기로 측정하기 때문에 객관성·적시성 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펀드 결성 후 최초 2~3년 이내 시점은 벤처펀드의 특성(J-curve 효과*)상 의미 있는 수익률을 산출하기가 어렵다.

(* J-Curve 효과: 투자수익이 후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초기에는 수익률이 낮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대부분의 벤처투자 자산에서 일반적으로 발생)

02

KVIC 벤처펀드 벤치마크

국내 벤처펀드 기간 수익률

표 1 — KVIC 벤처펀드 기간수익률(2021년 12월 말 기준)

	최근 1년	최근 3년	최근 5년	최근 7년	최근 10년	전체기간(2005.6.~)
KVIC 벤처펀드 기간수익률	37.41%*	24.26%	21.76%	19.36%	15.39%	12.98%
(벤처지수)	34.23%	24.21%	21.64%	20.02%	16.18%	13.73%
(문화지수)	68.73%	24.67%	22.71%	15.23%	10.84%	8.54%

* 2021.01.01.~2021.12.31. 기간(1년)의 벤처펀드 수익률이 37.41%임을 의미한다.

- ① 전체기간 수익률은 모태펀드의 결성 직후인 2005년 6월 3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으로 산정
- ② 문화지수는 모태펀드 문화, 영화, 과기정통계정에 속한 모태 출자펀드의 수익률이며, 나머지 계정은 벤처지수에 속함(문화, 영화 계정의 경우 프로젝트 위주의 투자로, 기업 지분 위주로 투자하는 일반 벤처투자자와 다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함)
- ③ 문화지수의 경우, 문화 계정 내 특정 펀드 중 수익률이 높게 평가된 펀드 발생

벤처펀드 기간수익률은 모든 펀드를 하나의 큰 펀드로 간주하여 산출한 통합 수익률(Pooled IRR)이다. 또한 임의의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펀드의 출자, 배분, 가치변동을 고려한 금액가 중 연환산 수익률(end-to-end IRR)*을 반기별로 산출한다(*[별첨 1] 참조).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 모든 펀드의 현금 흐름은 해당일자가 속한 분기의 중간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e.g. 2017.3.1. 펀드 출자 → 2017.2.15. 펀드 출자 / 2016.7.5. 수익 배분 → 2016.8.15. 수익 배분으로 가정).

• 기간수익률은 장기간의 벤처펀드 수익률의 변동 패턴을 보여준다. 대부분 벤처펀드의 존속기간은 7~10년이므로, 일반적인 벤처펀드의 수익률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7년, 10년 기간의 수익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ME (Public Market Equivalent) 벤치마크

표 2 — PME 벤치마크(2021년 12월 말 기준)

	최근 1년	최근 3년	최근 5년	최근 7년	최근 10년	전체기간(2005.6~)
KOSPI PME (A)	3.49%	13.99%	9.08%	7.76%	6.51%	6.37%
KOSDAQ PME (B)	6.80%	16.11%	11.67%	10.75%	8.96%	7.14%
KVIC 벤처펀드 기간수익률 (C)	37.41%	24.26%	21.76%	19.36%	15.39%	12.98%
KOSPI 대비 초과수익 (C-A)	33.92%p	10.27%p	12.68%p	11.60%p	8.88%p	6.61%p
KOSDAQ 대비 초과수익 (C-B)	30.61%p	8.15%p	10.09%p	8.61%p**	6.43%p	5.84%p

* 2021.01.01.~2021.12.31 기간(1년) 동안 벤처펀드에 출자/배분했던 동일금액을 동일시점에 KOSPI 지수에 투자/회수했다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3.49%임을 의미한다.(KOSPI 지수는 2873.47 (2020.12.30.) > 2977.65 (2021.12.30.)로 3.63% 상승)

** 2015.01.01.~2021.12.31. 기간(7년) 동안 벤처펀드가 코스닥시장 PME 대비 8.61%p의 초과수익을 거두었음을 의미한다.

PME 벤치마크는 벤처펀드의 현금흐름과 가치변동, 상장 주가지수의 등락을 반영한 것으로, 벤처펀드의 출자/배분이 발생한 동일시점에 동일한 금액만큼 상장 주가지수를 사고파는 것으로 가정한 가상의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다(KOSPI, KOSDAQ 지수의 단순 기간수익률과는 다르다).

펀드 결성연도별 벤치마크 1

표 3 — 결성연도별 투자수익률(2021년 12월 말 기준)

결성연도	펀드 수	총 약정액 (억원)	Pooled IRR	제1사분위 IRR	중위값	제3사분위 IRR	최대값	최소값
2004년	6	1,536	5.68%*	17.80%	4.95%	0.61%	22.87%	-12.02%
2005년	13	4,810	N/A	3.52%	-2.00%	-7.53%	16.17%	-25.27%
2006년	18	4,790	2.65%	4.71%	0.42%	-9.60%	37.30%	-16.80%
2007년	31	7,501	2.87%	4.99%	1.25%	-0.72%	34.26%	-28.57%
2008년	25	5,717	15.82%	9.64%	0.35%	-3.87%	61.94%	-17.60%
2009년	61	14,383	4.45%	6.82%	0.52%	-5.21%	42.71%	-23.26%
2010년	31	8,281	4.30%	12.60%	1.45%	-6.84%	23.94%	-28.19%
2011년	38	15,427	10.53%	10.76%	2.05%	-5.75%	60.98%	-14.77%
2012년	17	5,166	11.59%	16.73%	8.05%	3.22%	25.40%	-42.41%
2013년	41	13,142	18.62%	17.47%	11.68%	5.19%	42.26%	-11.68%
2014년	54	21,476	20.33%	22.84%	11.62%	7.72%	106.74%	-13.86%
2015년	61	19,474	17.57%	21.69%	13.69%	3.49%	41.18%	-13.86%
2016년	69	23,214	22.20%	22.66%	15.11%	3.32%	55.04%	-9.66%
2017년	98	34,402	20.99%	23.70%	17.63%	8.36%	77.20%	-11.24%
2018년	84	29,957	20.81%	20.61%	13.47%	3.18%	60.16%	-11.46%
2019년	93	26,919	14.11%	17.54%	9.96%	1.73%	NM	NM
2020년	114	35,870	18.98%	19.42%	2.66%	-3.94%	NM	NM
2021년	131	42,558	10.37%	-4.01%	-6.78%	-11.40%	NM	NM

* 2004년에 결성했던 모든 펀드의 2021년 12월 말 기준 연환산 수익률이 5.68%임을 의미한다.

① NM(not meaningful) : 투자 2~3년 이내 시점 최대/최소값은 극단치로 유의미하지 않음

② 제1사분위/제3사분위 IRR : 결성연도별 펀드들의 수익률이 높은 순으로 4분위수로 나누었을 때, 각 상위/하위 25%에 위치한 펀드의 수익률이다.

③ 2005년의 Pooled IRR의 경우 IRR을 계산하는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아 N/A로 표기하였다.

각 벤처펀드의 결성일로부터 현재 기준시점까지의 IRR을 독립적으로 계산한 후, 결성연도별 4분위수, 중위값, 최대/최소값을 산출한다.

- 특정연도에 결성한 펀드가 당시 결성한 전체 펀드(Peer Group)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수준에 위치해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므로 시장 전체를 고려한 펀드/운용사의 상대적인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펀드 결성연도별 벤치마크 2

표 4 — 결성연도별 투자배수(2021년 12월 말 기준)

결성연도	펀드 수	총액(억 원)	전체 투자배수	제1사분위 투자배수	중위값	제3사분위 투자배수	최대값	최소값
2004년	6	1,536	1.35	1.59	1.30	1.02	2.53	0.37
2005년	13	4,810	0.96	1.20	1.02	0.73	1.49	0.23
2006년	18	4,790	1.12	1.29	1.07	0.57	1.85	0.28
2007년	31	7,501	1.13	1.21	1.05	0.97	2.51	0.12
2008년	25	5,717	3.42	1.41	1.01	0.77	23.98	0.44
2009년	61	14,383	1.23	1.33	1.02	0.71	4.73	0.39
2010년	31	8,281	1.24	1.54	1.06	0.67	3.23	0.11
2011년	38	15,427	1.69	1.45	1.10	0.71	7.09	0.37
2012년	17	5,166	1.61	1.83	1.46	1.18	2.39	0.05
2013년	41	13,142	2.27	2.03	1.55	1.24	5.95	0.34
2014년	54	21,476	2.36	2.70	1.60	1.38	5.56	0.53
2015년	61	19,474	2.11	2.32	1.72	1.01	6.44	0.00
2016년	69	23,214	2.07	2.11	1.55	1.12	7.37	0.64
2017년	98	34,402	1.75	1.89	1.58	1.24	6.08	0.62
2018년	84	29,957	1.54	1.59	1.32	1.08	2.78	0.73
2019년	93	26,919	1.22	1.29	1.14	1.02	2.14	0.74
2020년	114	35,870	1.16	1.19	1.03	0.97	2.25	0.83
2021년	131	42,558	1.04	0.99	0.98	0.96	1.65	0.02

- * 2004년에 결성하여 1원을 투자한 펀드들이 2021년 12월 말 현재 1.35원의 수익을 거둔 상태임을 의미한다.
- 제1사분위/제3사분위 투자배수는 결성연도별 펀드들을 투자배수가 높은(낮은) 순으로 정렬했을 때, 각 상위/하위 25%의 위치에 해당하는 특정 펀드의 투자배수다.

각 벤처펀드의 결성일로부터 현재 기준시점까지의 투자배수를 독립적으로 계산한 후, 결성연도별 4분위수, 중위값, 최대/최소값을 산출한다.

펀드 결성연도별 벤치마크 3

표 5 — 결성연도별 TVPI 투자배수(2021년 12월 말 기준)

결성연도	펀드 수	총 약정액 (억 원)	약정액 대비 납입비율	DPI	RVPI	TVPI
2004년	6	1,536	100.00%	1.35	0.00	1.35
2005년	13	4,810	94.66%	0.96	0.00	0.96
2006년	18	4,790	95.41%	1.12	0.00	1.12
2007년	31	7,501	92.37%	1.13	0.00	1.13
2008년	25	5,717	98.60%	1.54	1.88	3.42
2009년	61	14,383	93.77%	1.22	0.00	1.23
2010년	31	8,281	97.02%	1.21	0.03	1.24
2011년	38	15,427	93.95%	1.33	0.36	1.69
2012년	17	5,166	98.39%	1.53	0.09	1.61
2013년	41	13,142	97.25%	1.45	0.82	2.27
2014년	54	21,476	95.27%	1.31	1.05	2.36
2015년	61	19,474	96.20%	0.76	1.35	2.11
2016년	69	23,214	94.87%	0.65	1.43	2.07
2017년	98	34,402	97.64%	0.27	1.48	1.75
2018년	84	29,957	96.17%	0.16	1.38	1.54
2019년	93	26,919	84.62%	0.06	1.16	1.29
2020년	114	35,870	75.78%	0.01	1.15	1.19
2021년	131	42,558	34.60%	0.00	1.04	1.04

- DPI (Distribution to Paid-In) : 기준시점까지 펀드에 납입한 금액 대비 분배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나타냄
- RVPI (Residual Value to Paid-In) : 기준시점까지 펀드에 납입한 금액 대비 펀드에 남은 잔여자산의 가치를 나타냄
- TVPI (Total Value to Paid-In) : 납입액 대비 총가치(TVPI = DPI + RVPI)

결성연도별 벤처펀드의 총 DPI, RVPI, TVPI를 산출한다.

펀드 결성 규모별 벤치마크

표 6 — 결성규모별 투자수익률(2021년 12월 말 기준)

펀드 결성 규모	펀드 수	총 약정액 (억 원)	약정액 대비 납입비율	Pooled IRR	제1사분위 IRR	중위값	제3사분위 IRR
전체펀드 (2005.6~2021.12)	985	314,623	84.45%	12.98%	17.49%	6.64%	-4.00%
1,000억 원 이상	57	83,495	83.09%	18.63%	29.82%	16.17%	1.90%
500억~1,000억 원 미만	117	73,894	84.99%	15.38%	19.75%	10.60%	1.61%
300억~500억 원 미만	175	61,493	82.62%	12.59%	16.56%	7.94%	-0.21%
200억~300억 원 미만	207	46,707	86.02%	8.94%	16.53%	5.33%	-5.13%
100억~200억 원 미만	337	44,493	87.68%	7.10%	14.78%	4.00%	-4.50%
100억 원 미만	92	4,542	77.97%	7.44%	18.25%	2.75%	-4.66%

표 7 — 결성규모별 투자배수(2021년 12월 말 기준)

펀드 결성 규모	펀드 수	총 약정액 (억 원)	약정액 대비 납입비율	전체 투자배수	제1사분위 투자배수	중위값	제3사분위 투자배수
전체펀드 (2005.6~2021.12)	985	314,623	84.45%	1.65	1.58	1.16	0.97
1,000억 원 이상	57	83,495	83.09%	1.91	2.07	1.46	1.01
500억~1,000억 원 미만	117	73,894	84.99%	1.78	1.68	1.29	1.03
300억~500억 원 미만	175	61,493	82.62%	1.58	1.60	1.19	1.00
200억~300억 원 미만	207	46,707	86.02%	1.41	1.50	1.10	0.94
100억~200억 원 미만	337	44,493	87.68%	1.36	1.55	1.00	0.95
100억 원 미만	92	4,542	77.97%	1.31	1.44	1.00	0.97

각 벤처펀드의 현재 기준시점까지의 IRR과 투자배수를 독립적으로 계산한 후, 펀드규모별로 구분한 4분위수, 중위값을 산출한다.

03

벤치마크별 활용 예시

국내 벤처펀드 기간 수익률 활용

*활용예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실제 벤치마크 결과와는 다른 가상의 수치를 사용함

- KVIC 벤처펀드 기간수익률과 개별 펀드(운용사별/펀드별)의 운용수익률을 비교하여 성과평가/보상체계와 연계하거나 자산배분에 참고할 수 있다(운용사 선정 및 펀드 위험관리 등 활용).
- KVIC 벤처펀드 기간수익률의 역사적 추이분석을 통해 벤처 투자시장 거시동향, 타 자산군과의 상관관계 등을 검토할 수 있다(정책 및 연구목적 활용).
- 벤처펀드 출자/투자자가 벤처펀드 투자수익과 위험에 대한 기대 수준을 설정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Case 1.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 목적으로 벤처펀드에 투자하려고 할 때, 무위험자산 대비 KVIC 벤처펀드의 평균적인 위험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 ➔ KVIC 벤처펀드 기간수익률은 과거 기간에 따른 KVIC 벤처펀드의 수익률 정보를 제공한다. KVIC 벤처펀드 기간수익률과 국고채 수익률을 비교하여 KVIC 벤처펀드 투자의 평균적인 위험 프리미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예시 —

	최근 1년	최근 3년	최근 5년	최근 7년	최근 10년	전체기간(2005.6~)
국내 벤처펀드 기간 수익률	4.13%	7.52%	9.19%	8.12%	7.78%	7.53%

Case 2. 벤처펀드를 위탁운용할 운용사 선정과정에서 과거 펀드 운용실적을 평가항목으로 포함시키려고 할 때 기준이 되는 수익률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 ➔ KVIC 벤처펀드 기간수익률의 기간별 수익률을 참고하여, 각 운용사의 운용기간에 따른 평균적인 수익률 지표를 설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Case 3. 정책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국내외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 ➔ KVIC 벤처펀드 기간수익률을 활용하여 외국 벤처투자 시장이나 출자기관과의 수익률 비교가 가능하다.

예시 —

	최근 1년	최근 3년	최근 5년	최근 10년
KVIC 벤처펀드 기간수익률	4.13%	7.52%	9.19%	7.78%

	최근 1년	최근 3년	최근 5년	최근 10년
美 벤처펀드 벤치마크(기간수익률)	11.08%	8.03%	15.30%	9.04%

PME 벤치마크 활용

- 상장시장과 벤처펀드 수익률의 직관적 비교가 가능하다.
- 벤처펀드 기간수익률과 PME의 수익률 차이로 상장시장 대비 벤처펀드의 초과수익을 가늠할 수 있다.
- 출자/투자자의 자산배분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Case 1. 투자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시 상장 투자자산 대비 벤처펀드 투자수익률의 목표 수준을 가능해보고 싶은 경우

- ➔ PME 벤치마크는 KVIC 벤처펀드의 출자/배분이 발생한 동일 시점에 동일금액만큼 상장시장에 투자/회수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제시한다. PME 수익률* 정보를 통해 벤처펀드의 KOSPI / KOSDAQ 시장 대비 초과수익을 파악하고, 장단기 자산배분에 참고할 수 있다.

* PME의 계산은 [별첨 2]의 설명 참조

예시 —

	최근 1년	최근 3년	최근 5년	최근 7년	최근 10년	전체기간(2005.6~)
KOSPI PME (A)	9.60%	8.87%	4.54%	3.99%	6.19%	5.31%
KOSDAQ PME (B)	8.06%	7.24%	12.11%	6.76%	7.42%	6.75%
KVIC 벤처펀드 기간수익률 (C)	4.13%	7.52%	9.19%	8.12%	7.78%	7.53%
KOSPI 대비 초과수익 (C-A)	-5.47%p	-1.35%p	4.65%p	4.13%p	1.59%p	2.22%p
KOSDAQ 대비 초과수익 (C-B)	-3.93%p	0.28%p	-2.92%	1.36%p	0.36%p	0.78%p

펀드 결성연도별 벤치마크 활용

- 특정시점에 결성된 벤처펀드의 출자 대비 분배가 진행된 정도, 결성연도에 따른 벤처펀드의 성과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 투자배수는 잔여자산이 현재 가치평가금액 수준으로 회수되어 분배가능할 때, 투자금의 몇 배를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므로 향후 벤처펀드 포트폴리오의 잠재적인 수익을 파악할 수 있다.
- 투자배수는 신속하고 쉽게 운용성과를 파악할 수 있으며, 비율로 표현되기 때문에 다양한 규모의 투자를 비교해볼 수 있다.

Case 1. 벤처펀드 성과평가 과정에서 각각 결성연도가 다른 2개 펀드(ex 2010년 / 2013년)의 수익률을 현재 시점에서 비교해보고자 할 때, 각 펀드가 해당 결성연도에 생긴 평균적인 벤처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성과를 내었는지 알고 싶은 경우

- ➔ 결성연도별 벤치마크는 결성연도별 KVIC 벤처펀드의 수익성지표(IRR, 투자배수)에 대한 제1사분위, 중위값, 제3사분위, 최대값, 최소값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여 해당 펀드의 결성연도를 고려한 상대적 성과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특정연도에 결성한 펀드가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으므로, 향후 잠재적인 회수가 가능 금액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아래 예시의 경우 동일한 5%의 수익률을 달성한 펀드라 하더라도, 2010년에 결성한 펀드의 IRR 중위값은 2.20%, 2013년에 결성한 펀드의 IRR 중위값은 11.22%이기 때문에, 2010년에 5%를 달성한 펀드가 당시 시장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예시 —

결성연도	Pooled IRR	제1사분위 IRR	중위값	제3사분위 IRR	최대값	최소값
2010년	3.84%	9.57%	2.20%	-3.39%	22.58%	-32.87%
2013년	19.88%	23.23%	11.22%	1.34%	54.70%	-11.68%

결성연도	전체 투자배수	제1사분위 투자배수	중위값	제3사분위 투자배수	최대값	최소값
2010년	1.18	1.31	1.06	0.80	2.53	0.04
2013년	1.64	1.69	1.38	1.04	3.32	0.59

펀드 결성연도별 벤치마크 활용

- 펀드의 결성규모에 따른 벤처펀드의 성과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 출자/투자자의 자산배분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Case 1. 벤처펀드 출자를 기획과정에서 출자규모에 따른 수익률 목표 수준을 설정하는 경우

- ➔ 결성규모별 벤치마크는 벤처펀드 결성규모별 수익성 지표(IRR, 투자배수)에 대한 제1사분위, 중위값, 제3사분위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여 펀드 출자 예상 규모에 따른 펀드의 수익률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아래 예시로 살펴보면, 1,0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결성된 벤처펀드들의 Pooled IRR은 12.56%로 100~200억 원 미만의 규모로 결성된 벤처펀드들의 Pooled IRR 3.94%보다 높으므로, 1,0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결성된 벤처펀드들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예시 —

펀드 결성 규모	Pooled IRR	제1사분위 IRR	중위값	제3사분위 IRR
1,000억 원 이상	12.56%	20.91%	5.53%	-3.69%
100억 원~200억 원 미만	3.94%	7.73%	0.00%	-6.99%

펀드 결성 규모	전체 투자배수	제1사분위 투자배수	중위값	제3사분위 투자배수
1,000억 원 이상	1.42	1.65	1.19	0.98
100억 원~200억 원 미만	1.16	1.26	1.00	0.89

04

벤치마크 산출 시 주요 가정 및 정의

SI-IRR(Since-Inception Internal Rate of Return)

최초펀드 납입 시부터 측정 기준시점까지의 연간 수익률로써 최초펀드 납입액, 일자별 출자납입액 및 분배액, 미청산 보유자산의 기말 순자산가치 평가액(NAV)을 현금흐름으로 투입하여 계산한다.

Pooled IRR

포트폴리오 내 모든 펀드를 하나의 큰 펀드로 간주하고, 각 시점에 발생한 펀드들의 모든 현금흐름 및 NAV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end-to-end IRR

임의로 지정한 시작과 끝 두 시점 사이의 성과를 측정한다. 시작 시점에서는 최초펀드 납입액 대신 기초 순자산가치 평가액(NAV)을 납입액으로 대용한다.

결성연도

펀드의 법적성립연도이며, 펀드의 첫 번째 Closing, 혹은 첫 번째 Capital Call 시점과 같거나 그 이후이다.

투자배수(= TVPI, Total Value to Paid-In)

출자금 대비 누적 배분금 + 잔여가치 합 비율로 펀드 전체 성과를 측정한다(e.g. 수익배수 1.5 → 1을 투자해 0.5의 투자 초과수익을 거둠).

4분위수

연도별 개별펀드들을 성과 순으로 4그룹으로 나눌 때, 그 기준값을 1~4분위수로 표시한다.

중위값

연도별 개별펀드들을 성과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그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최대/최소값

연도별 개별펀드들을 성과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최대 / 최소값이다.

05

[별첨 1] end-to-end Pooled IRR

end-to-end IRR : 시작 시점에서 종료 시점까지 출자하고 배분한 금액과 잔여자산의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NAV_s = \frac{CF_1}{(1+r)^{t_1}} + \frac{CF_2}{(1+r)^{t_2}} + \dots + \frac{CF_{i-1}}{(1+r)^{t_{i-1}}} + \frac{NAV_F}{(1+r)^{t_i}}$$

의 등식을 만족하는 r (할인율, %)

NAV_s : 시작점의 순자산가치

NAV_F : 끝점의 순자산가치

- NAV(Net Asset Value) = 재무상태표상 순자산 + 투자자산 평가액 - 투자자산 장부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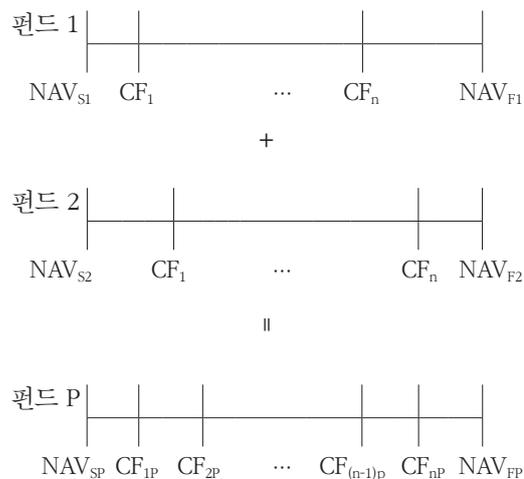
CF_i : i 시점(t_i)에 발생한 (\pm)현금 흐름

- NAV를 증가(자금유입)시키는 현금 흐름(중간배당, 원금분배)은 양의 값(+), NAV를 감소(자금유출)시키는 현금 흐름(출자금)은 음의 값(-)

t_i : CF_i 가 발생한 시점

T : 시작점과 끝점 사이의 기간

<Pooling : 펀드 1 Portfolio + 펀드 2 Portfolio + ... + = → Portfolio pooled>



e.g.) KVIC 벤처펀드의 end-to-end Pooled IRR 계산

(2021년 12월 말 기준 최근 1년 수익률의 경우)

1단계

2020.12.31. 및 2021.12.31. 기준 각 모태 출자펀드 가치평가 금액에서 기 배분액을 차감한 펀드 보유 잔여자산의 가치(NAV)를 합산

- 2020.12.31. 및 2021.12.31. 시점의 모태 출자펀드 순자산 가치 총합(NAV):
 Σ (2020.12.31. 및 2021.12.31. 기준 각 모태 출자펀드 평가액 - 기 배분액)

2단계

2021.01.01. ~ 2021.12.31. 기간에 발생한 모태 출자펀드의 출자(-) 및 배분(+) 현금흐름을 취합하여 분기별 기중현금흐름으로 변환

- 방법 : 2021.01.01.~03.31. 사이 발생한 출자/배분 현금흐름의 발생일자를 02.15.로 변환,
 2021.04.01.~06.30. 사이 발생한 출자/배분 현금흐름의 발생일자를 05.15.로 변환,
 2021.07.07.~09.30. 사이 발생한 출자/배분 현금흐름의 발생일자를 08.15.로 변환,
 2021.10.01.~12.31. 사이 발생한 출자/배분 현금흐름의 발생일자를 11.15.로 변환함. 이 경우
 1년 총 4번의 중간현금흐름이 발생(1~3월 → 02.15. / 4~6월 → 05.15. / 7~9월 → 08.15. /
 10~12월 → 11.15.)

3단계

위 4번의 현금흐름과 시작/종료시점 NAV값을 활용하여 end-to-end Pooled IRR 산출(2020.12.31.에 기초 NAV만큼 투자(-)하고 2021.12.31.에 기말 NAV만큼 회수(+))한다고 가정

- 산식 : $- \text{NAV (at 2020.12.31.)} \pm \text{CF (at 2021.02.15.)} \pm \text{CF (at 2021.05.15.)} \pm \text{CF (at 2021.08.15.)} \pm \text{CF (at 2021.11.15.)} + \text{NAV (at 2021.12.31.)}$ 의 IRR 산출

06

[별첨 2] PME (Public Market Equivalent)

e.g.) KOSPI PME 계산

(2021년 12월 말 기준 최근 1년의 경우)

1단계

2021.12.31. 기준 과거 1년간 KOSPI 지수 증가 변동률 계산

- 산식 : $((\text{KOSPI 지수(at 2021.12.31.)} / \text{KOSPI 지수(at 2020.12.31.)} - 1) \times 100\%)$

2단계

벤처펀드 기간수익률에서 계산한 2021.01.01. ~ 2021.12.31. 기간의 출자(-) 및 배분(+) 현금흐름과 반기별 NAV, KOSPI 지수를 활용하여 시점별 배분금(DPME) 및 수정NAV(mNAV) 산출

$$\text{산식 : } DPME = \left(\frac{D_i}{D_i + NAV_i} \right) \times \left(mNAV_{i-1} \times \frac{KOSPI_i}{KOSPI_{i-1}} + C_i \right)$$

$$mNAV_i = \left(1 - \frac{D_i}{D_i + NAV_i} \right) \times \left(mNAV_{i-1} \times \frac{KOSPI_i}{KOSPI_{i-1}} + C_i \right)$$

DPME : 수정배분금

D_i : i시점에 발생한 배분금

NAV_i : i시점의 순자산가치

$mNAV_i, mNAV_{i-1}$: i, i-1시점의 수정NAV

$KOSPI_i, KOSPI_{i-1}$: i, i-1시점의 KOSPI 지수 증가

C_i : i시점의 출자금

3단계

위 배분금과 출자금 합을 순현금흐름으로 활용하여 end-to-end Pooled IRR 값 산출(2021.01.01.에 기초 NAV만큼 투자(-)하고 2021.12.31.에 기말 mNAV만큼 회수(+한다고 가정)

- 산식 : $- NAV \text{ (at 2020.12.31.)} \pm \text{Net CF (at 2021.02.15.)} \pm \text{Net CF (at 2021.05.15.)} \pm \text{Net CF (at 2021.08.15.)} \pm \text{Net CF (at 2021.11.15.)} + mNAV \text{ (at 2021.12.31.)}$ 의 IRR을 산출

※ KOSDAQ PME 계산 :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나, KOSPI 지수 대신 KOSDAQ 지수로 산출





모태조합 출자펀드가 투자한 유니콘 및 후보 기업 분석

모태조합 출자펀드 투자기업 중 기업가치가
2천억 원을 상회하는 기업들의 특징을 분석해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2021년 12월 기준 벤처투자 모태조합의
포트폴리오 가치평가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01

모태조합 출자펀드가 투자한 유니콘 및 후보 기업 현황

들어가며

유니콘은 뿔이 달린 말로 상상의 동물이다. 이런 상상 속 동물의 명칭이 붙은 유니콘 기업이란 무엇일까? 유니콘 기업은 미국의 벤처캐피탈 '카우보이 벤처스'의 창업자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에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 현재는 기업가치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비상장기업으로 통용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CB Insights가 집계하는 「The Complete List Of Unicorn Companies」(2022년 9월 30일 기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192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으며, 총기업가치는 USD 3,858.68 billion에 달한다. 이 중 한국 기업은 16개이며(토스, 옐로모바일, 컬리, 트릿지, 위메프, 무신사, 직방, 메가존클라우드, 버킷플레이스, 리디, GP클럽, 엘앤피코스메틱, 에이프로젠, 야놀자, 두나무, 아이지에이웍스) 이들의 총기업가치는 USD 33.96 billion을 기록하고 있다.

KVIC MarketWatch는 모태 출자펀드가 투자한 기업 중 유니콘과 유니콘으로 성장하고 있는 후보 기업들의 특징을 반기마다 발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모태 출자펀드 투자기업들의 2021년 12월 말 기준 가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투자기업 중 유니콘 및 기업가치가 2천억 원을 상회한 유니콘 후보 기업들의 기업가치, 투자금액, 업종, 업력, 매출액 분포 등을 분석했다. 기업가치 기준으로 크게 세 개의 구간 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1조 원 이상으로 구분했으며, 반기별 추세 정보도 포함했다.

이하 유니콘은 모태 출자펀드 투자기업 중 1조 원 이상 그룹에 속해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분석 대상 기업

지난 가치평가 기준일(2021년 6월) 대비 2021년 12월 유니콘 및 기업가치 2천억 원 이상인 기업의 개수는 22개 증가해(35개 신규진입, 13개 제외) 총 109개 기업이었다. 이 중 1조 원 이상 기업은 15개,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기업은 19개, 2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 기업은 75개로 모든 구간에서 직전 반기에 비해 증가했다.

그룹별로 보면, 1조 원 이상 그룹에서는 기존 2개 기업이 제외되고 신규 7개 기업이 진입했고,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그룹에서는 기존 5개 기업이 제외되고 신규 14개 기업이 진입했으며, 2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 그룹에서는 기존 23개 기업이 제외되고 신규 31개 기업이 진입했다.

전체 그룹에서 실제로 제외된 기업은 총 13개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주식시장에 상장했거나 다른 기업에 합병되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외 그룹에서 제외된 기업들은 그룹 간 이동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개별기업들의 기업가치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가치

109개 기업의 평균 기업가치 값은 7,540억 원으로, 직전 반기 대상 기업들의 평균 기업가치 대비 약 29.7% 하락한 반면, 중간값은 3,401억 원으로 직전 반기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는 높은 기업가치를 가진 기업들이 상장 및 M&A를 통해 분석 대상기업에서 제외된 반면, 신규로 유니콘 및 유니콘 후보 기업이 된 기업들의 기업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규로 분석 대상 기업이 된 35개 기업 중 31개 기업이 2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 그룹에 속하여 전체 기업의 평균 기업가치의 하락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1조 원 이상 유니콘 그룹의 평균 기업가치는 3조 1,471억 원으로 직전 반기 대비 52.2% 하락하여 세 그룹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 외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그룹의 평균 기업가치는 6,725억 원으로 직전 반기 대비 13.9% 하락했고, 2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 그룹의 평균 기업가치는 2,960억 원으로 직전 반기 대비 1.1% 상승했다.

표 1 — 2021년 12월 말 기준 기업가치 분포

(단위 : 개)

기업가치 분류	기업 개수 (▲ '21년도 반기 대비 증가 개수, ▼ 감소 개수)		
	1조 원 이상	15(▲5)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19(▲9)	기업가치 분류	기업 개수
		9천억 원~1조 원	2(-)
		8천억 원~9천억 원	2(-)
		7천억 원~8천억 원	6(▲2)
		6천억 원~7천억 원	7(▲6)
2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	75(▲8)	5천억 원~6천억 원	2(▲1)
		4천억 원~5천억 원	11(▲1)
		3천억 원~4천억 원	20(▲4)
		2천억 원~3천억 원	44(▲3)
총계	109(▲22)		

- 1조 원 이상 그룹에는 기존 2개 기업이 제외되고, 신규 7개 기업이 진입함
- 5천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 그룹에는 기존 5개 기업이 제외되고, 신규 14개 기업이 진입함
- 2천억 원 이상 5천억 원 미만 그룹에는 기존 23개 기업이 제외되고, 신규 31개 기업이 진입함

그림 1 — 기업가치 평균값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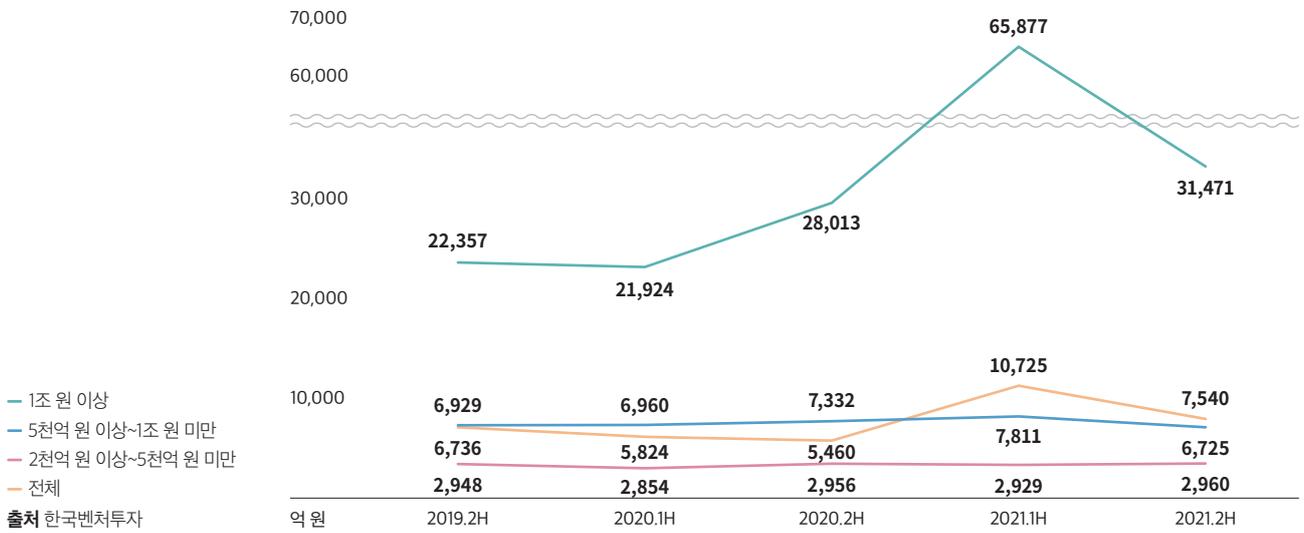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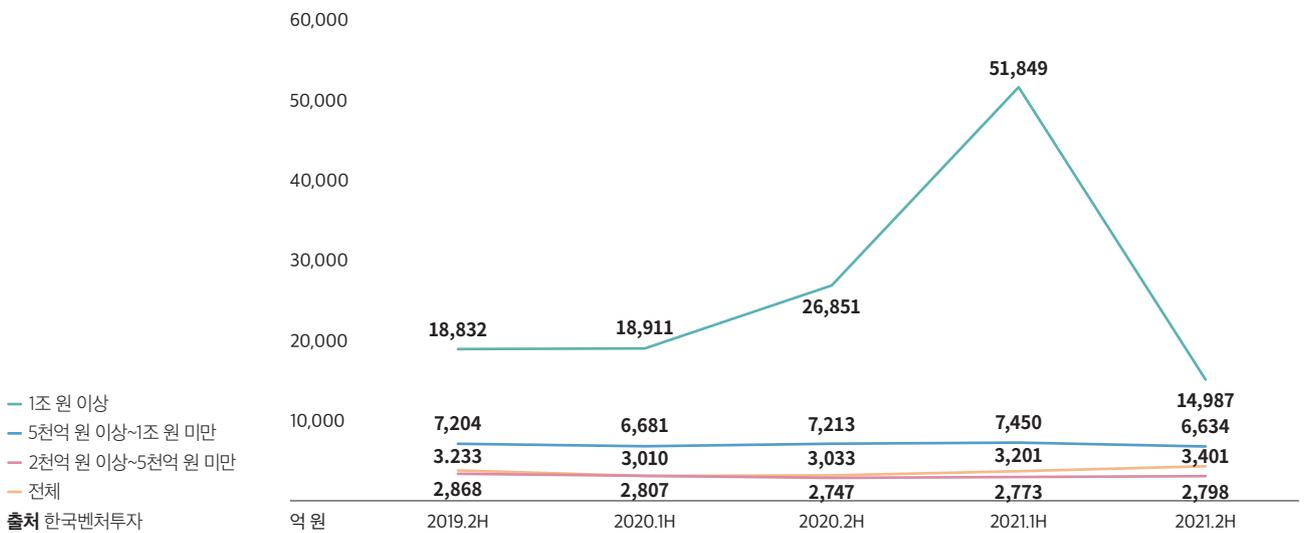


그림 2 — 기업가치 중간값 추이



투자금액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모태펀드 및 기타 모펀드의 출자펀드는 분석 대상인 109개 기업에 2021년 12월 말까지 총 1조 6,411억 원을 투자했으며, 한 개 기업당 평균 151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투자금액과 평균 투자금액은 직전 반기 대비 각각 10.7% 증가, 11.7% 하락한 것이다. 이는 총투자금액이 늘었지만 분석 대상 기업은 더 크게 늘어 평균 투자금액이 감소한 것이다.

그룹별로 보면 1조 원 이상 유니콘 그룹의 평균 투자금은 179억 원으로 직전 반기 대비 2.5% 상승하여 세 그룹 중 유일하게 상승했다.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그룹의 평균 투자금은 169억 원으로 직전 반기 대비 32.7% 하락, 2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 그룹의 평균 투자금은 140억 원으로 직전 반기 대비 11.2% 하락했다.

이번 반기에는 최근 기록 중 처음으로 1조 원 이상 유니콘 그룹의 평균 투자금이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그룹의 평균 투자금보다 높아 평균 투자금이 가장 높은 그룹이 되었다. 그러나 통계학적으로는 그룹별 평균 투자금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 모태펀드 및 기타 모펀드 출자펀드 투자금 평균값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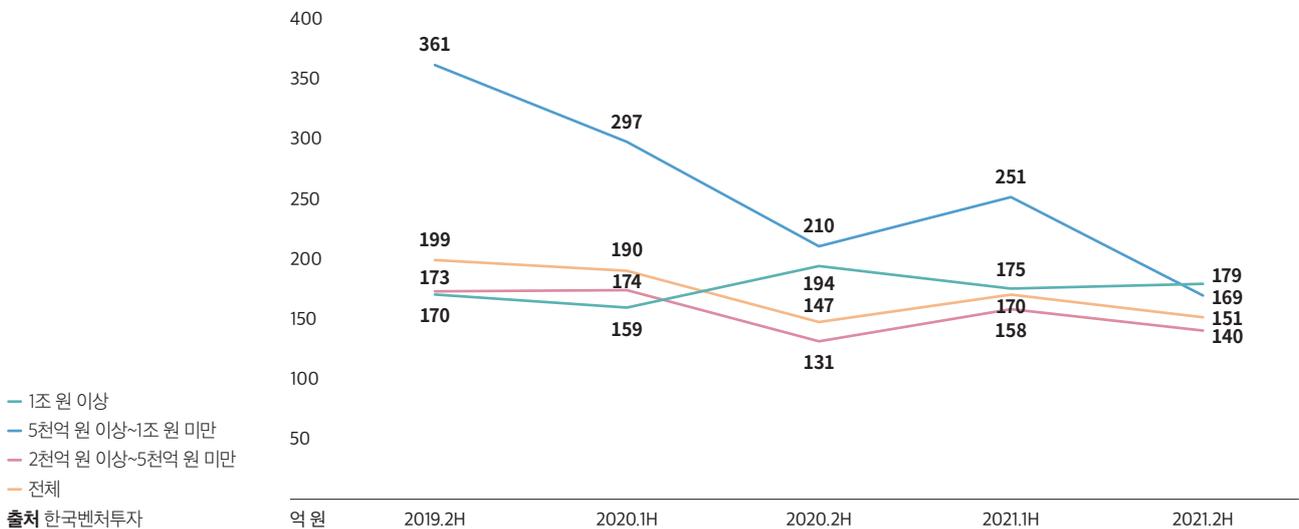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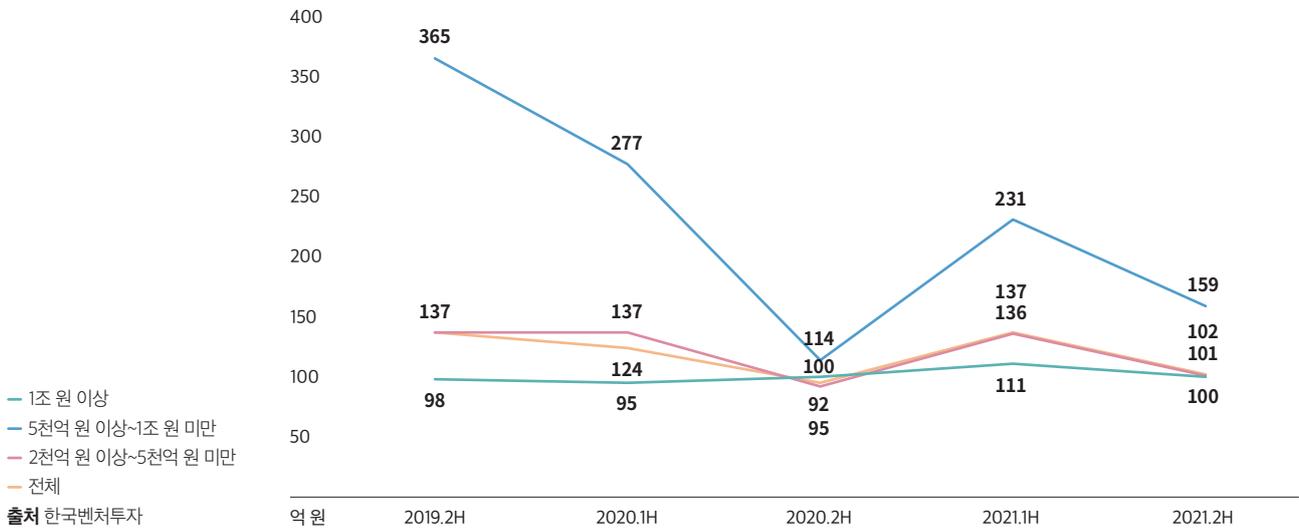


그림 4 - 모태펀드 및 기타 모펀드 출자펀드 투자금 중간값 추이



업종

한국벤처투자의 업종분류 기준(상세 내용은 한국벤처투자 업종분류 기준 소개 페이지 참고)에 따라 투자기업을 산업 및 산업 내 세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유니콘 및 후보 기업이 가장 많이 탄생한 산업은 ICT서비스, 바이오/의료, 유통 서비스였다. 전체 109개 기업 중 ICT서비스 45개(41.3%), 바이오/의료 28개(25.7%), 유통/서비스 17개(15.6%)로 3개의 산업이 82.6%를 차지했다. 이 세 개의 업종은 직전 반기에도 79.3% 수준의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19년도에도 80% 이상 비중을 차지한 바 있다.

신규 진입 기업 35개 중 11개가 ICT서비스 산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이오/의료 산업 7개, 유통/서비스 산업 6개가 신규로 진입하게 되었다. 신규 진입 기업에서도 이 세 개의 업종이 68.6%(24개)의 비중을 차지하며 강세를 보였다. 이어서 전기/기계/장비 5개, ICT제조 2개, 게임 2개, 화학/소재 1개, 영상/공연/음반 1개 등이 증가했다.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전기/기계/장비 산업이 이전까지는 분석 대상 기업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신규로 5개 기업이 진입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2 — 한국벤처투자 산업 분류상 기업 분포

(단위 : 개)

산업 분류	기업 개수 (▲ 직전 반기 대비 증가한 개수, ▼ 감소한 개수임)		
		세부 분야 분류	기업 개수
ICT서비스	45(▲11)	소프트웨어	29(▲6)
		정보서비스	16(▲5)
바이오/의료	28(▲1)	의료용물질/의약품	18(▼4)
		의료기기	10(▲5)
유통/서비스	17(▲9)	도소매업	9(▲4)
		전문서비스	6(▲3)
		교육	1(▲1)
게임	5(▼2)	운수	1(▲1)
		게임소프트웨어	5(▼2)
		전기장비	3(▲3)
전기/기계/장비	5(▲5)	일반기계	1(▲1)
		정밀기기	1(▲1)
		화학물질/제품	2(▼2)
화학/소재	3(▼1)	금속	1(▲1)
		반도체/전자부품	2(▲1)
ICT제조	2(-)	컴퓨터/주변장치	-(▼1)
		출판/방송	1(▲1)
영상/공연/음반	1(▲1)	부동산/임대	1(▼1)
기타	3(▼2)	금융	1(▼1)
		섬유/의복/가죽	1(-)
총계		109(▲22)	

출처 한국벤처투자

표 3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업 분포

(단위 : 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업 수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업 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9(▲2)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1(-)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13(▼2)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5)	경영 컨설팅업	1(▲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9(▲3)	과실류 도매업	1(▲1)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9(▲5)	광고 대행업	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4(▲2)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1(▲1)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3(▼1)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4)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1(▲1)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2(▼1)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1(▲1)
화장품 제조업	2(▼1)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1(▲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2(▲1)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1(▲1)
축전기 제조업	2(▲2)	기타 통신 판매업	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2)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1(▲1)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1(-)	뉴스 제공업	1(▲1)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1(▲1)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1(-)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1(▲1)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1(-)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1(▲1)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1(▲1)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1(-)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1(▲1)
자동차 임대업	1(-)		

업력

분석 대상 109개 기업들의 2021년 12월 말 현재 업력 평균은 8.4년으로 직전 반기에 분석한 87개 기업 업력의 평균값 대비 1.0년 감소했다. 기업가치별로 1조 원 이상 기업의 업력 평균 9.6년,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기업은 8.3년, 2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 기업은 8.1년이었다. 1조 원 이상 그룹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평균 업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력 최솟값은 1.0년, 최댓값은 27.1년으로 직전 반기에 비해 편차는 4년 가까이 더 커져 편차가 25년을 돌파했다.

표 4 — 2021년 12월 말 업력 현황

(단위 : 년)

기업가치 분류	업력 평균	업력 최댓값	업력 최솟값
	(▲ 직전 반기 분석값 대비 증가한 업력, ▼ 감소한 업력)		
1조 원 이상	9.6(▼1.4)	18.8(▲0.5)	1.0(▼6.3)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8.3(▼1.0)	21.7(-)	2.8(▼0.2)
2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	8.1(▼1.1)	27.1(▲5.9)	1.0(▲0.3)
전체	8.4(▼1.0)	27.1(▲5.4)	1.0(▲0.3)

출처 한국벤처투자

매출액

2021년 말 기준으로 각 사 회계정책에 따라 집계한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 109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1,338.7억 원이었다.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유니콘 그룹의 매출액 평균값은 6,046.4억 원 및 중간값 2,431.1억 원,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그룹의 매출액 평균값은 1,325.7억 원 및 중간값 397.8억 원, 2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 그룹의 매출액 평균값은 400.4억 원 및 중간값 133.0억 원을 기록했다.

2021년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기업은 총 32개로, 지난 상반기 대비 9개가 증가했다.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그룹에서 12개,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그룹에서 8개, 2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 그룹이 12개의 회사가 1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다.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그룹에서는 1조 원 이상 매출을 달성한 기업도 3개 존재했다.

표 5 — 2021년 말 결산 매출액 평균

(단위 : 억 원)

기업가치 분류	매출액 평균	매출액 중간값
1조 원 이상	6,046.4	2,431.1
5천억 원 이상~1조 원 미만	1,325.7	397.8
2천억 원 이상~5천억 원 미만	400.4	133.0
전체	1,338.7	242.1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

표 6 — 2021년 말 결산 매출액 평균

(단위 : 개)

매출액 분류	기업 수 (▲ 직전 반기 대비 증가한 개수, ▼ 감소한 개수)
1천억 원 이상	32(▲9)
5백억 원 이상~1천억 원 미만	14(-)
1백억 원 이상~5백억 원 미만	20(▲3)
1백억 원 미만	43(▲10)
전체	109(▲22)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

소고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 모태조합의 투자기업 중 기업가치가 2천억 원을 상회하는 유니콘 후보 기업들을 대표하는 특징을 하나의 기업으로 표현하자면, 업력 8.4년의 기업으로, 2021년에 1,338.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한국벤처투자 출자펀드로부터 151억 원을 투자받아 7,540억 원의 기업가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반기에는 직전 반기 분석 대상 기업들 중 13개 기업이 이탈했는데, 대부분 상장 및 인수로 인한 것이었다. 또한, 직전 반기 분석 대상 기업들의 기업가치 성장에 따라 그룹 간 이동이 있었고, 35개 기업이 신규로 진입하며 벤처투자시장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전기/기계/장비 산업의 5개 기업이 신규 진입했는데, 이를 통해 제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눈여겨볼 수 있었다. 다만, 평균 기업가치는 직전 반기에 비해 감소했는데, 이는 역대 기록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므로 거시적 관점에서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21년 12월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우리나라의 2021년 벤처투자시장은 '제2벤처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활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기마다 업데이트될 상기 유니콘 기업 및 유니콘 후보 기업에 대한 분석이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 정책 설계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02

한국벤처투자 업종 분류 기준 소개

당사는 모태 출자펀드가 투자하는 기업을 9개 산업과 36개의 세부 분야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다.

산업(9개)

바이오/의료, ICT서비스, 유통/서비스, 전기/기계/장비, ICT제조, 게임, 화학/소재, 영상/공연/음반, 기타

산업 내 세부 분야(36개)

의료용물질/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시설/서비스,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 통신, 도소매업, 전문서비스, 운수, 교육, 숙박/음식업, 일반기계, 운송장비/부품, 정밀기기, 전기장비, 반도체/전자부품, 통신방송장비, 컴퓨터/주변장치, 영상음향기기, 게임소프트웨어, 스포츠/여가, 화학물질/제품, 금속, 비금속, 고무/플라스틱, 영상, 출판/방송, 공연/전시/음악, 음식료, 건설, 금융, 에너지/자원, 기타, 목재/종이/인쇄/가구, 부동산/임대, 섬유/의복/가죽

표 7 — 한국벤처투자 산업 및 산업 내 세부 분야 분류

산업	바이오/의료	ICT서비스	유통/서비스
분야	의료기기 의료용물질/의약품 의료시설/서비스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 통신	도소매업 전문서비스 운수, 교육 숙박/음식업
산업	전기/기계/장비	ICT제조	게임
분야	일반기계 운송장비/부품 정밀기기 전기장비	반도체/전자부품 통신방송장비 컴퓨터/주변장치 영상음향기기	게임소프트웨어 스포츠/여가
산업	화학/소재		영상/공연/음반
분야	화학물질/제품 금속, 비금속 고무/플라스틱		영상 출판/방송 공연/전시/음악
산업	기타		
분야	음식료 건설 금융 에너지/자원	목재/종이/인쇄/가구 부동산/임대 섬유/의복/가죽 기타	





해외 VC 시장 동향

해외 VC 시장 관련 해외 발간 보고서 내용을
분기별로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PitchBook, CB Insights에서 발간한 2022년 3분기 보고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고서의 그래프에서 3Q는 3분기까지 누적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01

미국 벤처캐피탈 시장 동향

(Venture Monitor, 2022년 3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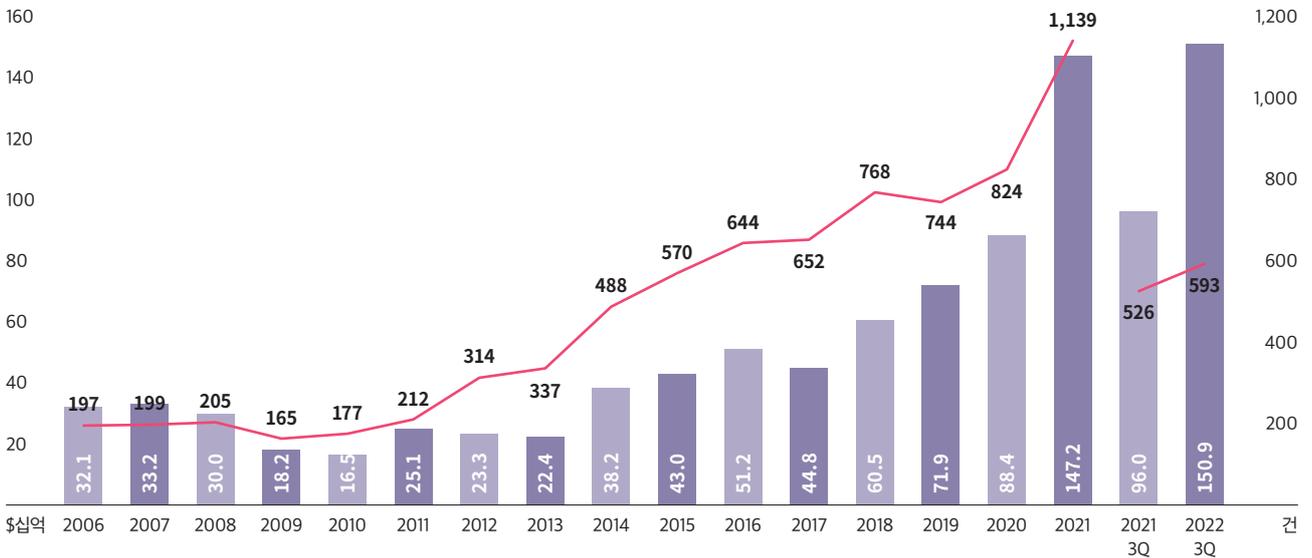
결성(Fundraising)

* Venture Monitor는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이하 NVCA)과 PitchBook이 미국 벤처캐피탈 시장을 조사·분석하여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2022년 3분기까지 9개월 동안 593개의 펀드에서 총 1,509억 달러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어 2021년 전체의 결성총액인 1,472억 달러를 초과하며 연간 최고 결성금액을 기록했다. 이는 상장시장의 혼란과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의 제약 등이 펀드 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침체 이전에 이미 논의되고 있던 펀드들의 결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특히 이번 3분기에는 Bessemer Venture Partners, Battery Ventures, Lightspeed Venture Partners, Oak HC/FT 등 대형 VC들이 10억 달러 이상의 펀드를 성공적으로 결성했다.

다만 3분기만 보면 294억 달러의 자금이 조달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올해 분기별 실적 중 가장 작은 값이다. 이를 통해 펀드 결성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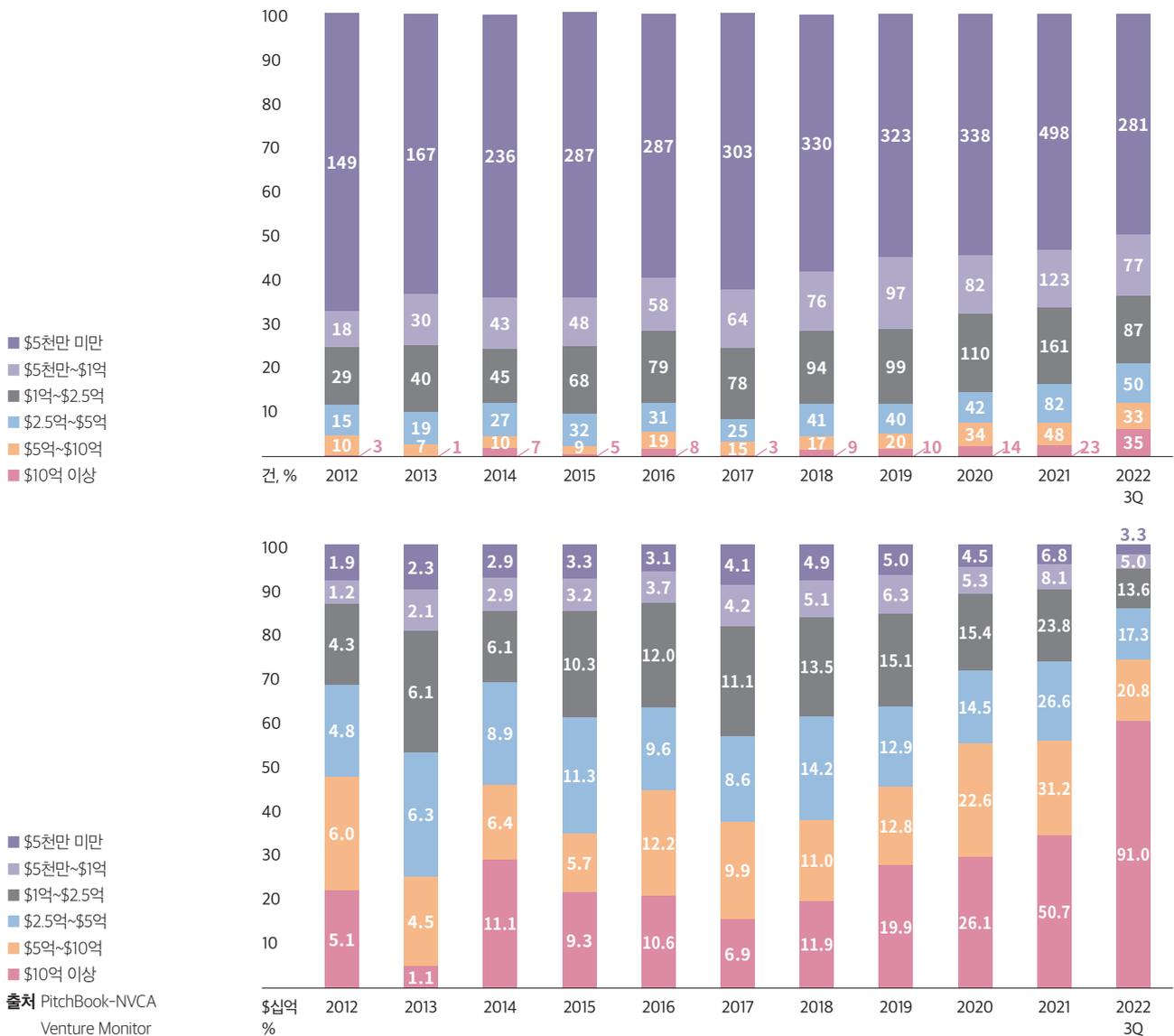
그림 1 — 미국 VC 결성 현황



■ 결성규모 — 결성 건수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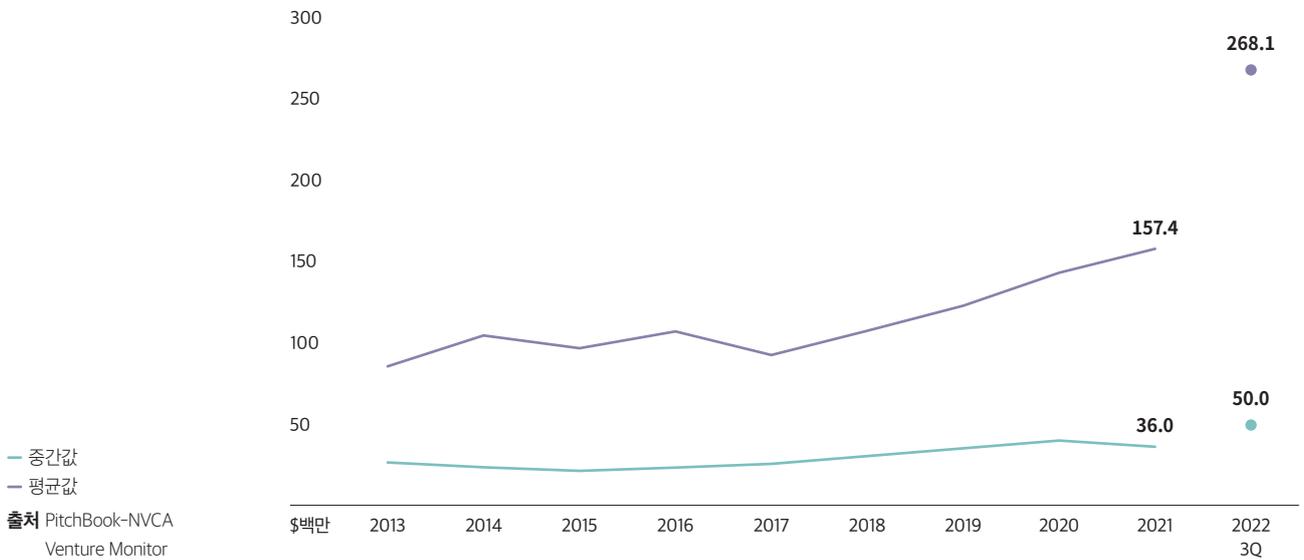
한편, 2022년 3분기까지 결성된 펀드의 결성규모 구간별 비중을 보면, 5,000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펀드의 비중이 건수와 금액 모두 최근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2017년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대형 펀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는데, 2022년에는 10억 달러 이상 펀드의 비중(금액 기준)이 60.3%를 기록하며 역대 기록 중 최초로 전체 펀드 결성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림 2 – 미국 VC 펀드 결성규모 구간별 비중 : 건수(상) 금액 합계 기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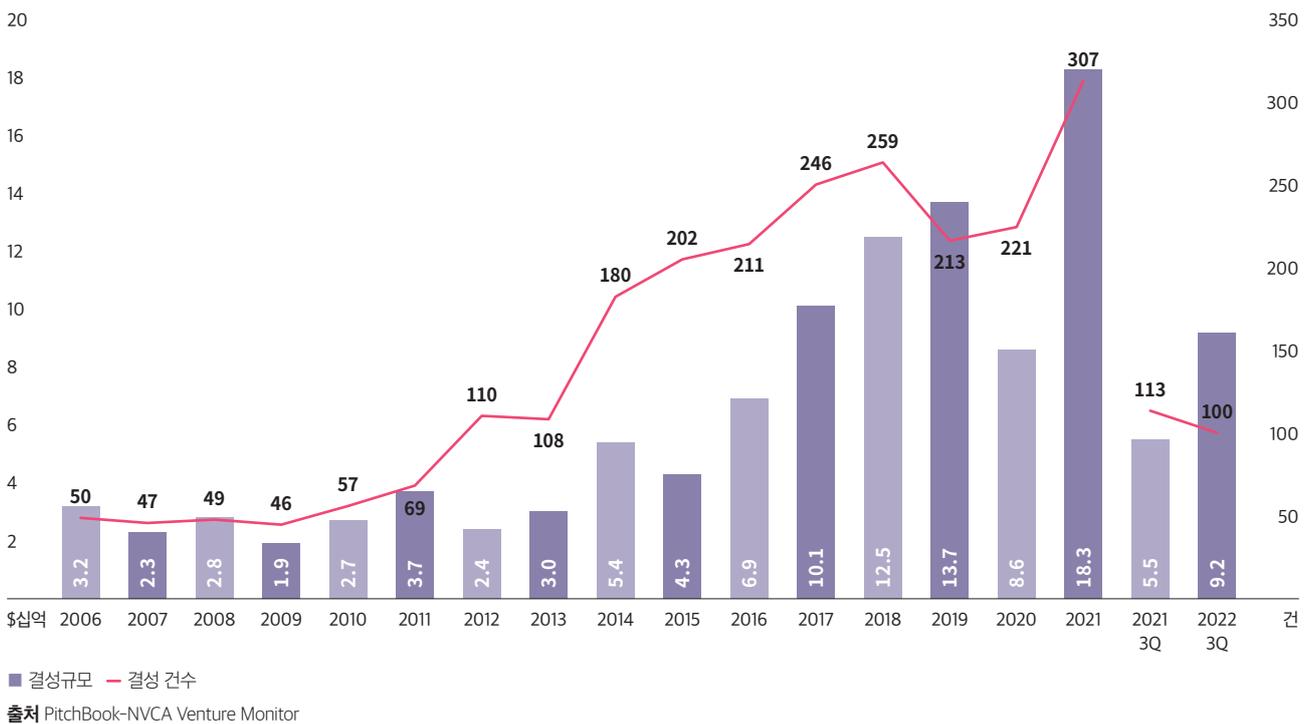
VC 펀드의 대형화는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22년 3분기까지의 펀드 결성 규모의 중간값과 평균값은 각각 5,000만 달러 및 2억 6,81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도의 3,600만 달러 및 1억 5,740만 달러에 비해 각각 38.9%, 70.3% 증가했다.

그림 3 — 미국 VC 펀드 결성 규모 중간값과 평균값



이러한 펀드의 대형화 추세는 최초 펀드결성(first-time fundraising)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올 3분기까지의 최초 펀드결성은 92억 달러(100건)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55억 달러(113건)에 비해 +68.1%(-11.5%) 변화한 수치이다. 건수는 감소한 것에 반해 금액은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이는 최초 펀드결성에 있어서도 대형 펀드가 다수 결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4 — 미국 VC 최초 펀드결성(First-time fundraising)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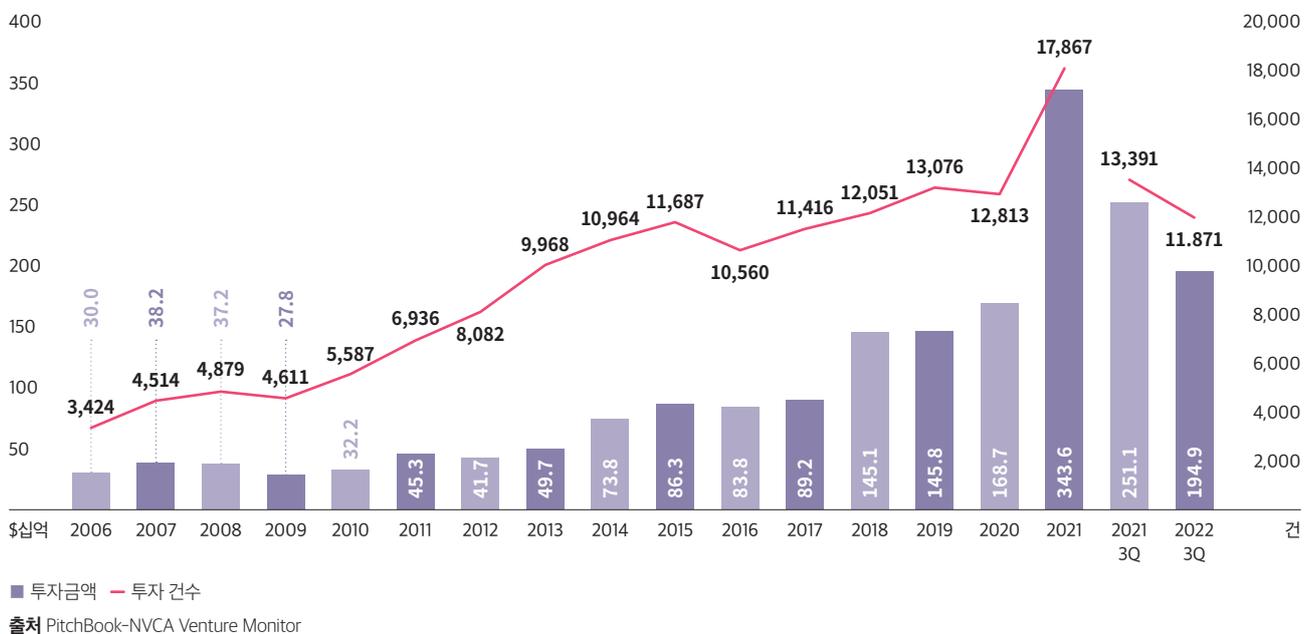


투자(Deal)

2022년 3분기까지 미국에서는 1,949억 달러(11,871건)의 투자 활동이 있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 2,511억 달러(13,391건)의 투자에 비해 22.4%(11.4%) 감소한 수치이다. 전년도에 비하면 투자활동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9개월의 실적만으로도 2021년을 제외한 다른 어떤 해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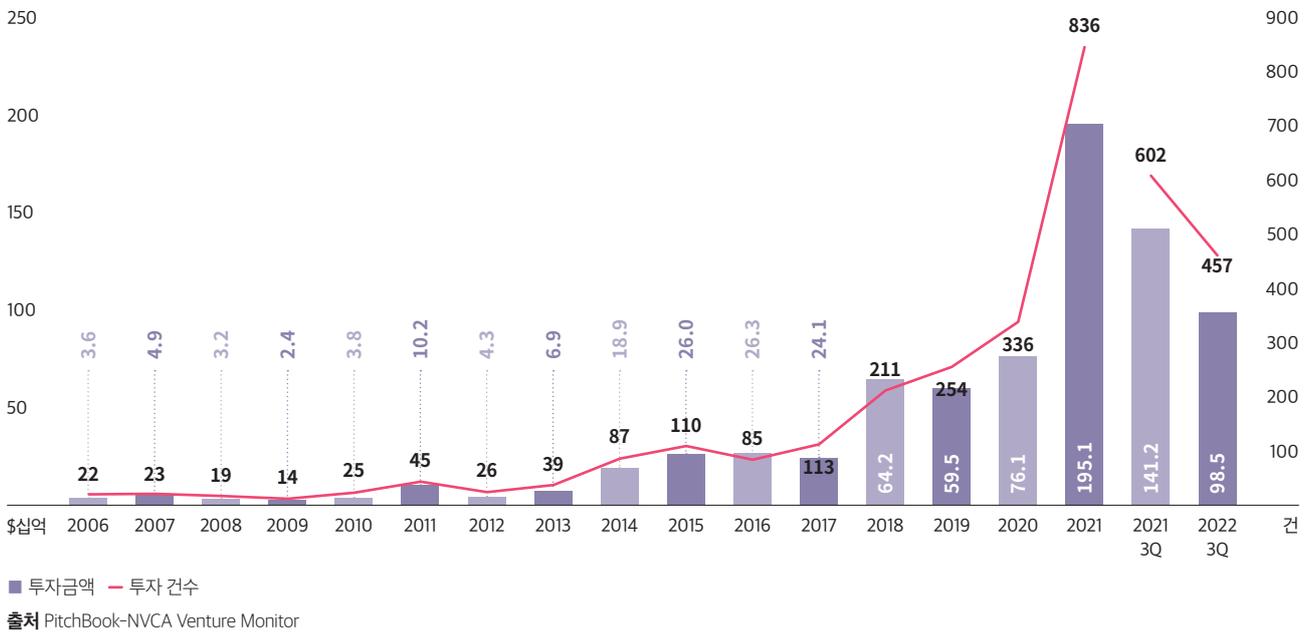
다만, 분기별로 보면 3분기 연속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감소하고 있고, 3분기에 투자된 430억 달러는 최근 2년의 분기별 실적 중 최저치에 해당하는 기록인데 이를 통해 투자활동의 둔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 미국 VC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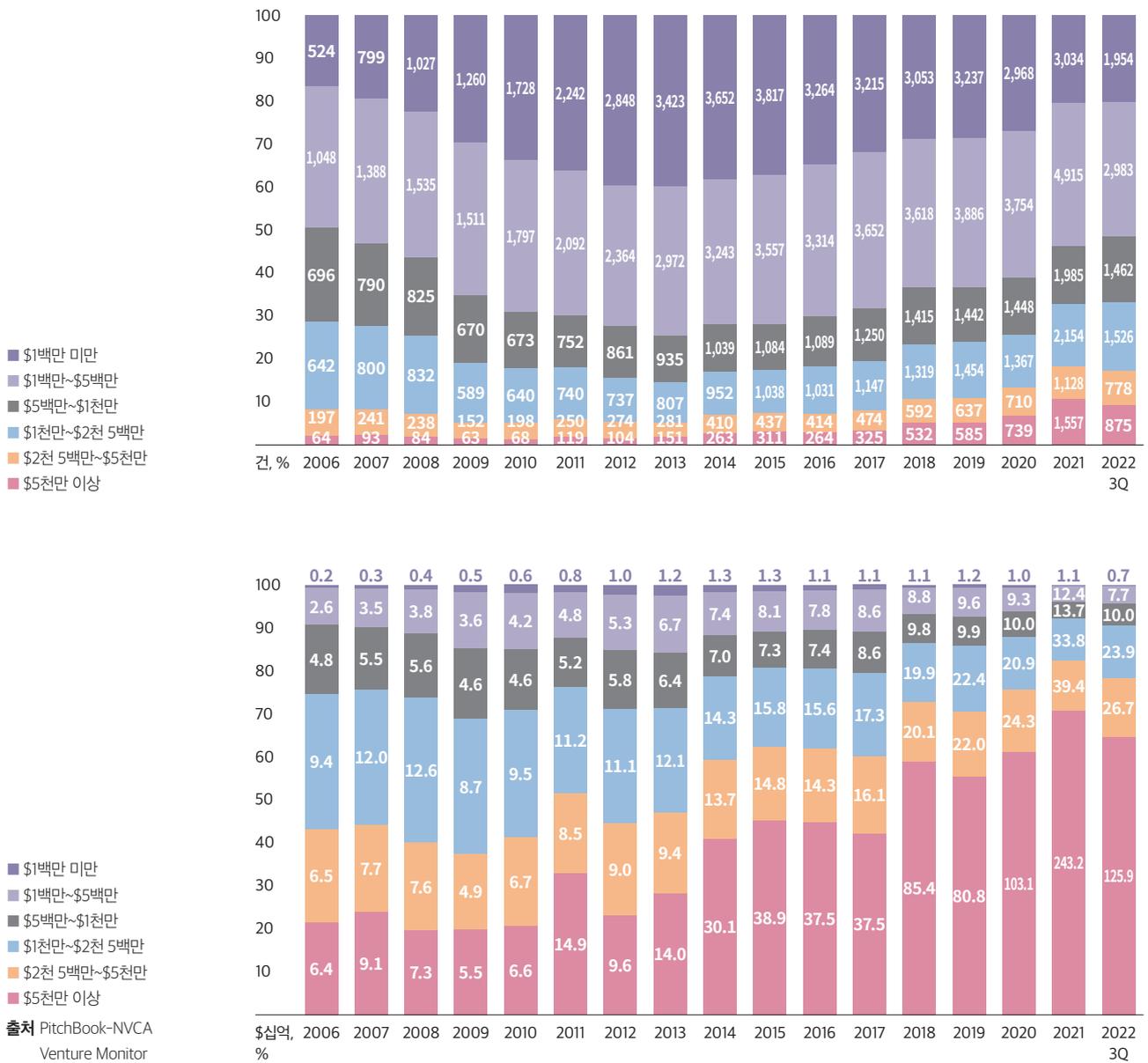
2022년 3분기까지의 메가-라운드(457건)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1,412억 달러(602건)에 비해 30.2%(24.1%) 감소했다. 그러나 9개월 동안의 실적만으로도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메가-라운드의 장기적인 성장 추세를 시사하고 있다.

그림 6 — 미국 VC 메가-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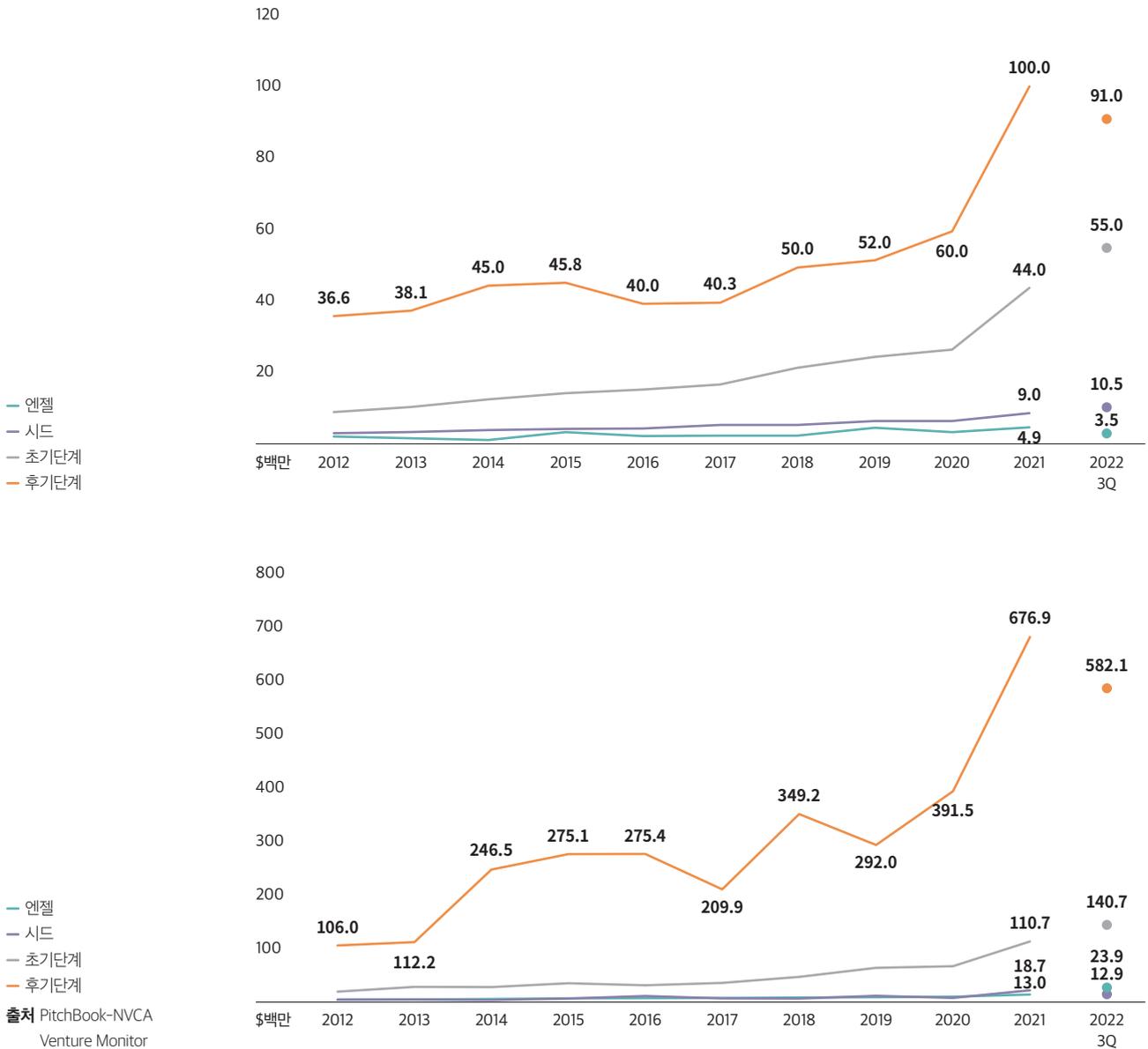
2022년 3분기까지 미국의 VC 투자 규모 구간별 비중을 살펴보면 5,000만 달러 이상 대형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 기준 9.1%, 금액 합계 기준 64.6%이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형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7 - 미국 VC 투자 규모 구간별 비중 : 건수(상) 금액 합계 기준(하)



2022년 3분기까지 VC 단계별 기업가치의 중간값 및 평균값 데이터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후기 단계 기업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이다. 상반기에는 미미한 수준으로라도 전년도보다 증가한 수치를 보였지만, 3분기 데이터가 추가된 후에는 분명한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는 3분기부터 후기 단계에서 개별기업의 밸류에이션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8 — 미국 VC 단계별 기업가치 중간값(상)/평균값(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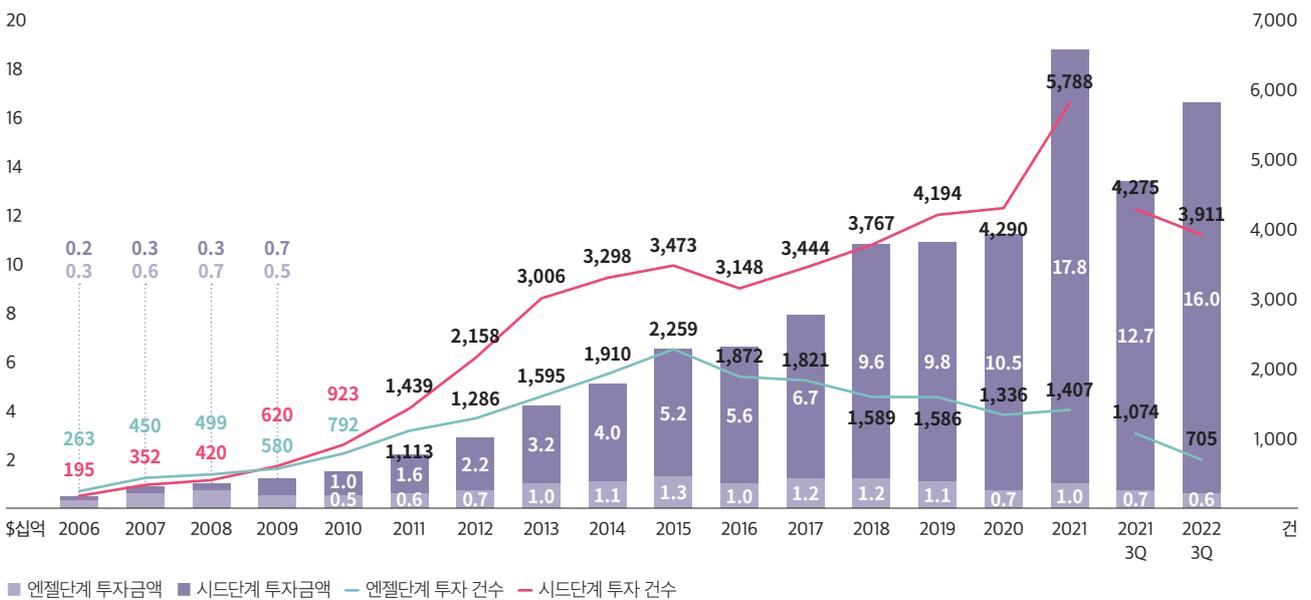


엔젤/시드 투자(Angel/Seed) 및 최초 투자유치(First-time financing)

2022년 3분기까지 엔젤 단계에서는 6억 달러(705건), 시드 단계에서는 160억 달러(3,911건)가 투자되었다. 엔젤 단계의 경우 전년 동기 7억 달러(1,074건)의 투자에 비해 9.7%(34.4%) 감소한 반면, 시드 단계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127억 달러(4,275건)의 투자에 비해 +25.7%(-8.5%) 변화했다.

시드 투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2021년의 추세를 이어갔던 상반기에 비해서 3분기에는 투자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치를 기록했던 1분기에 비해 3분기에는 금액 기준으로 28.8%, 건수 기준으로 40.6% 감소하여 투자 활동이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779개가 결성되어 사상 최대 규모인 소액펀드(5,000만 달러 미만)의 존재로 인해 시드 단계의 투자는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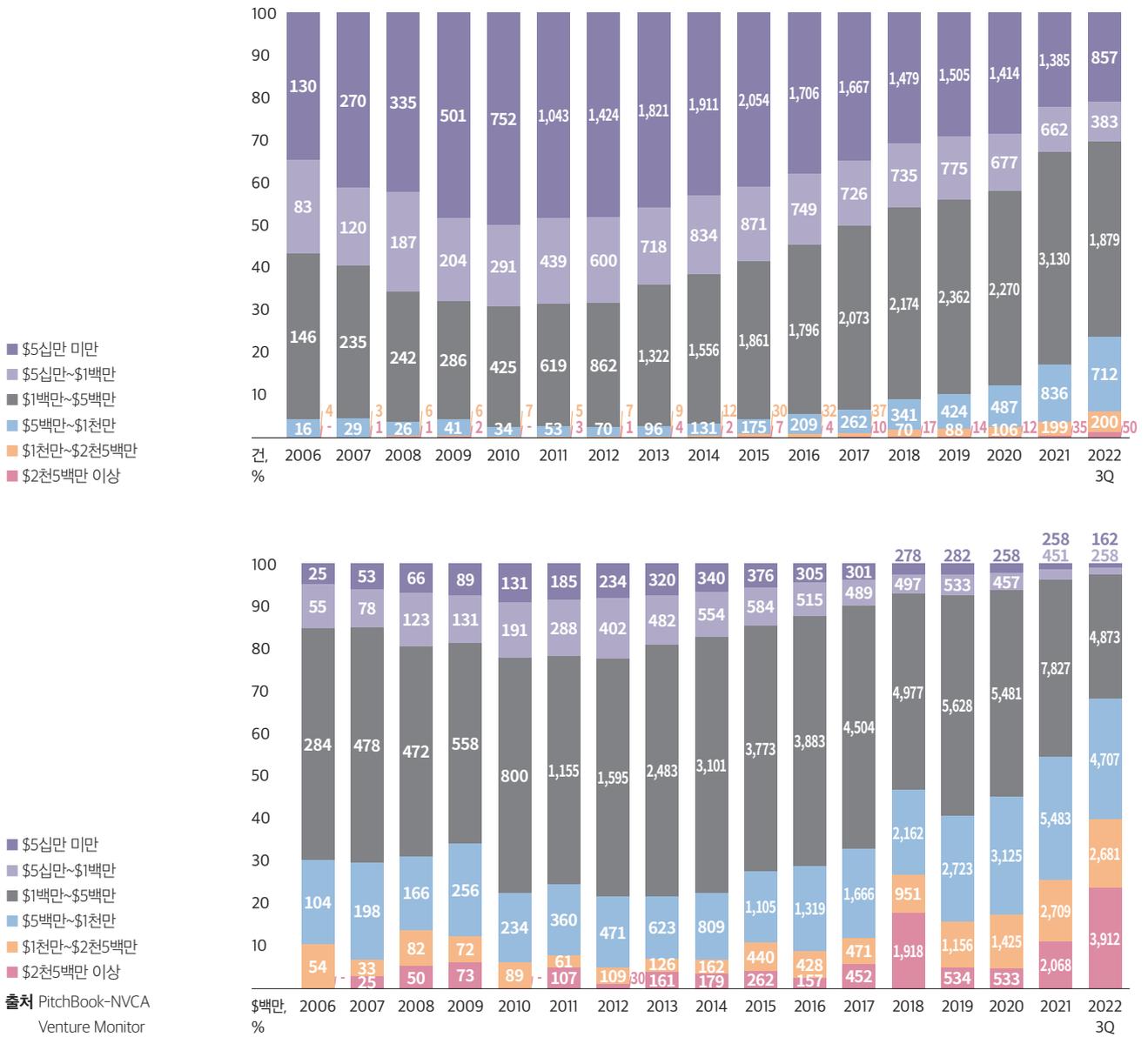
그림 9 — 미국 엔젤/시드 단계 투자 현황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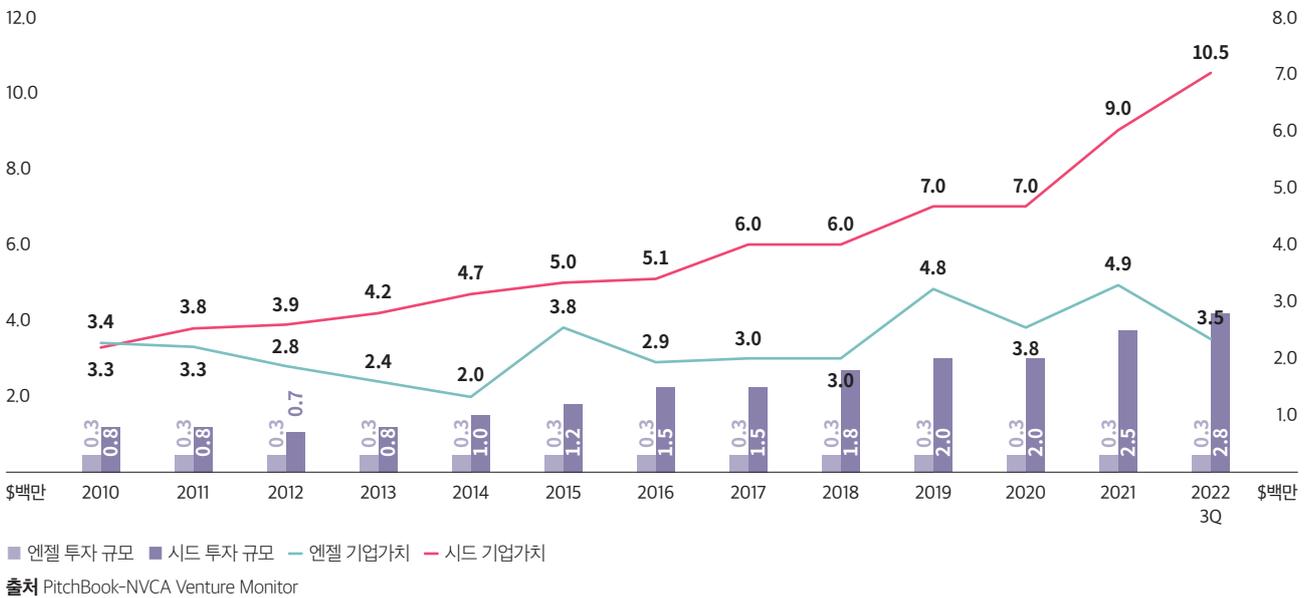
엔젤/시드 단계에서 투자 규모 구간별 비중을 살펴보면, 대형 투자라고 볼 수 있는 2,500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 기준으로 1.2%, 금액 합계 기준으로 23.6%를 기록하며 역대 기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상반기와 비교하더라도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3분기에도 투자 규모의 대형화 추세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10 — 미국 엔젤/시드 단계 VC 투자 규모 구간별 비중 : 건수(상) 금액 합계 기준(하)



시드 단계의 투자 활동이 다소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 투자의 기업가치 및 투자 규모의 중간값은 2021년을 상회하고 있다. 올해 전체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시드 단계의 기업가치 중간값은 1,050만 달러, 투자 규모 중간값은 28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도 대비 각각 16.7%, 12.0% 증가했다. 분기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3분기의 기업가치 중간값 및 투자 규모 중간값은 각각 1,010만 달러, 350만 달러로 매우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즉, 시드 단계 투자에서는 3분기에도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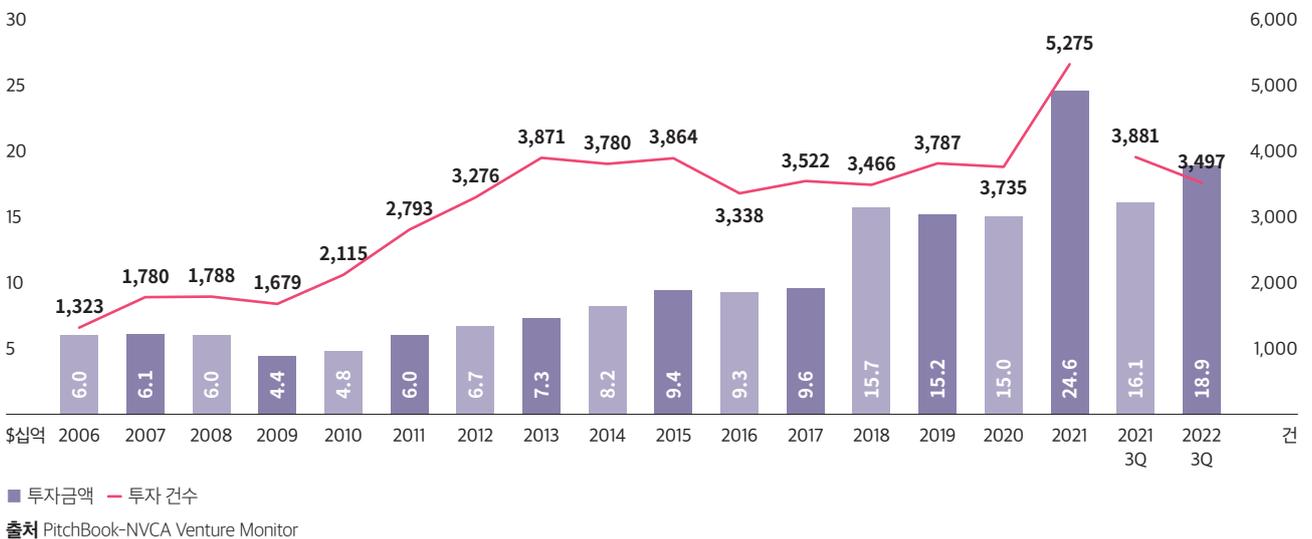
그림 11 — 미국 엔젤/시드 투자의 기업가치(좌) 및 투자 규모(우) 중간값



2022년 3분기까지 3,497개의 스타트업이 189억 달러의 최초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전년 동기의 3,881개사가 161억 달러 투자유치 대비 각각 9.9% 감소, 17.2% 증가한 수치이다. 최초 투자유치 스타트업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투자금액이 늘어났는데, 이는 평균 투자금액이 증가하였음을 나타낸다.

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3분기에는 870개의 스타트업이 45억 달러를 유치했는데, 이는 직전 분기 대비 각각 25.1%, 24.3% 하락한 수치이다. 1분기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분기 연속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벤처투자시장이 얼어붙으며 투자자들이 새로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이전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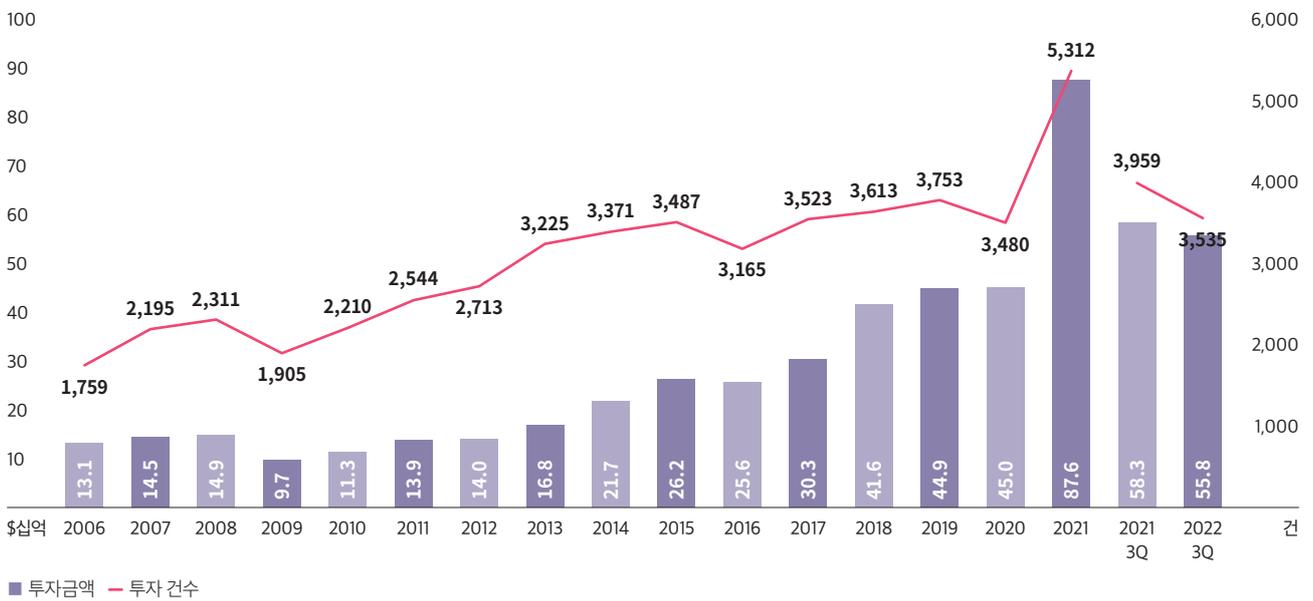
그림 12 — 미국 VC 최초 투자유치(First-time financing) 현황



초기 VC 투자(Early-Stage VC)

2022년 3분기까지 초기 단계에서는 558억 달러(3,535건)의 VC 투자가 있었다. 이는 전년 동기 583억 달러(3,959건)에 비해 4.4%(10.7%) 하락한 수치이다. 3분기만 살펴보면 135억 달러(922건)의 투자가 있었는데, 이는 직전 분기 대비 26.6%(22.1%) 감소한 것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올해 초기 단계 투자는 3분기까지의 실적만으로도 이미 2020년의 450억 달러(3,480건)의 투자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 투자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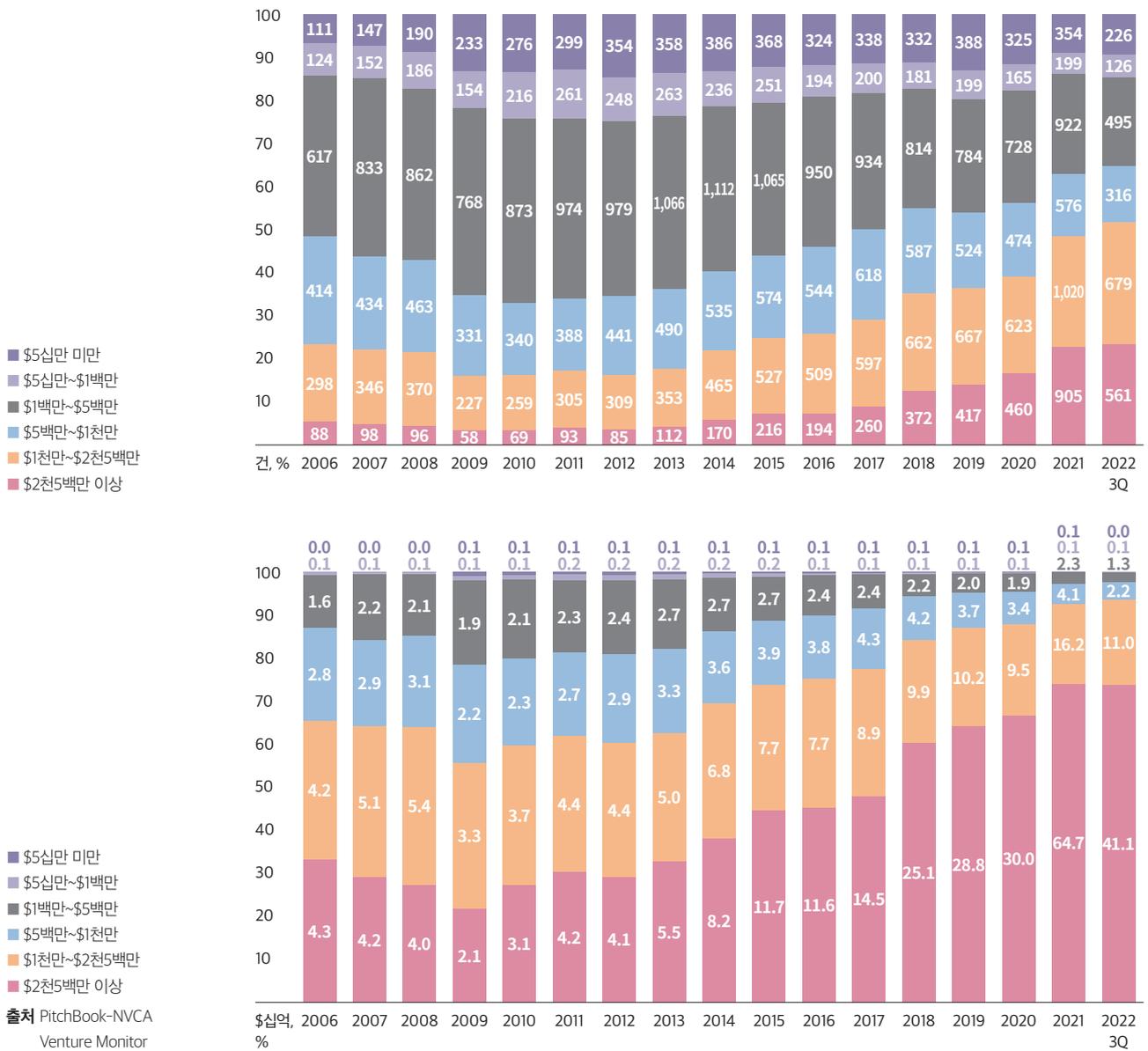
그림 13 — 미국 초기 VC 투자 현황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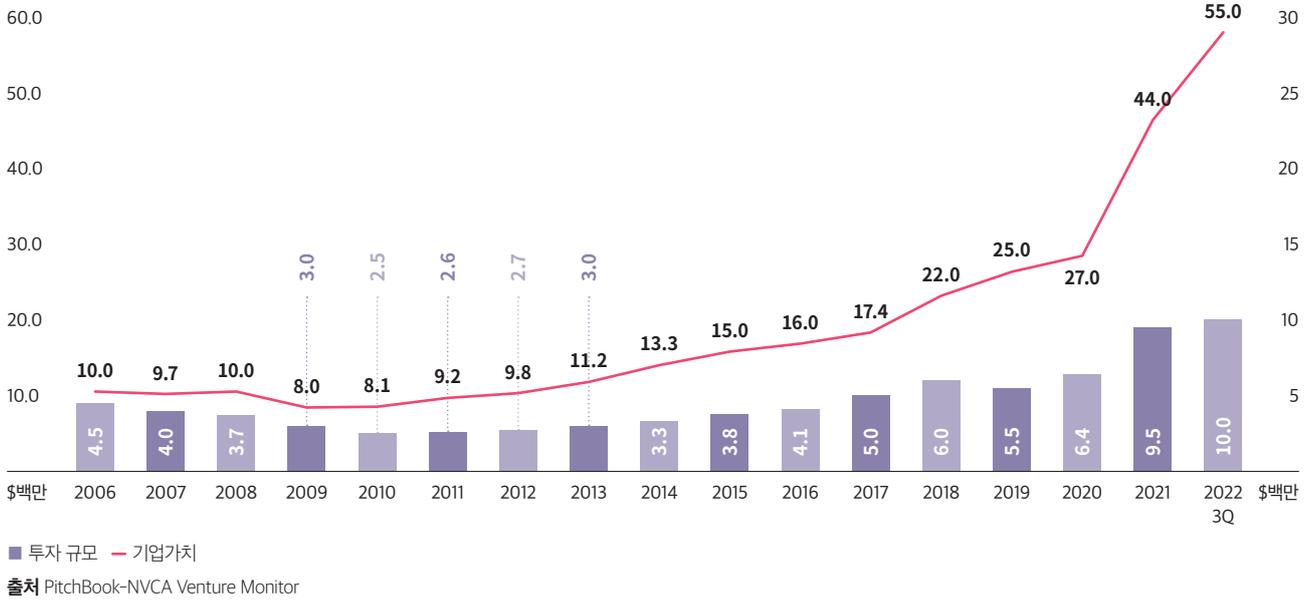
초기 VC 투자에서 2,500만 달러 이상의 대형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건수 기준으로 23.3%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액 기준으로도 73.7%의 비중을 차지하며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 14 — 미국 초기 VC 투자 규모 구간별 비중 : 건수(상) 금액 합계 기준(하)



초기 단계의 VC 투자의 기업가치 및 투자 규모의 중간값을 살펴보면 각각 5,500만 달러 및 1,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도 대비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분기 기준으로 보면, 3분기 기업가치의 중간값은 4,600만 달러로 직전 분기의 중간값인 5,500만 달러보다 16.4% 감소한 것이다. 투자 규모 중간값 또한 직전 분기의 1,100만 달러에 비해 19.7% 감소한 89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하락세는 거시경제 변수의 영향이 초기 시장에도 전달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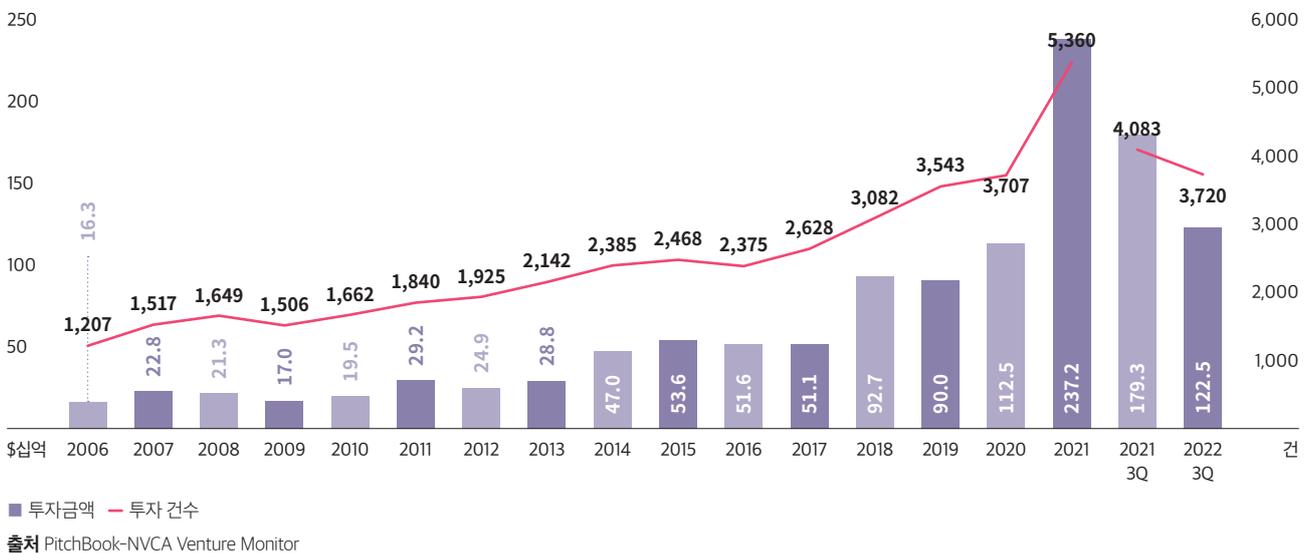
그림 15 — 미국 초기 VC 투자의 기업가치(좌) 및 투자 규모(우) 중간값



후기 VC 투자(Late-Stage V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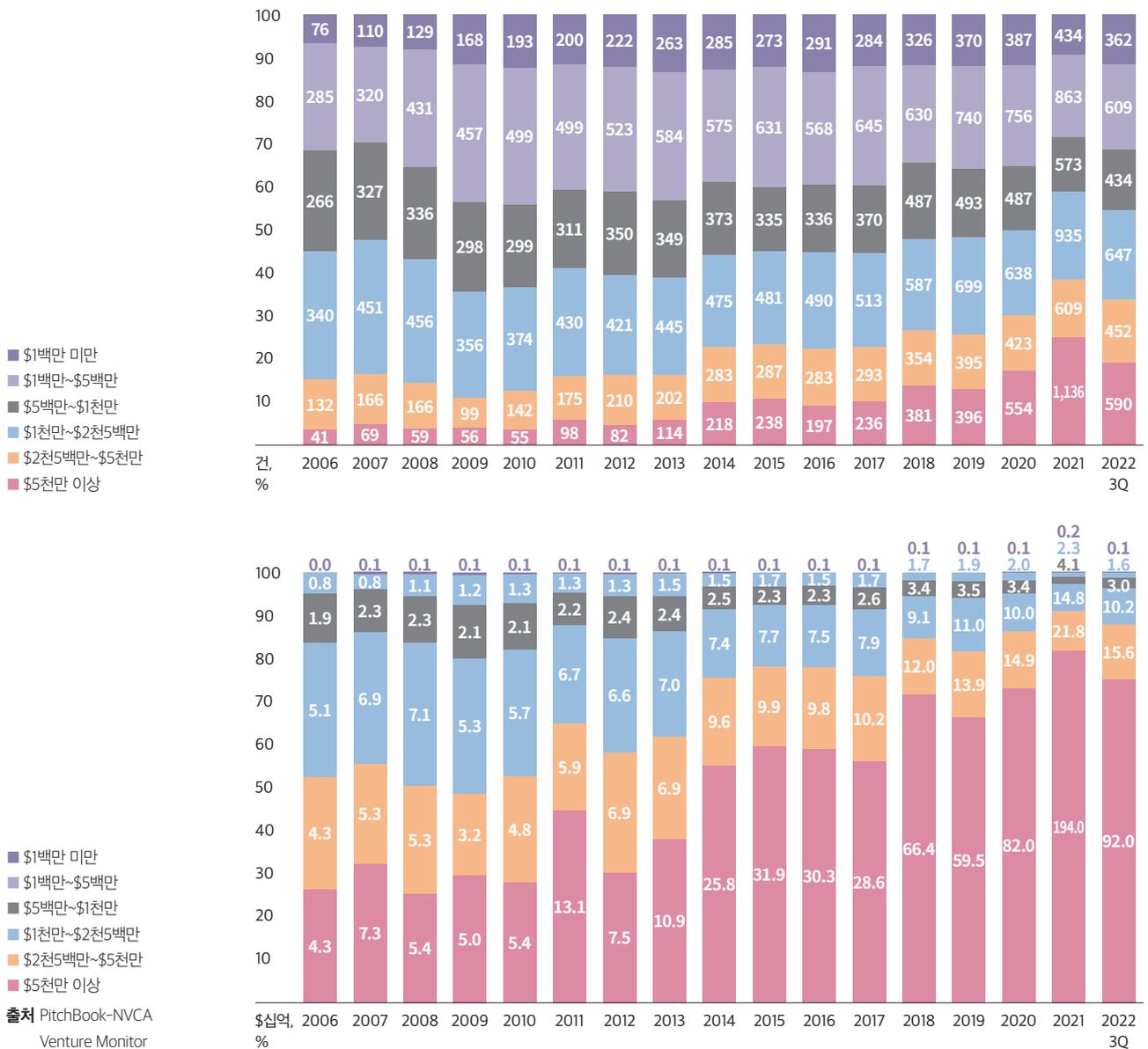
2022년 3분기까지 후기 단계에서는 1,225억 달러(3,720건)의 VC 투자가 있었다. 이는 전년 동기 1,793억 달러(4,083건)에 비해 31.7%(8.9%) 하락한 수치이다. 3분기만 살펴보면 135억 달러(922건)가 투자되었는데, 이는 직전 분기 대비 26.6%(22.1%) 하락한 것으로, 3분기 연속 하락 및 2020년 4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림 16 — 미국 VC 후기 투자 현황



후기 단계의 VC 투자에서 5,000만 달러 이상의 대형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 기준 19.1%, 금액기준 75.1%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각각 5.9%p, 6.7%p 감소했다. 이는 3분기 메가-라운드 건수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분기 메가-라운드는 직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하여 67건을 통해 총 119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상장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계속된다면 후기 단계의 대형 투자의 비중이 계속해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17 — 미국 후기 VC 투자 규모 구간별 비중 : 건수(상) 금액 합계 기준(하)



2022년 3분기까지의 후기 VC 투자규모의 중간값은 1,150만 달러, 기업가치의 중간값은 9,100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20.8%, 9.0% 하락했다. 이러한 하락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2020년 기준으로는 성장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시장 상황이 악화된다면 후기 단계 VC 투자가 장기 성장 추세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림 18 — 미국 후기 VC 투자의 기업가치(좌) 및 투자규모(우) 중간값



출처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분야별 투자 현황

2022년 3분기까지 B2B 테크 분야에서 1,024억 달러(4,748건)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2%(2.4%) 감소한 수치로, 지난 상반기까지 이어지던 성장세가 꺾여 감소세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투자규모 및 기업가치의 중간값은 각각 약 600만 달러 및 약 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나갔다.

그림 19 — 미국 VC B2B 테크 투자 현황: 연도별 투자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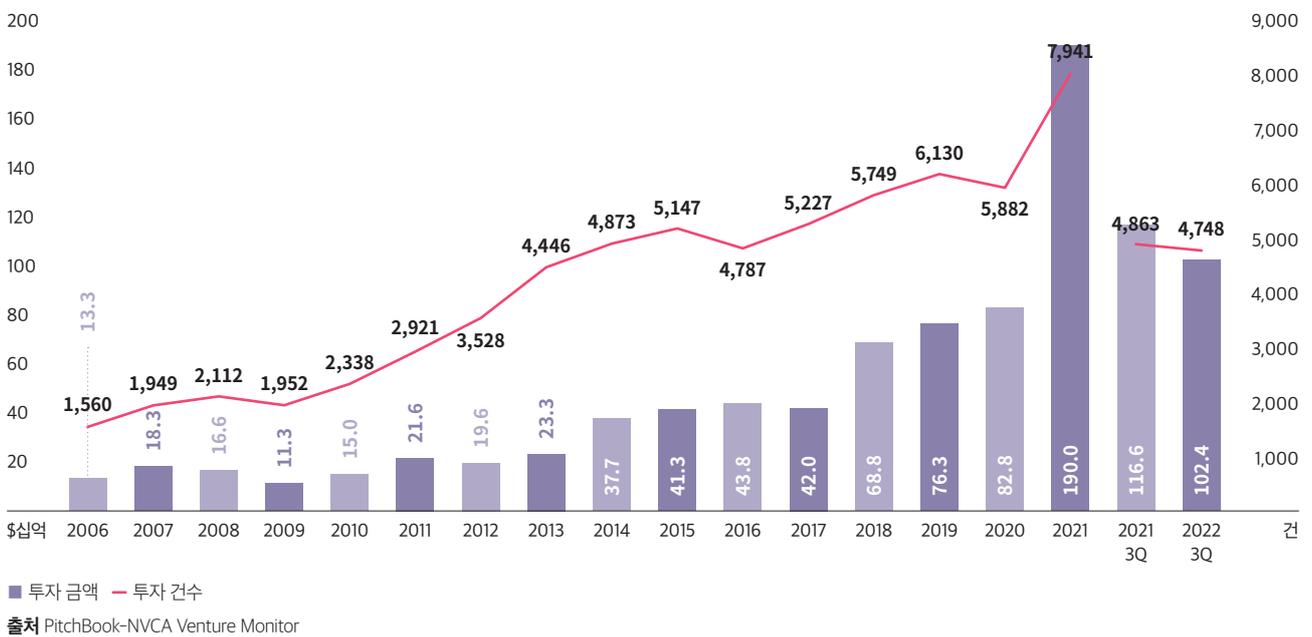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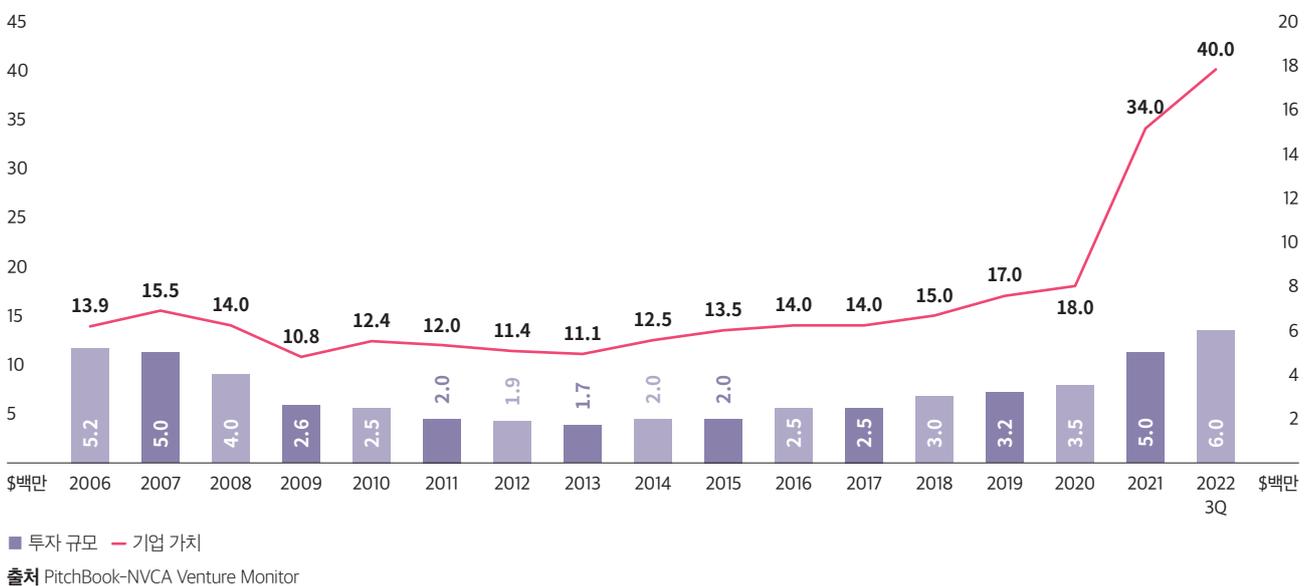


그림 20 — 미국 VC B2B 테크 투자 현황: 기업가치(좌) 및 투자규모(우) 중간값



2022년 3분기까지 B2C 테크 분야에서 417억 달러(2,534건)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9.3%(13.4%) 감소한 수치로, 지난 상반기에도 감소세였던 투자금액에 이어 투자 건수 또한 감소세로 전환했다. 반면, 투자규모 및 기업가치의 중간값은 각각 약 410만 달러 및 약 3,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도의 성장세를 이어나갔다.

그림 21 — 미국 VC B2C 테크 투자 현황 : 연도별 투자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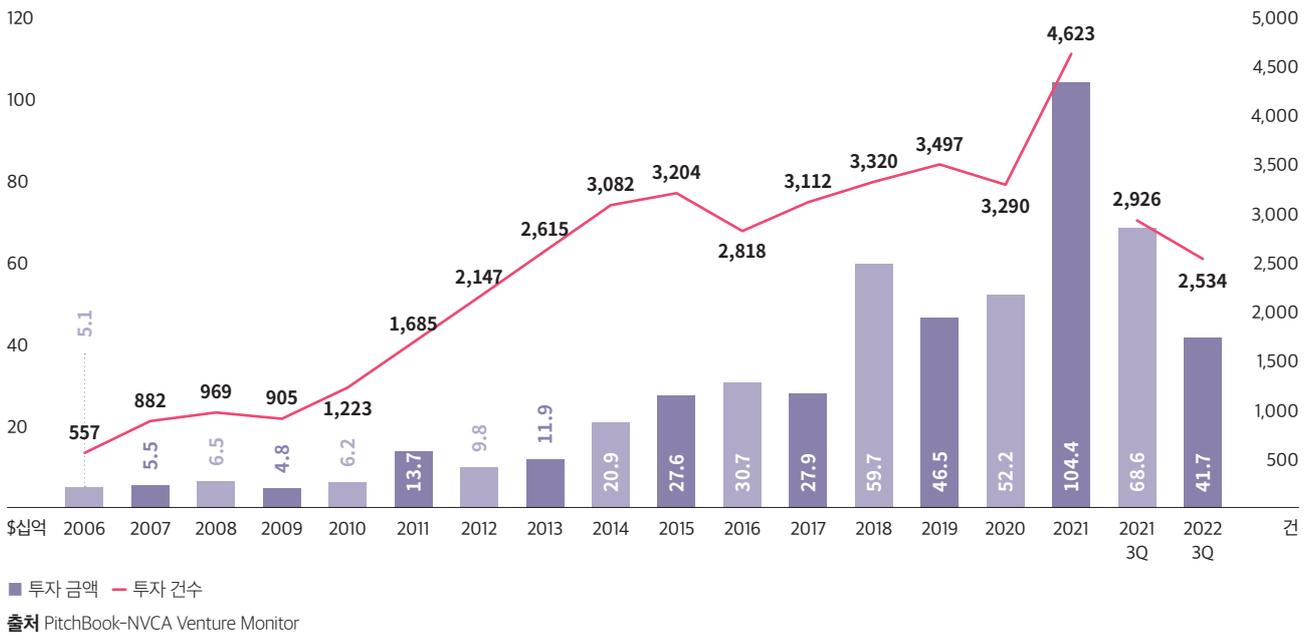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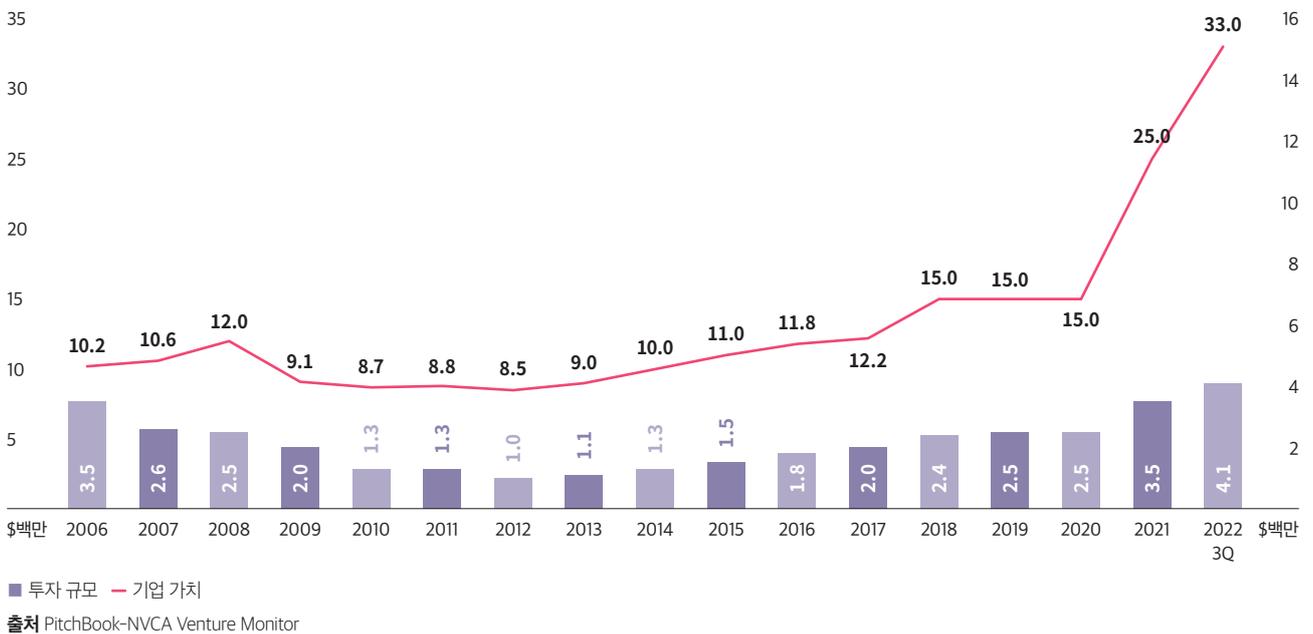


그림 22 — 미국 VC B2C 테크 투자 현황 : 기업가치(좌) 및 투자규모(우) 중간값



2022년 3분기까지 핀테크 분야에서 296억 달러(1,511건)의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0% 증가한 것에 비해 투자금액은 24.6% 감소했다. 투자규모 및 기업가치의 중간값은 각각 약 590만 달러 및 약 4,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도의 성장세를 이어나갔다.

그림 23 — 미국 VC 핀테크 투자 현황 : 연도별 투자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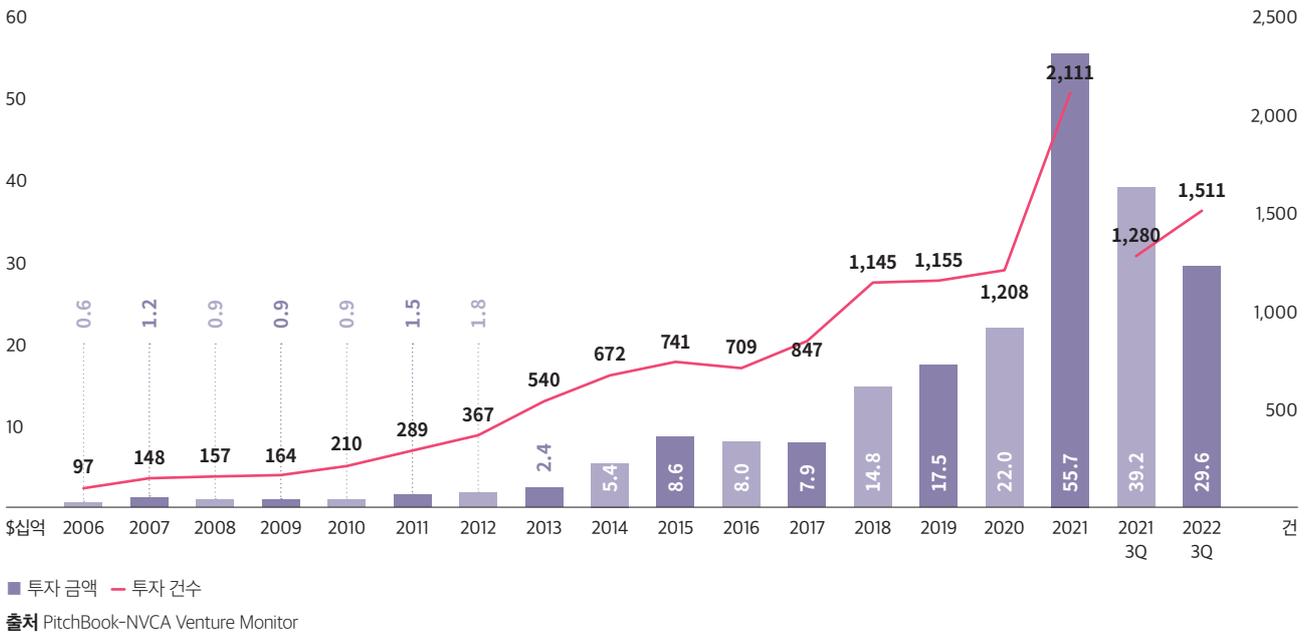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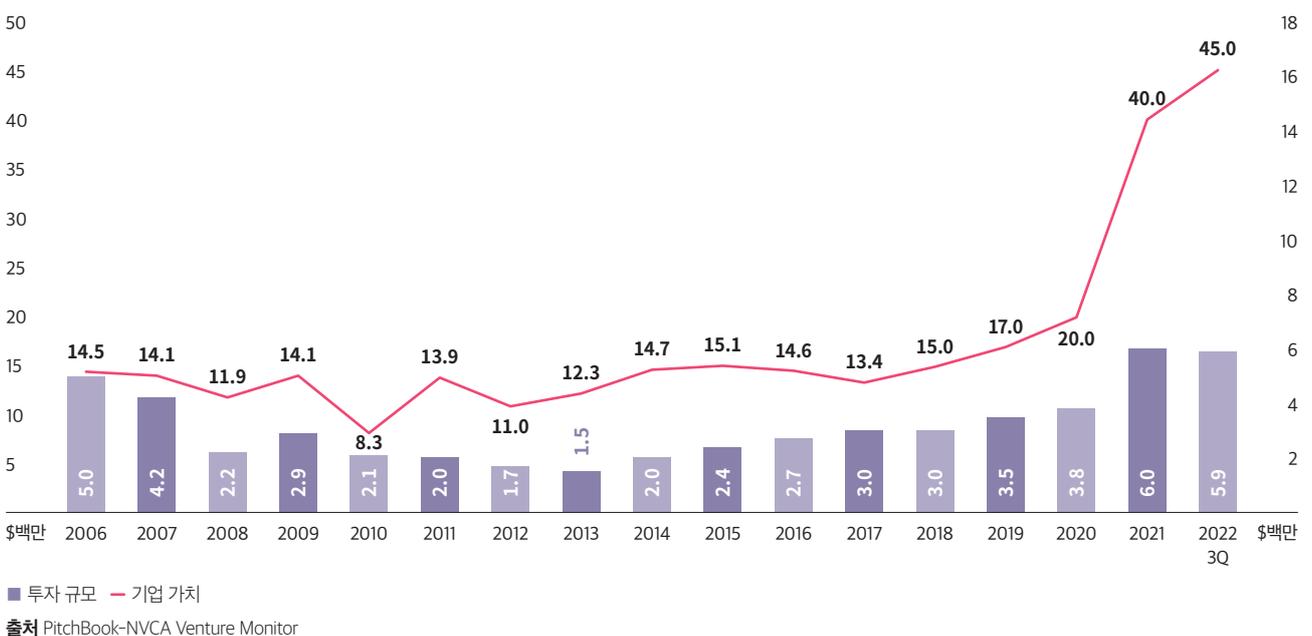


그림 24 — 미국 VC 핀테크 투자 현황: 기업가치(좌) 및 투자규모(우) 중간값



2022년 3분기까지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238억 달러(738건)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투자 건수와 투자금액 모두 각각 15.3%, 14.8% 하락한 수치이다. 반면, 투자규모 및 기업가치의 중간값은 각각 약 1,000만 달러 및 약 4,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도의 성장세를 이어나갔다.

그림 25 — 미국 VC 제약/바이오 투자 현황: 연도별 투자 실적



그림 26 — 미국 VC 제약/바이오 투자 현황 : 기업가치(좌) 및 투자규모(우) 중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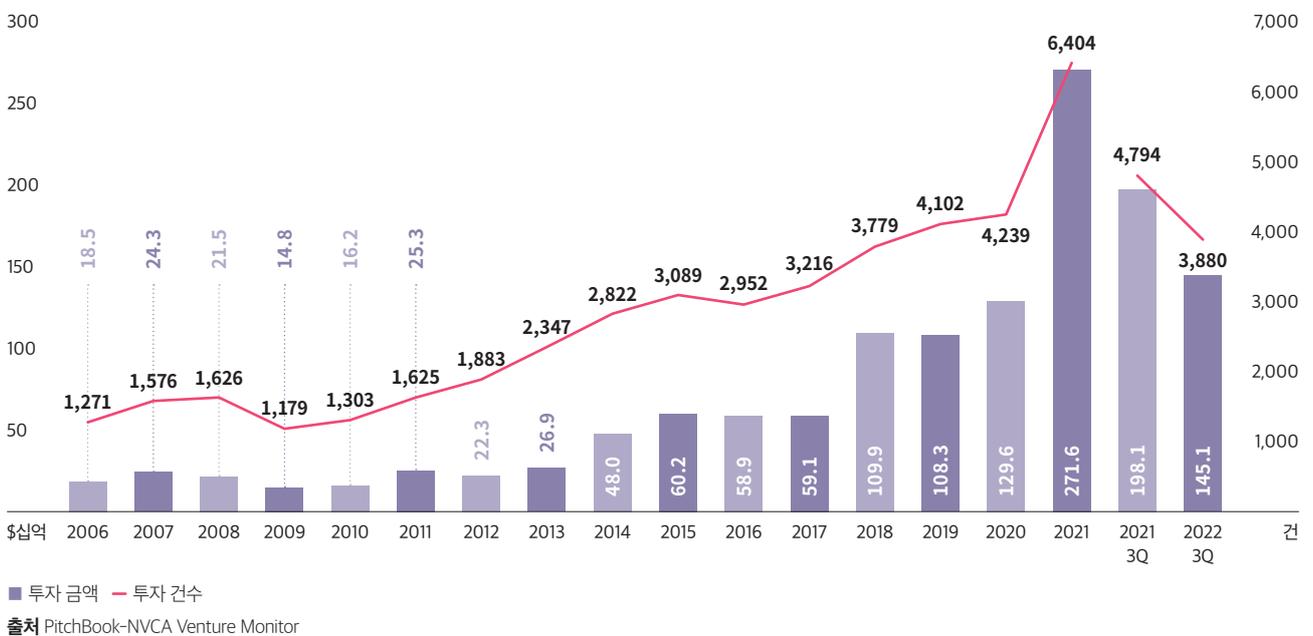


VC 시장의 비전통적 투자자들(Nontraditional Investors)*

* (KVIC 주) PitchBook은 보고서에서 nontraditional investors로 CVC, PE, Tourist를 나열하고 있다. 이 중 Tourist는 VC, CVC, growth, 액셀러레이터/인큐베이터, SBIC, 엔젤이 아닌 모든 종류의 투자자를 통칭한다고 밝히고 있다. ("Tourist" includes any investor type that is not VC, CVC, growth, accelerator/incubator, SBIC or ang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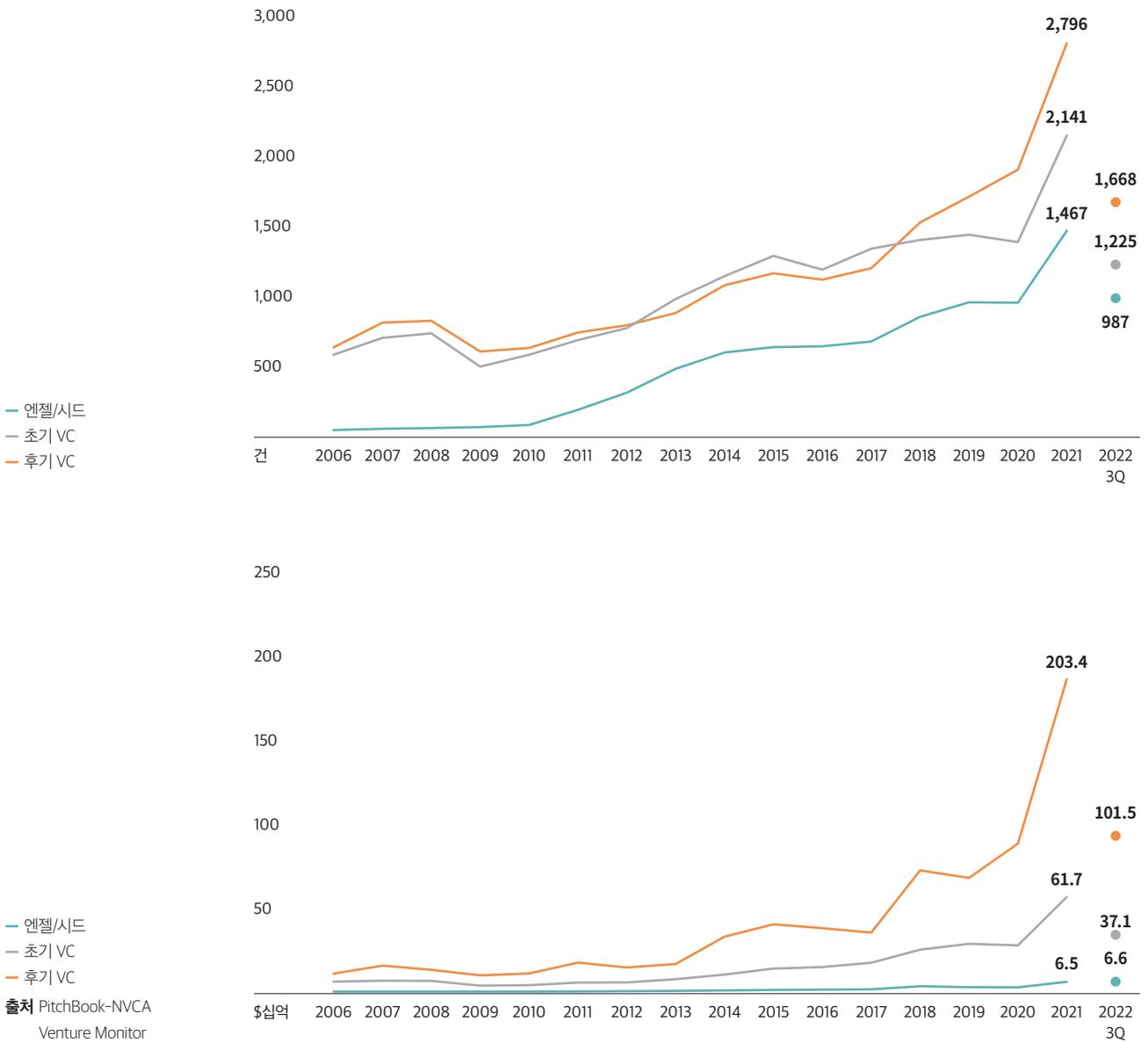
2022년 3분기까지 비전통적 투자자들은 1,451억 달러(3,880건)의 투자에 참여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의 1,981억 달러(4,794건) 투자 대비 26.8%(19.1%) 하락한 수치이다. 3분기만 보면 302억 달러(897건)의 투자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는 직전 분기 대비 43.0%(33.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가 예상했던 둔화세가 이번 3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림 27 — 미국 VC 투자 라운드 중 비전통적 투자자들의 참여 라운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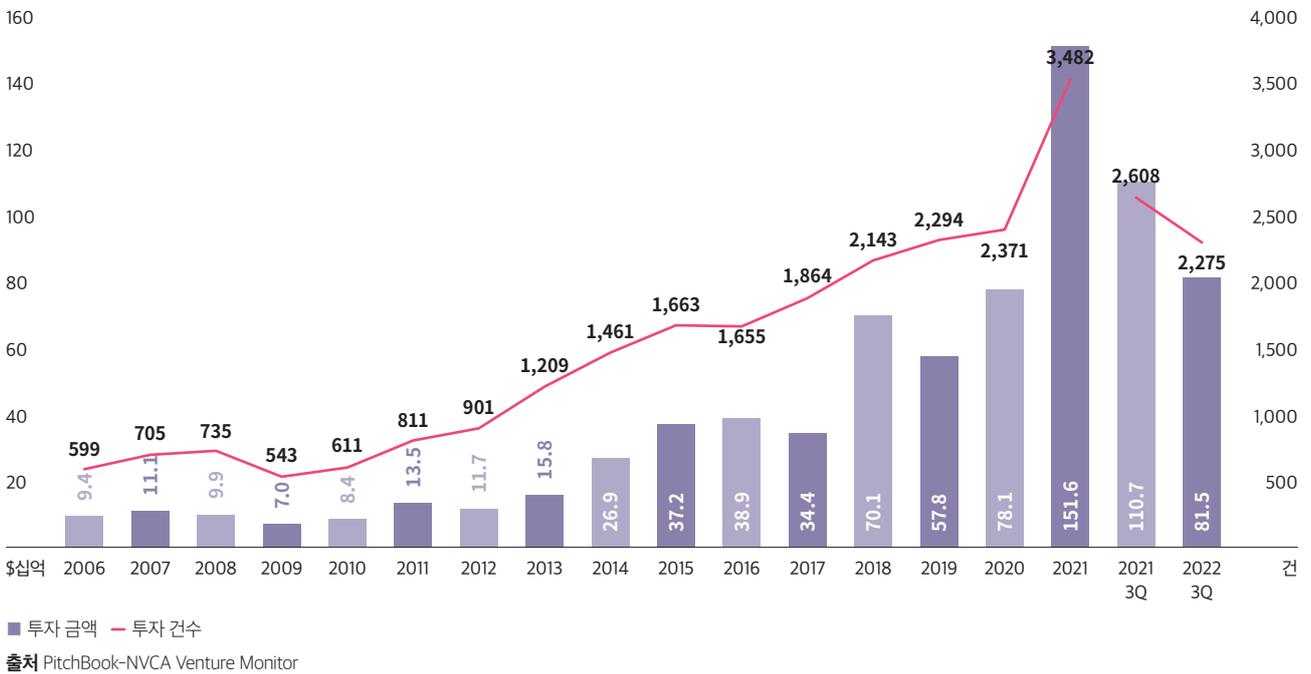
2022년 3분기까지 비전통적 투자자들이 참여한 거래를 단계별로 구분해서 보면, 올해의 추세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투자 건수는 모든 단계에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금액의 경우, 엔젤/시드 단계에서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후기 단계에서는 전년 대비 약 33.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8 — 미국 VC 투자 단계별 비전통적 투자자의 투자 현황: 건수(상) 금액(하) 기준



2022년 3분기까지 주요 비전통적 투자자 중 하나인 CVC 투자자들은 815억 달러(2,275건)의 거래에 참여했다. 이는 전년 동기 1,107억 달러(2,608건)의 거래에 참여한 것에 비해 26.4%(12.8%) 감소한 수치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CVC 투자자들은 VC 투자 건수의 25.6%에 참여하며 역대 기록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그림 29 — 미국 VC 투자 라운드 중 CVC 투자자들의 참여 라운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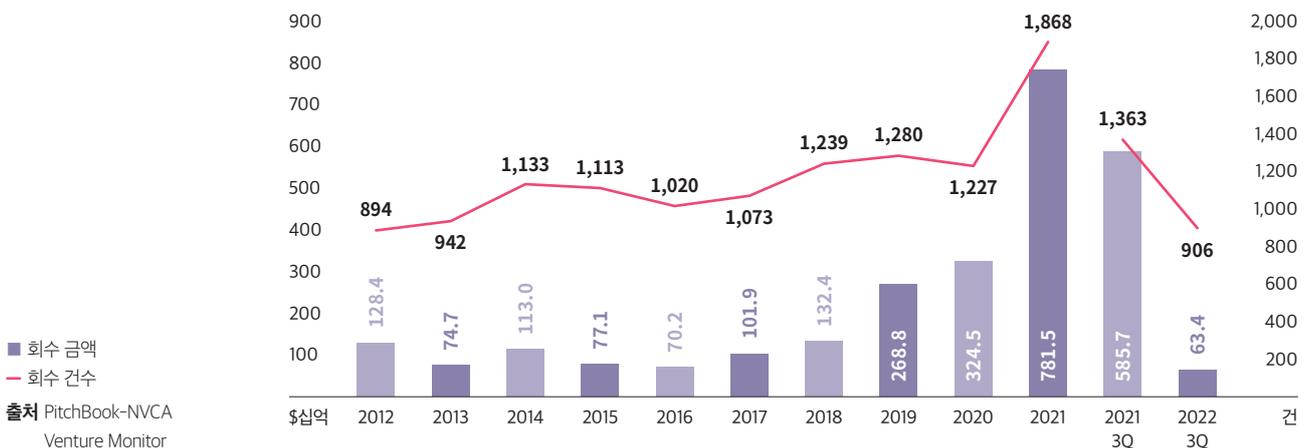


회수(Exit)

* M&A 관련 회수 규모(M&A value)는 보고되거나 공개된 값에 근거한다. IPO 관련 회수 규모(IPO value)는 IPO price로 계산한 기업의 프리머니 기준 기업가치이다.

2022년 3분기까지 미국에서는 634억 달러(906건)를 회수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5,857억 달러(1,363건)에 비해 89.2%(33.5%) 하락한 수치이다. 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140억 달러(220건)를 회수했는데, 직전 분기 대비 10.6%(29.7%)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2년 1분기부터 급격한 하락 이후 3분기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총회수 금액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1,000억 달러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0 — 미국 VC 회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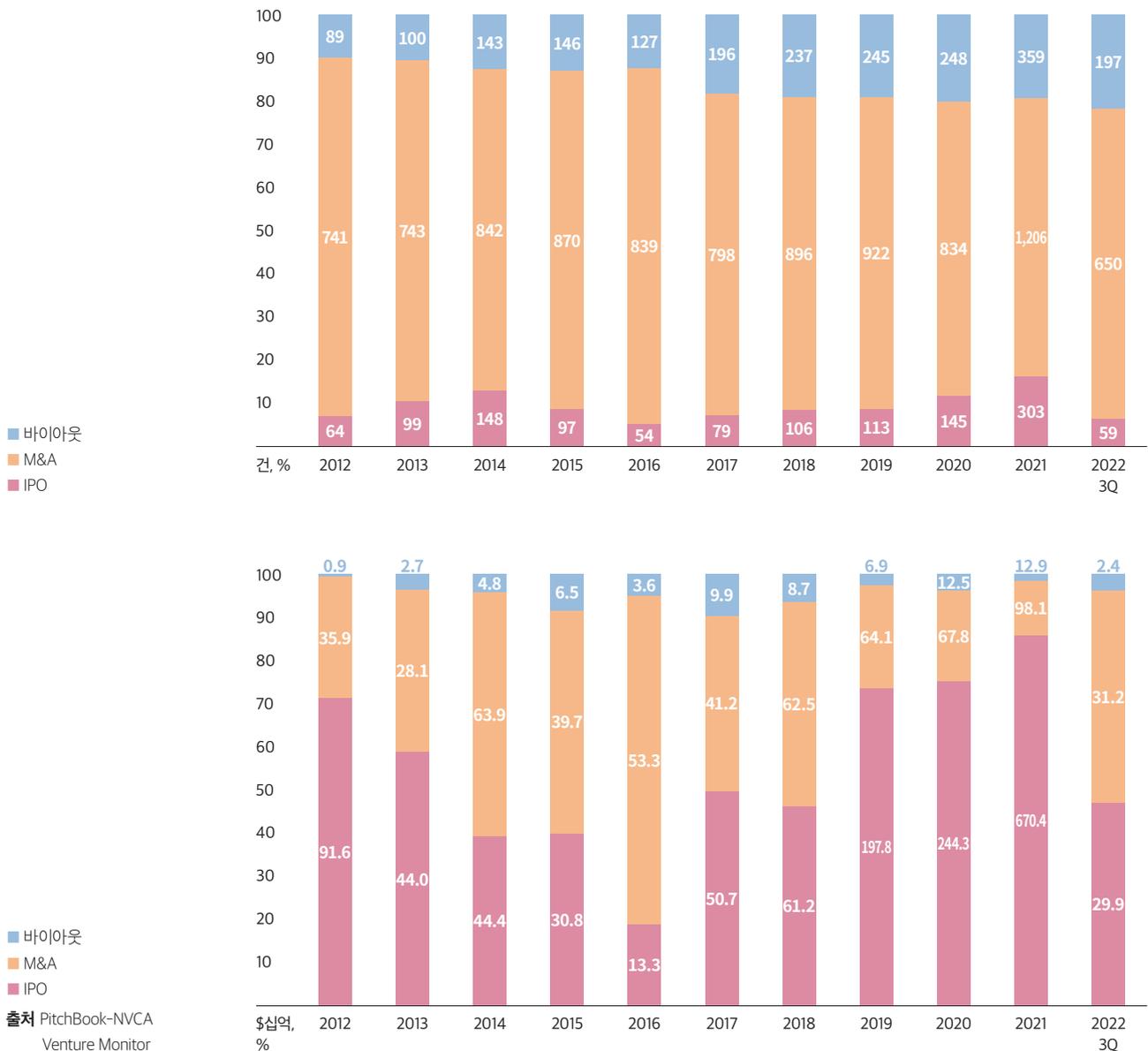
3분기까지 회수 실적을 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5억 달러 이상의 대형 회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 33.1%를 차지하며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유니콘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받아줄 수 있는 IPO의 통로가 닫히고 있기 때문에 대형 회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 — 미국 VC 회수 규모 구간별 비중: 건수(상) 금액 합계 기준(하)



실제로 2022년 3분기까지 IPO가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기준으로 6.5%, 금액 기준으로 47.1%를 차지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3분기만 살펴보면, SPAC 상장을 제외한 IPO는 단 5건에 불과할 정도로 IPO 시장이 얼어붙었다. SPAC을 통한 상장 또한 3건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인데, 이는 2021년 1분기 281개를 기록한 것과 크게 비교되는 부분이다.

그림 32 — 미국 VC 회수 유형별 비중: 건수(상) 금액 합계 기준(하)



02

유럽 벤처캐피탈 시장 동향

(European Venture Report, 2022년 3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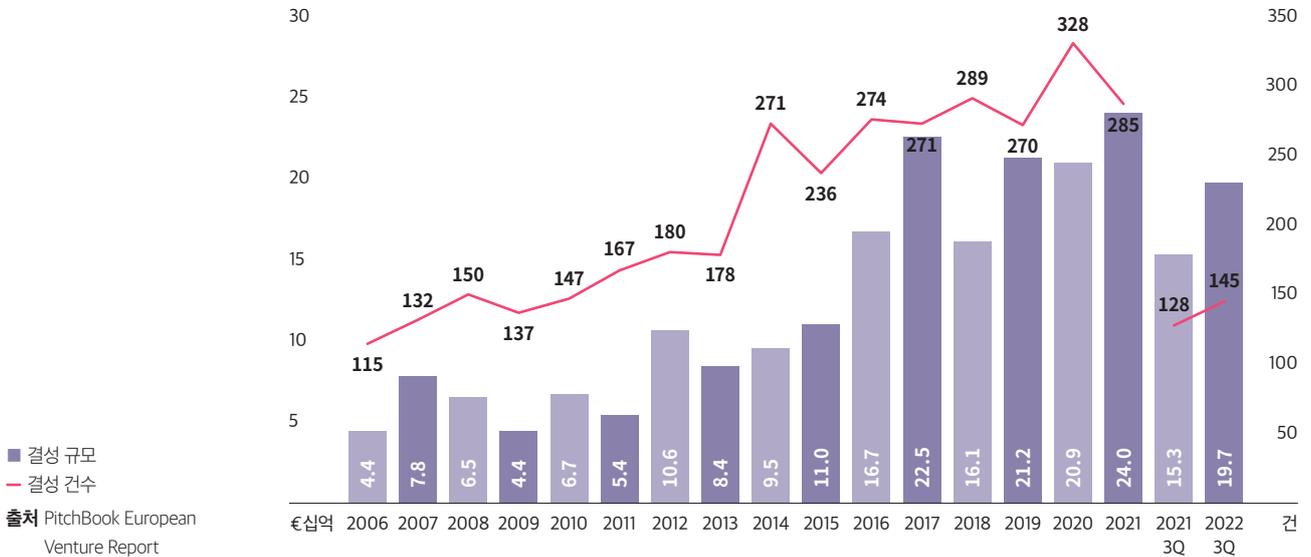
결성(Fundraising)

* European Venture Report는 PitchBook이 유럽 벤처캐피탈 시장을 조사 분석하여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2022년 3분기까지 유럽에서는 145개 펀드가 총 197억 유로 규모로 결성되어 전년 동기 대비 결성 규모 29.0%, 결성 건수 13.3% 증가했다.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면 결성 규모는 2021년의 수치를 상회할 것이고, 결성 건수는 전년도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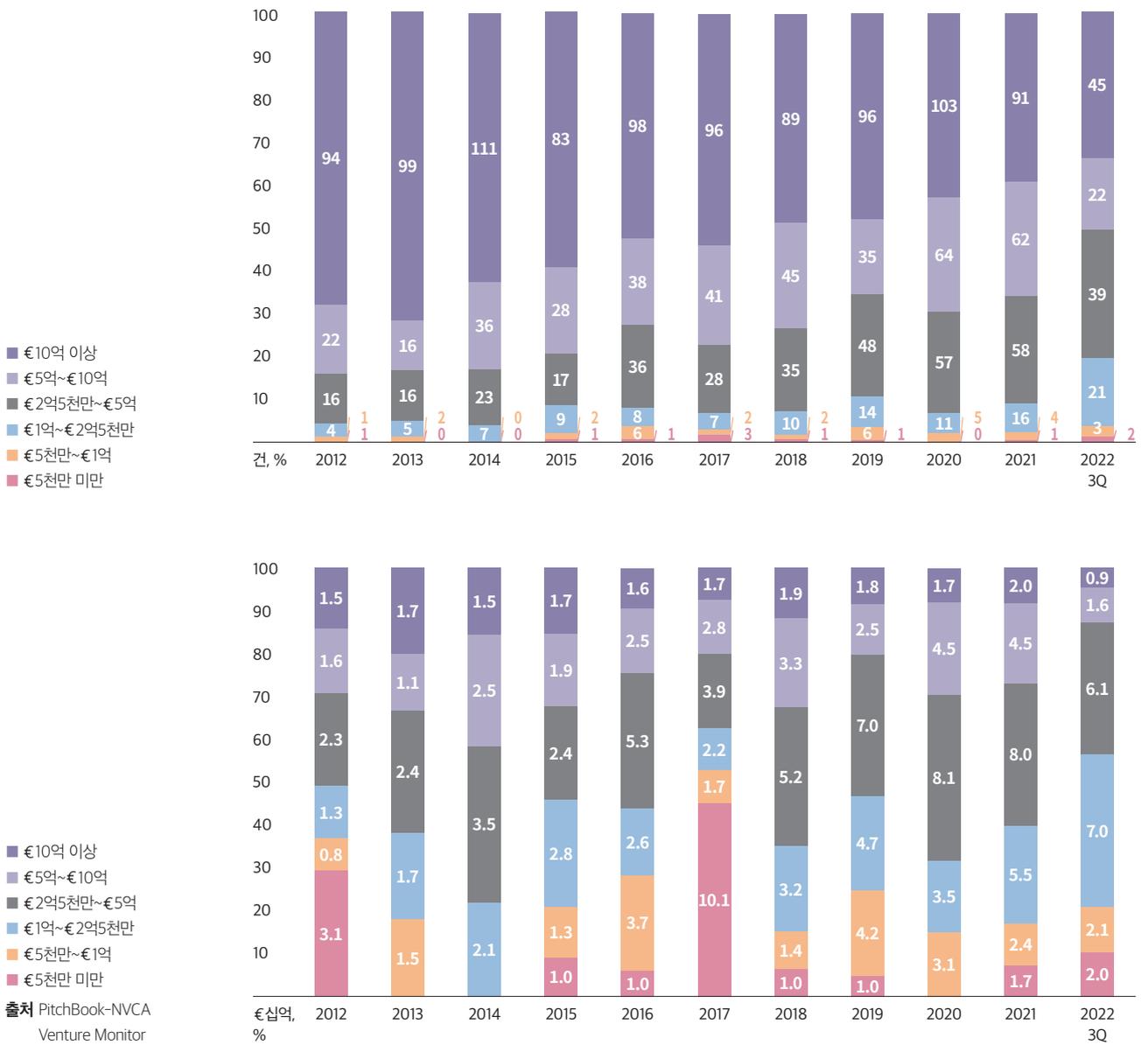
세계 금융 시장의 변화는 광범위한 불확실성을 야기했으나 유럽의 펀드 결성 규모는 2022년 현재까지 견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차 등 몇 가지 요인들이 펀드 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특히 VC 시장에서 통화 및 재정 정책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다음 분기에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림 1 — 유럽 VC 펀드 결성 현황



2022년 3분기까지의 유럽 VC 펀드 결성 규모 구간별 비중을 살펴보면, 5,000만 유로 미만의 소규모 펀드 비중이 건수와 금액 모두 최근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는 미국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결성 규모 5억 유로 이상의 펀드는 아직까지 건수와 금액 기준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VC 시장과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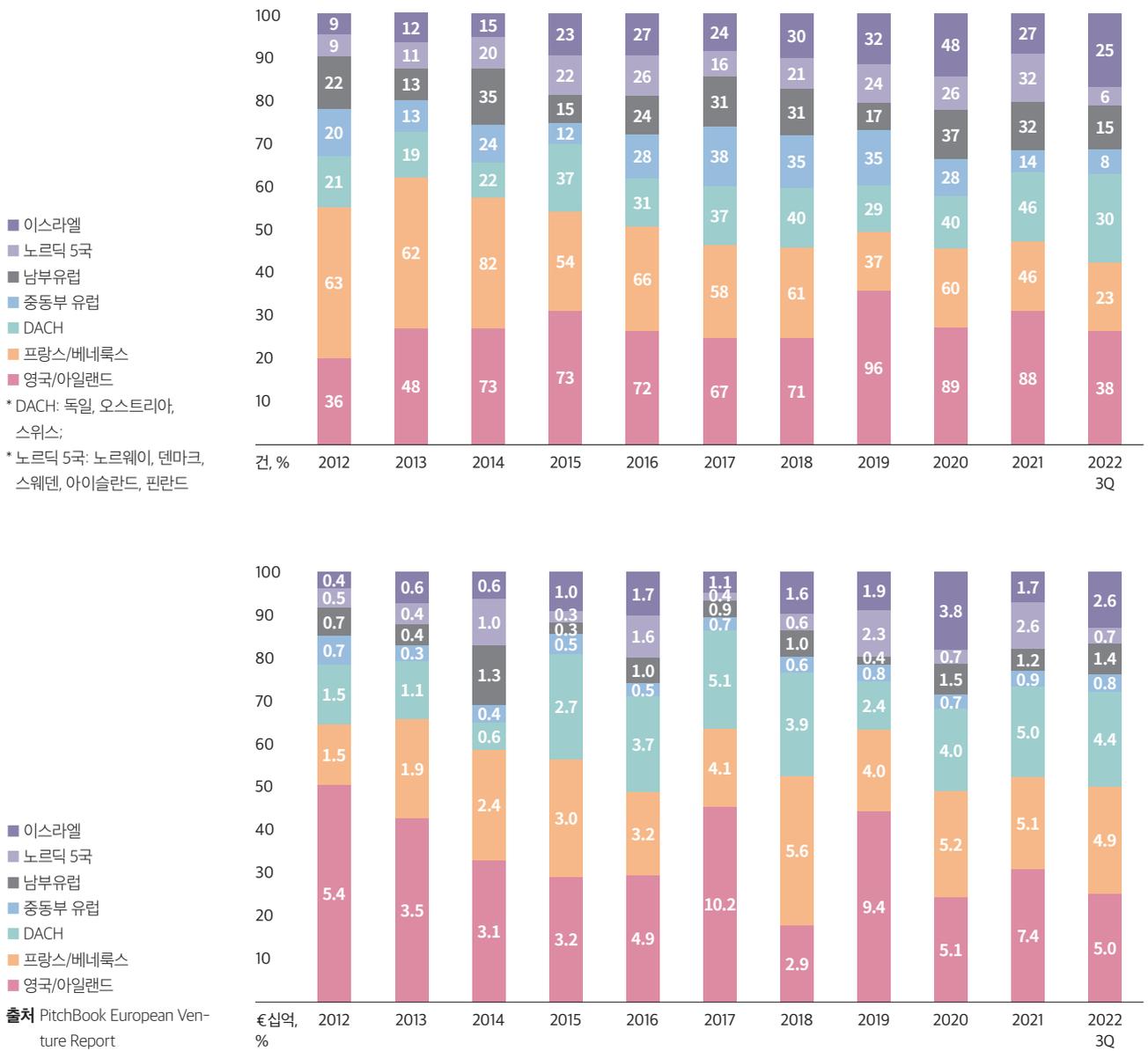
그림 2 - 유럽 VC 펀드 결성 규모 구간별 비중 : 건수(상) 금액 합계 기준(하)



Northzone X는 2022년 3분기에 10억 유로를 모금하며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로 결성된 펀드 중 하나가 되었다. Northzone은 2014년부터 매년 약 20건의 거래에 투자하며 유럽의 주요 GP로 자리매김한 VC이다.

지역별로 보면, 2022년 3분기까지 조달된 자본은 대부분 영국/아일랜드, 프랑스/베네룩스 그리고 DACH 지역에 집중되었다. 이들은 각각 50억 유로, 49억 유로, 44억 유로의 자금을 조달하며 유럽 전체 펀드 결성 규모 중 72.1%를 차지했다. 세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펀드는 3억 9,780만 유로로 결성된 모나코의 O.G. Tech Fund II이다.

그림 3 - 유럽 지역별 VC 펀드 결성 현황 : (상) 건수 기준 (하) 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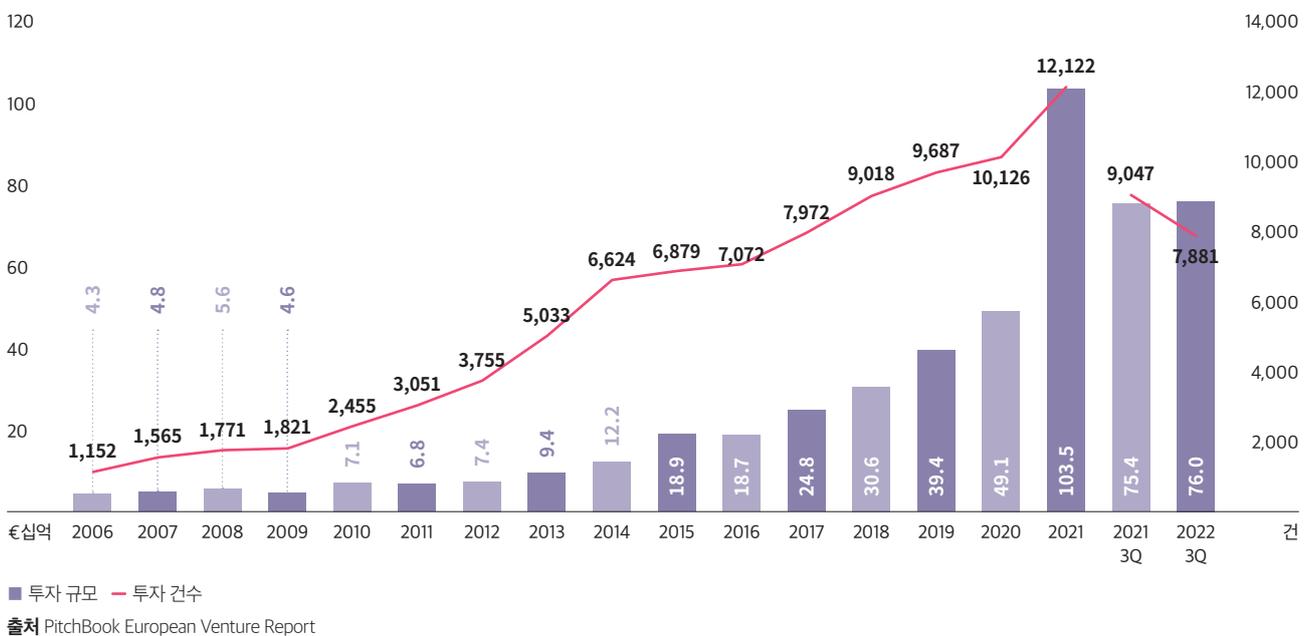


투자(Deal)

2022년 3분기까지 유럽에서는 760억 유로(7,881건)의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9% 감소했지만, 투자 규모는 0.8% 증가했다. 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2022년 3분기 투자 규모는 직전 분기 대비 36.1% 감소한 184억 유로를 기록하며 2020년 4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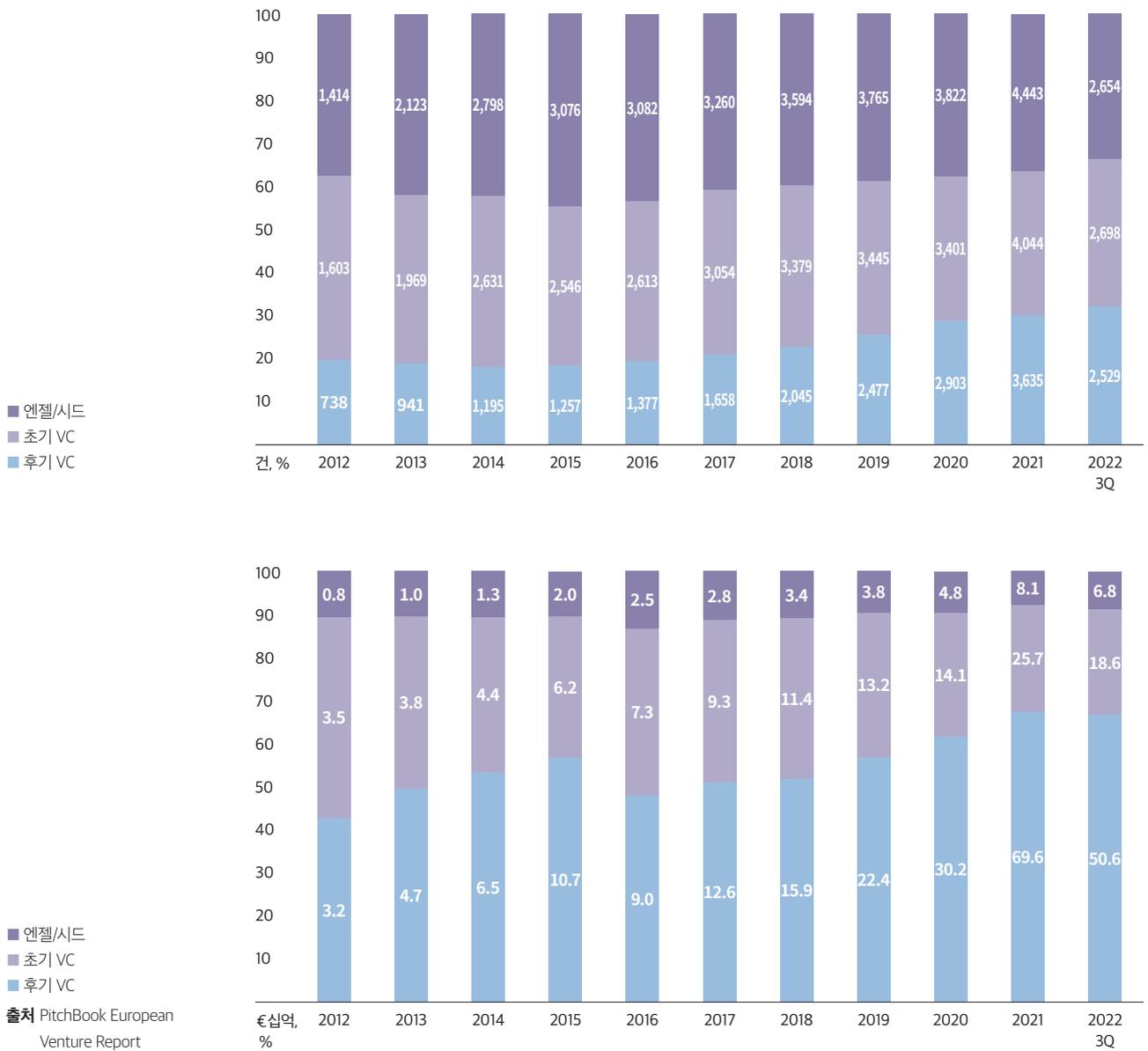
투자 규모만 본다면 2022년 내내 2021년의 추세를 따라간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전문가가 예상한 것처럼 3분기에 투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4분기에 투자 활동이 회복된다면 2022년은 유럽에서 연간 투자 규모가 가장 높은 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4 — 유럽 VC 투자 현황



2022년 3분기까지 후기 VC 투자는 506억 유로의 실적을 기록하며 전체 투자 규모 중 66.5%의 비중을 차지했다. 2016년 이후로 후기 VC 투자는 금액 기준으로 전체 투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전반적인 투자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해왔다. 후기 VC 투자가 성장했던 요인으로는 수백만 유로의 VC 펀드, 자금력 있는 국제 투자자, 유럽 기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비전통적 투자자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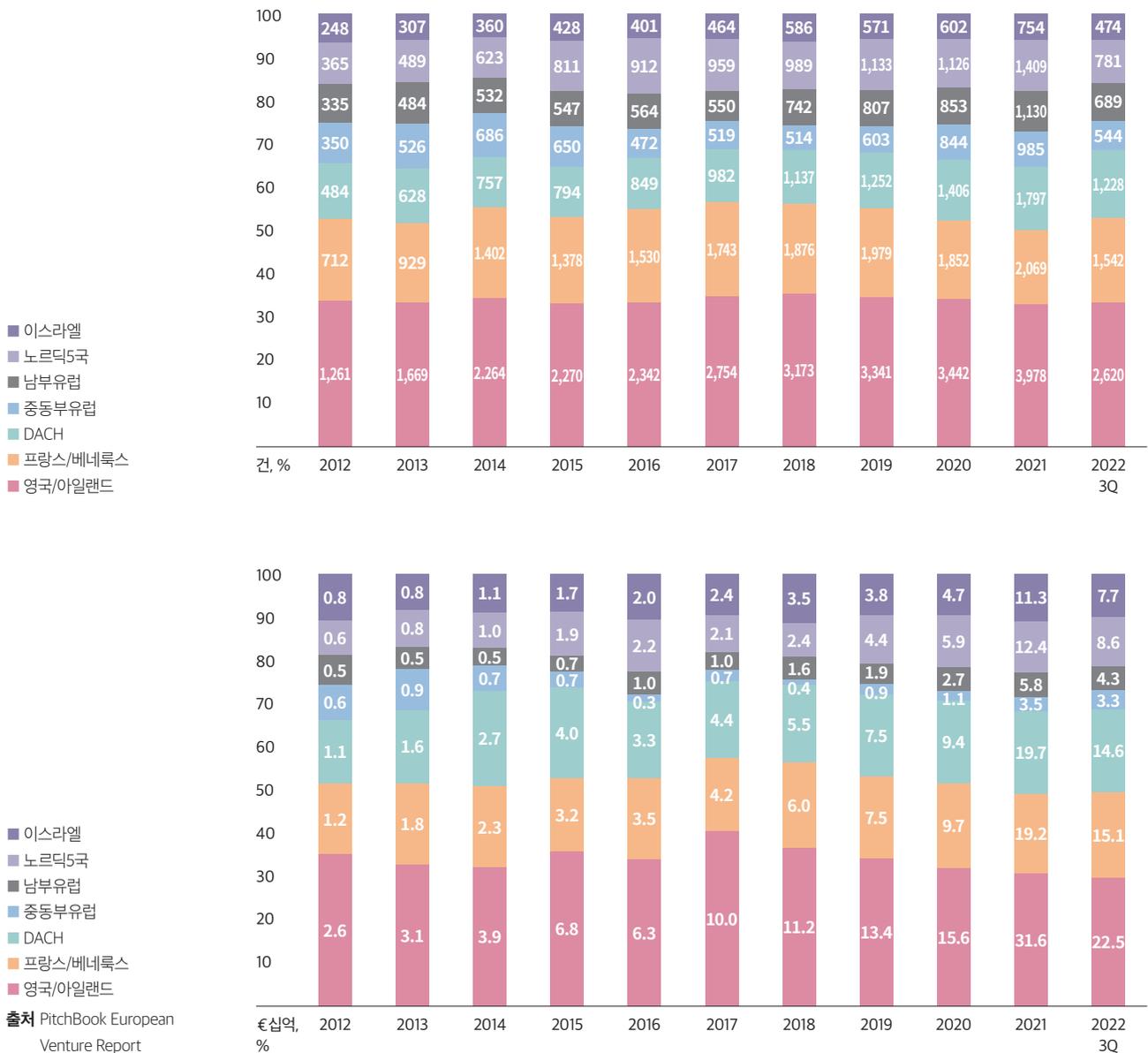
그림 5 — 유럽 VC 단계별 투자 현황



2022년 3분기에는 Klarna가 64억 유로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7억 6,700만 유로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이는 올해 최대 규모 투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번 라운드의 규모가 크긴 했지만, Klarna의 이번 투자를 통해 벤처투자생태계의 침체에 따라 기업가치가 평가 절하될 것이라는 추측을 확인해주었다. Klarna가 375억 유로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5억 2,480만 유로의 투자를 유치했던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기업가치가 약 82.8% 하락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2022년 3분기까지 영국과 아일랜드가 유럽 전체 투자규모의 29.6%에 해당하는 225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유럽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프랑스/베네룩스와 DACH 지역은 각각 151억 유로와 146억 유로의 투자금액을 기록했다. 그다음으로는 86억 유로를 기록한 노르딕 5국과 77억 유로를 기록한 이스라엘이 있다. 특히, 노르딕 5국은 3분기 들어 활발한 투자 활동을 보였다.

그림 6 — 유럽 지역별 VC 투자 현황 : (상) 건수 기준 (하) 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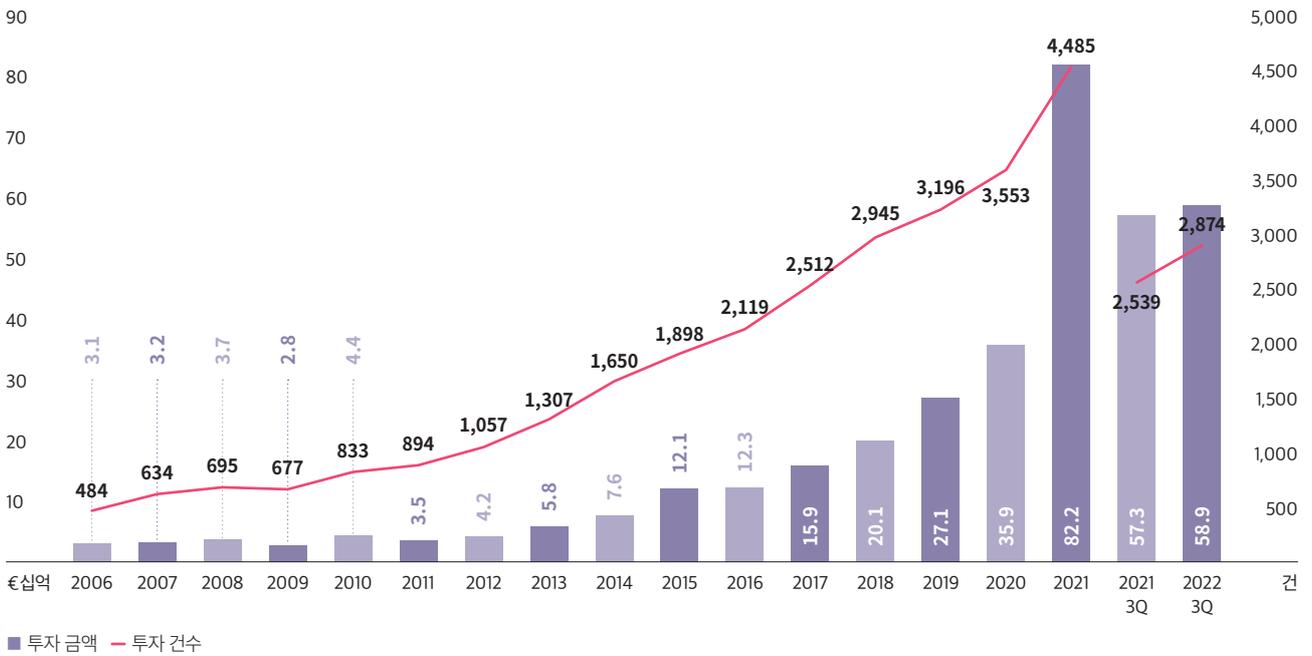
VC 시장의 비전통적 투자자들(Alternative VC)*

* (KVIC 주) PitchBook은 보고서에서 nontraditional investors로 CVC, PE, Tourist를 나열하고 있다. 이 중 Tourist는 VC, CVC, growth, 액셀러레이터/인큐베이터, SBIC, 엔젤이 아닌 모든 종류의 투자자를 통칭한다고 밝히고 있다. ("Tourist" includes any investor type that is not VC, CVC, growth, accelerator/incubator, SBIC or angel.)

2022년 3분기까지 비전통적 투자자들은 589억 유로(2,874건)의 투자에 참여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투자 규모와 투자 건수가 각각 2.8%, 13.2% 증가한 것으로, 2021년의 기록적인 수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글로벌 시장이 조정 국면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전통적 투자자들은 VC 투자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3분기에 전반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했고, 향후 추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전통적인 투자자들도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기 비전통적 투자자들이 참여한 거래 중 주목할 만한 투자는 대형 PE인 Advent International의 2억 5,000만 유로 규모 투자이다. Advent International는 미국으로의 확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스페인에 본사를 둔 인공지능 광고 회사인 Seedtag에 투자를 단행했다. 자산운용사들의 거래도 주목해볼 만한데, 그중 하나는 영국에 본사를 둔 Intermediate Capital Group(ICG)가 인프라 투자 자회사인 ICG Infra를 통해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업체인 Zeplug에 2억 4,000만 유로를 투자한 것이다. 이 계약의 한 부분으로, ICG Infra의 포트폴리오 기업 중 하나인 전기차 충전 기업 Bornes Solutions와 합병할 예정이다. 이 거래는 다수의 소규모 스타트업을 통합하며 인수합병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VC 생태계에서 비전통적인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전략임을 나타낸다.

그림 7 — 유럽 VC 투자 라운드 중 비전통적 투자자들의 참여 라운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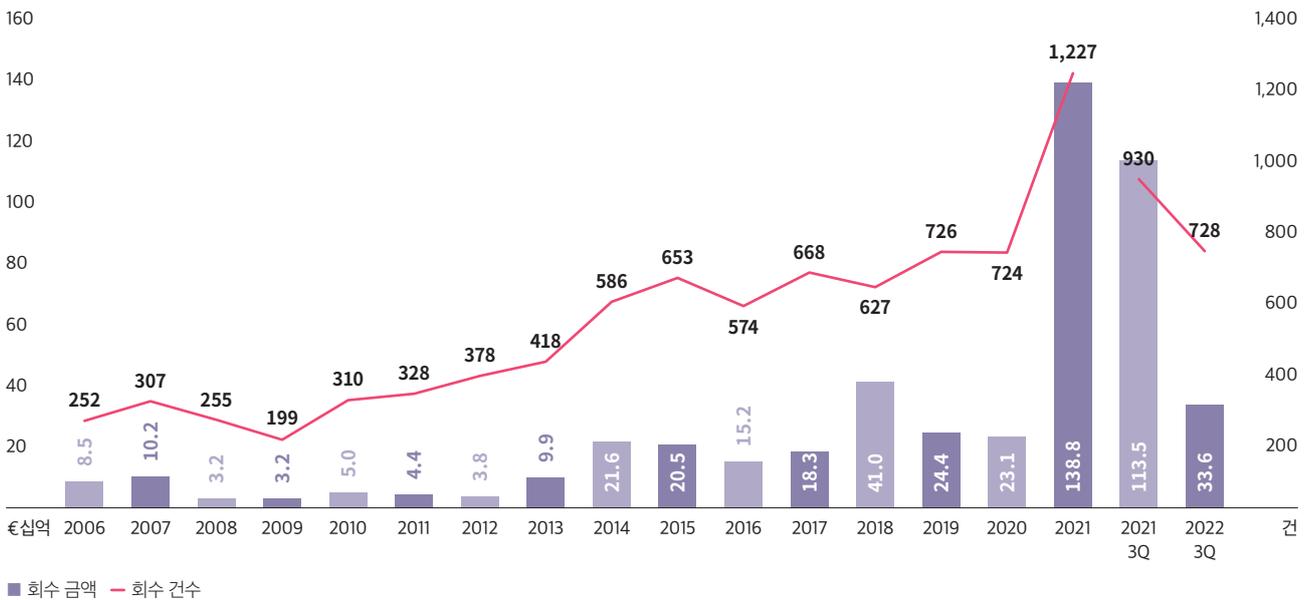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회수(Exit)

2022년 3분기까지 유럽 VC 시장에서는 총 336억 유로(728건)가 회수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의 1,135억 유로(930건)에 비해 70.4%(21.7%) 하락한 수치로, 회수시장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3분기만 보면 직전 분기 대비 81.7% 감소한 28억 유로로 크게 떨어져 2020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분기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상반기에 비해 더 가팔라졌다.

그러나 2022년은 이미 728건의 회수 실적을 기록하며 역대 기록 중 두 번째로 높은 해가 되었으므로 모든 것이 암울한 것은 아니다. 회수에 유리한 저금리, 저인플레이션, 고밸류이션이었던 2021년의 거시경제 환경에서 고금리, 스태그플레이션, 저밸류이션으로 전환된 2022년은 회수 시장이 탄력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 유럽 VC 회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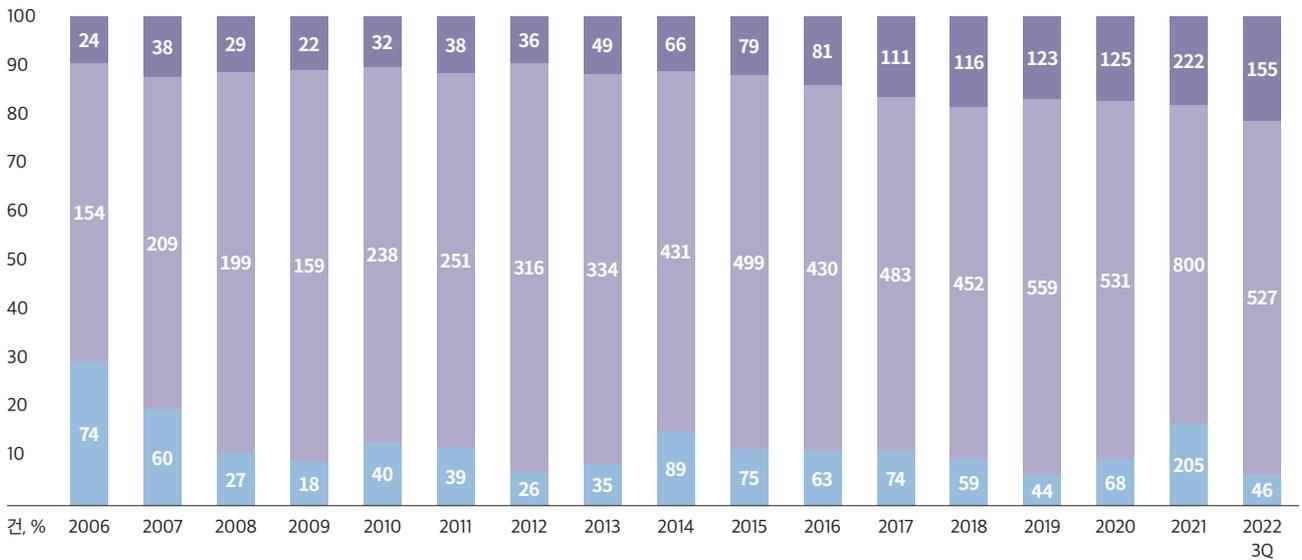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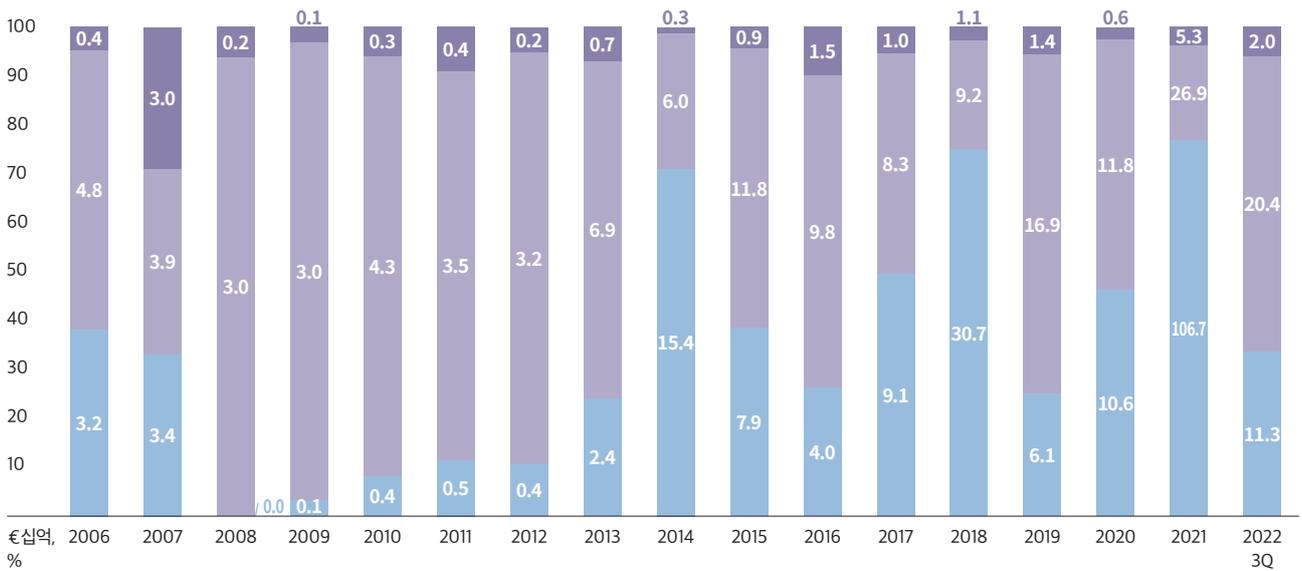
2022년 3분기까지 IPO를 통해 113억 유로(46건)의 회수가 이루어지며 전체 회수 중 33.6%(6.3%)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3.2%p(10.4%p) 하락한 수치로, IPO를 통한 회수가 크게 둔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3분기만 보면 IPO를 통한 회수는 단 7건뿐이다. 또한, 3분기에 있었던 가장 큰 회수 15건은 IPO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회수가 이루어졌다. 실제로 올해 유럽에서 VC 투자를 받은 기업이 IPO를 한 경우 대부분 시가총액 3억 유로 미만으로 상장했다.

M&A는 올해 가장 선호되는 회수 방식이다. 3분기까지 M&A를 통해 204억 유로(527건)의 회수가 이루어지며 전체 회수 중 60.5%(72.4%)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분기에 주목할 만한 M&A 중 하나는 Digital Ocean이 클라우드 호스팅 회사인 Cloudways를 3억 4,620만 유로에 인수한 것이다. Digital Ocean은 Cloudways와 2014년부터 협력했고, Cloudways는 고객 기반의 50%를 Digital Ocean에서 확보해왔다.

그림 9 — 유럽 VC 회수 유형별 현황 (상) 건수 (하) 금액 합계 기준



■ 바이아웃 ■ M&A ■ IPO



■ 바이아웃 ■ M&A ■ IPO

출처 PitchBook European Venture Report

03

글로벌 벤처캐피탈 시장 동향

(State of Venture Report 2022년 3분기)

투자

* State of Venture Report는 CBInsights가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벤처캐피탈 시장 트렌드를 조사 분석하여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2022년 3분기 동안 세계적으로 총 745억 달러(7,936건)가 투자되었다. 투자 건수 및 투자금액 모두 전년 동기의 1,640억 달러(9,862건)에 비해 54.6%(19.5%) 하락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33.8%(9.5%) 하락한 것으로, 투자 건수와 투자금액 모두 202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세계적으로 벤처투자에 대한 심리가 위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3분기의 지역별 투자를 살펴보면, 미국이 367억 달러(2,866건), 아시아가 201억 달러(2,890건), 유럽이 148억 달러(1,584건), 캐나다가 7억 달러(143건), 라틴아메리카&캐리비안이 11억 달러(226건), 호주가 7억 달러(110건), 아프리카가 4억 달러(117건)를 기록했다. 지역별 투자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직전 분기에 비해 투자금액이 줄어든 반면 투자 건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평균 투자금액이 적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초기 단계 투자가 늘어났음을 유추할 수 있다.

2022년 3분기의 메가-라운드 실적은 총 296억 달러(144건)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의 959억 달러(421건)에 비해 69.1%(65.8%) 감소했다. 2021년 4분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투자 건수와 투자금액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며 하락세를 보이며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지역별 메가-라운드 실적을 살펴보면, 미국이 149억 달러(77건)를 기록하며 메가-라운드 시장을 선도했고, 아시아가 82억 달러(44건), 유럽이 65억 달러(23건)의 투자 실적을 기록했다. 3분기 동안 캐나다, 라틴아메리카&캐리비안, 호주, 아프리카는 메가-라운드 실적이 전무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메가-라운드 투자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표 1 — 3분기 글로벌 투자유치 상위 10개 기업(2022년 3분기)

기업명	지역	산업 분야	투자 규모(\$십억)	투자자
Northvolt	스웨덴	전기/전자	1.10	Arbetsmarknedets Tillaegspension, Baillie Gifford & Co., Compagnia di San Paolo, Folksam, Forsta AP-Fonden
TeraWatt Infrastructure	미국	운송	1.00	Cyrus Capital Partners, Keyframe Capital, Vision Ridge Partners
Klarna	스웨덴	인터넷	0.80	Sequoia Capital, BESTSELLER, Silver Lake,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CPP Investments
TerraPower	미국	에너지	0.75	Bill Gates, SK Innovation
DANA	인도네시아	모바일	0.56	Lazada, Sinar Mas Indonesia
Black Sesame Technologies	중국	소프트웨어	0.50	SummitView Capital, Industrial Bank, GF Xinde Investment Management Co.
EnergyX	미국	전기/전자	0.45	Global Emerging Markets
Ziply Fiber	미국	모바일	0.45	British Columbia Investment Management Corporation, Public Sector Pension Investment Board, CPP Investments, WaveDivision Capital, Searchlight Capital Partners
Dami & Xiaomi	중국	헬스케어	0.42	ABC Impact, OrbiMed Advisors, Grand Flight Investment
Xpansiv	미국	소프트웨어	0.40	Blackstone
ContentSquare	프랑스	인터넷	0.40	Sixth Street Growth, BlackRock, Bpifrance, Canaan Partners, Eurazeo
Celonis	독일	소프트웨어	0.40	Activant Capital, Qatar Investment Authority, Accel, 83North, Arena Holdings Management
wefox	독일	모바일	0.40	Mubadala, Horizons Ventures, OMERS Ventures

출처 CB Insights State of Venture Report Q3 2022

유니콘

2022년 3분기에는 25개의 기업이 새로운 유니콘이 되면서 직전 분기의 87개에 비해 급감하며 '20년 4분기 이후 가장 적은 수의 신규 유니콘이 탄생했다. 한편, 2022년 3분기 기준 전체 유니콘 기업 수는 1,192개사가 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2022년 3분기 동안 신규 유니콘은 미국에서 14개, 유럽에서 3개, 아시아에서 7개, 라틴아메리카&캐리비안 1개가 나타났다. 2022년 3분기 기준 지역별 전체 유니콘 수는 미국 644개, 아시아 325개, 유럽 158개, 라틴아메리카&캐리비안 33개, 캐나다 19개, 호주 8개, 아프리카 5개로 확인되고 있다.

2022년 3분기 기준, 비상장기업 중 기업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은 중국의 ByteDance(\$1,400억), 미국의 SpaceX(\$1,270억), 중국의 SHEIN(\$1,000억)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3분기에 새롭게 유니콘 기업이 된 비상장기업 중에서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은 중국의 자동차 제조 기업 Zhiji Auto(\$44억), 한국의 이커머스 기업 트릿지(\$27억), 미국의 컴퓨터 하드웨어 기업 21.co(\$20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회수

2022년 3분기에는 총 2,281건의 M&A, 194건의 IPO, 25건의 SPAC 상장을 통한 회수 거래가 발생했는데, M&A는 3분기 연속 감소한 반면 IPO와 SPAC은 직전 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2022년 3분기 기준, 각 회수 유형별로 주목할 만한 회수 거래는 다음과 같다.

먼저, M&A의 경우 미국의 인터넷 소프트웨어 기업인 Figma가 200억 달러에 Adobe에 의해 M&A된 것과 스페인의 IT 서비스 기업인 Grupo Primavera가 69억 달러에 Cegid에 의해 M&A된 것, 그리고 브라질의 이커머스 기업인 iFood가 54억 달러에 Prosus에 의해 M&A된 사례 등이 있다.

다음으로, IPO의 경우 중국의 반도체 기업 Guobo Electronics가 42억 달러, 중국의 전자 제조 서비스 기업인 Longsys가 34억 달러, 중국의 전자부품 기업인 CICT Mobile이 28억 달러 규모로 IPO에 성공한 사례 등이 있다. 이번 분기에도 직전 분기와 동일하게 IPO 기업가치 상위 10개 기업을 모두 중국 기업이 차지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마지막으로, SPAC 상장의 경우 미국의 헬스케어 기업인 ProKidney가 26억 달러, 캐나다의 인터넷 소프트웨어 기업인 Rumble이 21억 달러, 그리고 미국의 인터넷 소프트웨어 기업인 Rubicon이 20억 달러 규모의 SPAC 상장에 성공한 것 등이 주요 사례이다.

04

유니콘 기업 현황

(CB Insights, 2022년 9월 30일 기준)

* CB Insights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2022년 7월 중기부가 추가로 발표한 유니콘 기업으로서 당근마켓, 빗썸코리아, 시프트업, 여기어때, 오아시스, 티몬, 기업명 비공개 1개사가 있다. 이들과 포함하면 2022년 9월 30일 기준 국내에는 총 23개(쏘카는 코스피 상장하였으므로 제외)의 유니콘 기업이 존재한다.

2022년 9월 30일 기준 The Global Unicorn Club에는 48개국에서 배출한 1,192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으며, 총기업가치가 3조 8,58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한민국의 유니콘으로 CB Insights에 현재 등재된 기업은 총 16개*이며 이들의 기업가치는 총 340억 달러에 달한다. 등재된 기업으로는 토스(63억 8,000만 달러), 옐로모바일(40억 달러),마켓컬리(33억 달러), 트릿지(27억 달러), 위메프(23억 4,000만 달러), 무신사(22억 달러), 직방(19억 3,000만 달러), 메가존클라우드(18억 3,000만 달러), 버킷플레이스(14억 달러), 리디(13억 3,000만 달러), GP클럽(13억 2,000만 달러), 엘앤피코스메틱(11억 9,000만 달러), 에이프로젠(10억 4,000만 달러), 야놀자(10억 달러), 두나무(10억 달러), 아이지에이웍스(10억 달러)가 존재한다.

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인 데카콘 기업은 총 55개이며, 미국에 소재한 기업이 31개, 중국에 소재한 기업이 12개(홍콩 포함), 영국에 소재한 기업이 4개, 인도에 소재한 기업이 2개, 그리고 호주, 독일, 인도네시아, 터키, 바하마(Bahamas), 세이셸(Seychelles)에 각각 1개가 존재한다.

표 1 — 국가별 유니콘 기업 개수 및 기업가치 총계

(단위 : 개, \$십억)

국가	유니콘 기업 개수	유니콘 기업가치 총계
미국	644	2,073.9
중국(홍콩 포함)	180	694.3
인도	70	202.9
영국	46	205.5
독일	29	80.9
프랑스	24	58.4
이스라엘	23	50.5
캐나다	19	49.2
브라질	16	39.1
한국	16	34.0
싱가포르	13	20.8
호주	8	54.4
스웨덴	8	23.6
멕시코	8	18.7
인도네시아	7	29.1
네덜란드	7	22.5
스위스	6	12.3
아일랜드	6	10.1
일본	6	8.8
노르웨이	5	5.7
핀란드	4	12.5
스페인	4	6.2
터키	3	15.8
벨기에	3	9.0
콜롬비아	3	7.4
아랍 에미레이트	3	5.1
태국	3	3.5

* (KVIC 주) 3개 이상 유니콘 보유 국가 기재
출처 CB Insights





모태 출자펀드 투자 산업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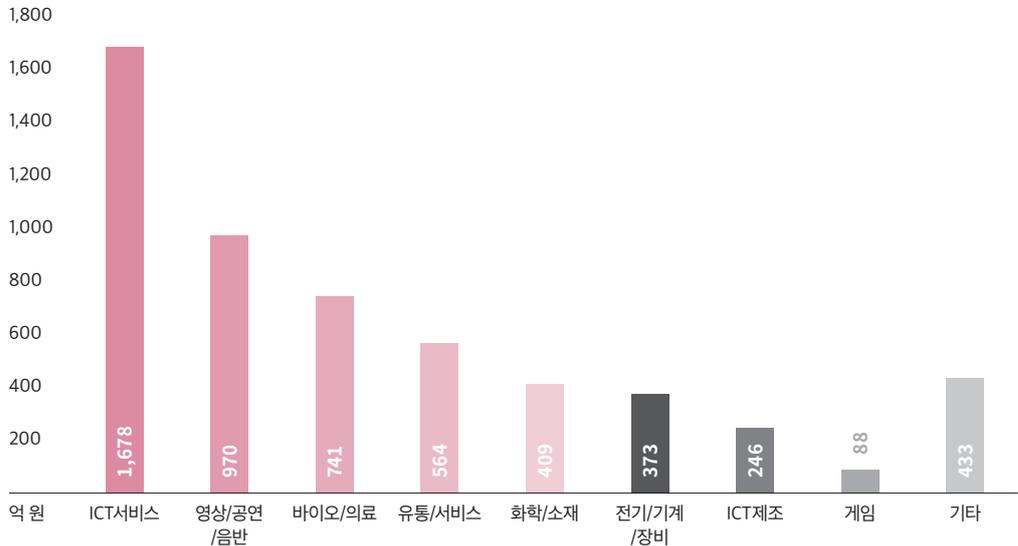
해당 보고서는
매 분기별로 발간되며,
이번 호에서는 2022년 3분기(7~9월)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01

2022년 3분기 산업별 투자 동향

2022년 3분기 모태 출자펀드는 376개(-32.0% YoY)의 기업 및 프로젝트에 총 5,502억 원(-44.7% YoY)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은 직전 분기에 이어 연속으로 하락해 당기에 14.6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6% 대폭 하락한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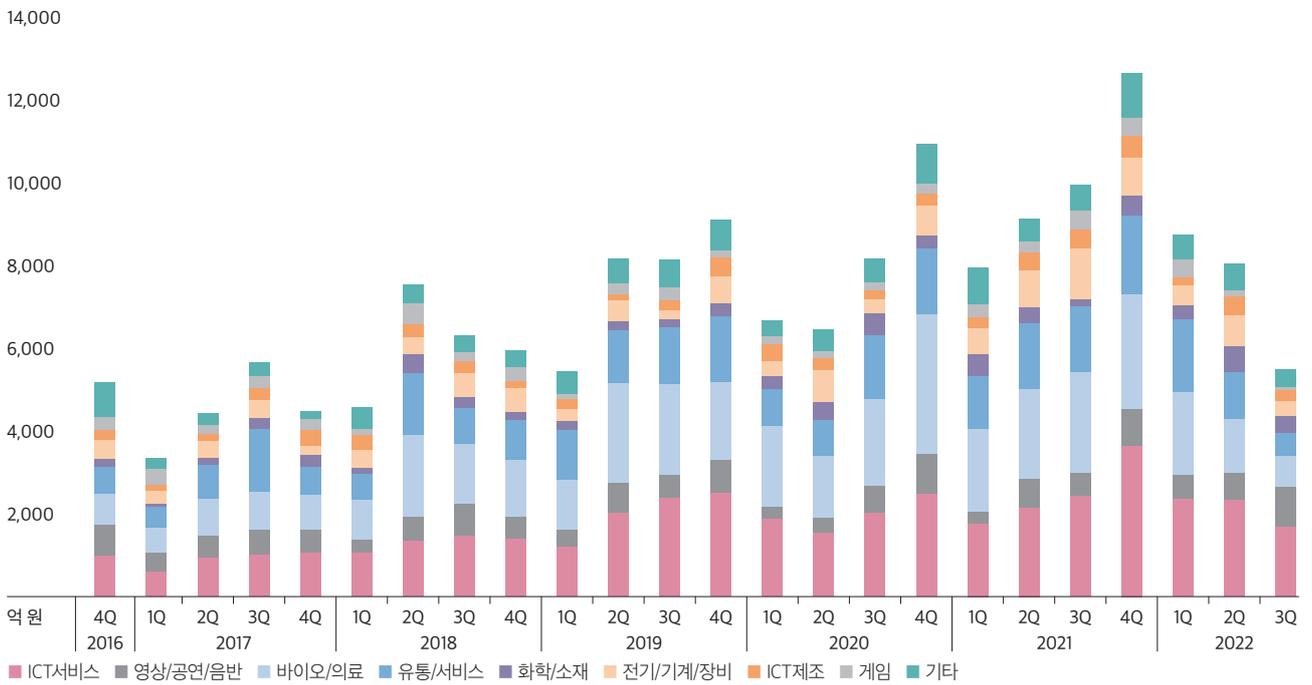
그림 1 — 2022년 3분기 산업별 모태 출자펀드 투자 현황



출처 한국벤처투자

산업별로는 ICT서비스(1,678억 원, -31.0% YoY)에 유일하게 1,500억 원 이상 투자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직전 분기 상위권에 랭크되었던 바이오/의료 및 유통/서비스의 경우 투자심리 냉각이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오/의료는 투자금액 기준 아직 3위를 유지 중이나 전년 동기 대비 69.7% 감소한 741억 원을 기록했고, 유통/서비스는 64.3% 감소한 564억 원을 기록하며 '17년 이후 처음으로 4위로 하락했다. 반면, 영상/공연/음반의 경우 투자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75.9% 증가한 970억 원을 기록하며 '17년 이후 처음으로 2위에 랭크되었다. 이로 인해 영상/공연/음반이 '17년 이후 처음으로 상위 업종 3위 내에 진입하게 되었다. 전반적인 투자 위축으로 인해 상위 3개 종목의 전체 투자금액(3,389억 원)은 감소했지만 투자 비중은 증가해 61.6%를 기록했다.

그림 2 — 산업별 모태 출자펀드 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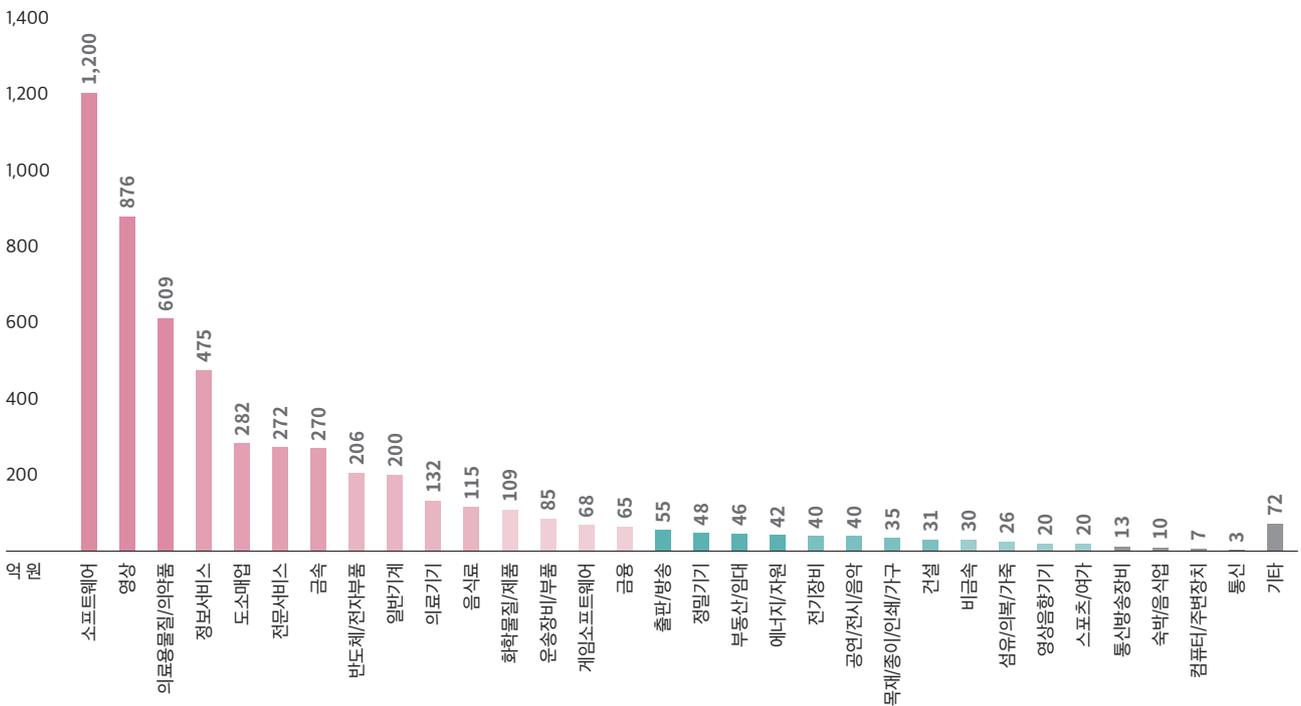


* 22년 3분기 말 기준 보고된 금액으로 분기별 수치는 해당 분기에 발간된 마켓워치에 기재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출처 한국벤처투자

세부적으로는 소프트웨어(1,200억 원, -25.9% YoY), 영상(876억 원, +129.4% YoY), 의료용물질/의약품(609억 원, -71.0% YoY)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소프트웨어나 의료용물질/의약품의 경우 최근 5년간 항상 상위권을 기록해왔다. 또한 영상의 경우 투자금액이 급증하여 전년 동기 대비 129.4%, 직전 분기 대비 57.6%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17년 이후 중분류 기준 처음으로 2위에 기록됐다. 직전 분기 3위에 기록되었던 정보서비스는 직전 분기 대비 26.0% 감소한 475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며 4위로 밀려났다.

그림 3 - 2022년 3분기 세부 산업별 모태 출자펀드 투자 현황



출처 한국벤처투자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은 1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4억 원 감소했다. 평균 투자금액이 가장 높은 업종은 화학/소재로 직전 분기와 동일하다. 화학/소재는 업체당 평균 투자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97.7% 증가한 29.2억 원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ICT제조가 전년 동기 대비 25.0% 증가한 18.9억 원으로 2위를 기록했으나, 직전 분기에 대비해선 23.8%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직전 분기 대비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이 화학/소재는 증가하고 ICT 제조는 감소하며 1, 2위 간의 평균 투자금액 차이가 더욱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유통/서비스의 경우 당기의 평균 투자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9% 하락한 10.4억 원으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3분기 메가딜(기업당 투자금액 합계 100억 원 이상)은 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건이 감소했으며, '19년 1분기 이후 최저 건수를 기록했다. ICT서비스, 영상/공연/음반, 그리고 화학/소재 업종에서 메가딜이 발생했다. 투자 단일금액 비교 시 VP(Virtual Production) 및 VFX(Visual Effects) 제작업체에 300억 원 투자가 이루어져 3분기 말 누적 기준으로 1위를 기록했다.

표 1 — 2022년 3분기 모태 출자펀드 산업별 벤처투자 현황

(단위 : 억 원, 개)

분류	투자금액	투자기업 수	평균 투자금액
총합계	5,502	376	14.6
ICT서비스	1,678	130	12.9
소프트웨어	1,200	92	13.0
정보서비스	475	37	12.8
통신	3	1	3.0
바이오/의료	741	51	14.5
의료용물질/의약품	609	40	15.2
의료기기	132	11	12.0
유통/서비스	564	54	10.4
전문서비스	272	26	10.5
도소매업	282	27	10.4
숙박/음식업	10	1	10.0
영상/공연/음반	970	58	16.7
영상	876	48	18.2
공연/전시/음악	40	7	5.7
출판/방송	55	3	18.3
전기/기계/장비	373	25	14.9
전기장비	40	5	8.0
일반기계	200	11	18.2
운송장비/부품	85	5	17.0
정밀기기	48	4	12.0
화학/소재	409	14	29.2
화학물질/제품	109	7	15.5
금속	270	5	54.1
비금속	30	2	15.0
ICT제조	246	13	18.9
반도체/전자부품	206	9	22.9
통신방송장비	13	1	13.0
컴퓨터/주변장치	7	1	7.0
영상음향기기	20	2	10.0
게임	88	6	14.7
게임소프트웨어	68	5	13.6
스포츠/여가	20	1	20.0
기타	433	25	17.3
에너지/자원	42	4	10.5
음식료	115	5	23.0
금융	65	3	21.7
섬유/의복/가죽	26	2	13.0
부동산/임대	46	2	23.0
목재/종이/인쇄/가구	35	3	11.7
건설	31	2	15.7
기타	72	4	18.1

* 기업 수 합계는 중복 제거 수치
출처 한국벤처투자

표 2 — 2022년 3분기 산업별 주요 투자 키워드

ICT서비스	#초개인 인터넷 큐레이션 서비스 #음악저작권 거래 플랫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솔루션 #B2B 공간관리 솔루션 #콘텐츠 IP 자산운용 및 거래 플랫폼 #단기인력 채용 플랫폼 #동형암호 보안프로그램 #EMR 클라우드 #장례서비스 플랫폼 #택시탑 디스플레이 광고 #SaaS 기반 온라인 사업자 커뮤니케이션 #물류 자동화 시스템 #중국어 학습 플랫폼 #골프 GDS 플랫폼 #숙박업체용 All-In-One 솔루션 #인도네시아 주거정보 공유 플랫폼 #물류창고 차량 통합 관제 솔루션 #구직자 평판조회 플랫폼 #영유아 스마트러닝 #스마트워치페이스 플랫폼 #스마트팩토리 종합 솔루션 #AI 무인매장 솔루션 #외주 공급망 관리 솔루션 #입체음향 기술
바이오/의료	#우울증 진단 및 디지털 치료제 #다발성 근염 치료제 #항암신약 개발 #단백질 구조 기반 후성유전 및 GPCR 표적 치료제 #인공달팽이관 장치 #일산화질소 농도조절 기술 기반 치료제 및 mRNA 기반 신약 개발 #항암바이러스 활용 신약 개발 #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및 저분자 항암제 #UHP 청정관/위생관 #mRNA 기반 NK engager 신약 #인공지능 기반 생체신호 분석솔루션 #환자 쇼크 예측 SaMD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 개발 #방광스캐너/체외자기장치료기 #레이저에너지 기반 의료기기 #면역항암제 불응인자 발굴 플랫폼
유통/서비스	#수산물 온라인 판매 및 배송 #렌터카 OTA #AI푸드스캐너 #입체음향 기술 #렌터카 O2O 모바일 예약 플랫폼 #명품그릇/가구 리세일 #크립토 컨설팅 서비스 #맞춤형 구강 케어 솔루션
영상/공연/음반	#영화제작 및 배급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 #IP 기반 미디어 콘텐츠 #웹툰 제작 #VP 및 VFX 콘텐츠 #아동용 역사 콘텐츠 #온라인 미디어 제작·유통
전기/기계/장비	#반도체 PCB 자동화 검사장비 #자동차부품 제조·가공 #UAM/AAM 기체 개발 #수질/바이오센서 기술
화학/소재	#전기자동차 배터리팩 절연·방열 표면처리 #의약품재료·정밀 화학제품 #알루미늄 주물·주조 #합금철 제조
ICT제조	#NFC 칩 #산업용 X-ray 디텍터 #AI 가속기
게임	#IP 기반 콘솔게임 #모바일 게임 개발
기타	#성분제조합 건강기능식 제품 #국산 그릭요거트 #프리미엄 한우 유통 #모바일 간편송금 #특허수익화 서비스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신선편이식품 가공 #신재생에너지/친환경 유통

